

연구보고서 2017-06

청년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이 철 · 김선업 · 김현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발 간 사

이 연구는 2016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시민시장실에서 “여러분의 일과 식생활은 어떻습니까”라는 주제의 대답을 마련하고, 정책박람회에 참여한 청·장년층의 일과 식생활에 있어 유기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먹거리 양극화 현상은 소득의 근간이 되는 임금과 노동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개인의 직급, 성별, 가정환경, 조직의 분위기 등의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일과 식생활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불안정한 노동과 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에 주목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각 개인의 일상생활과 개인적 사유 등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일과 식생활에 대한 관계를 밝혀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서울지역의 청년 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먹거리 종합정책의 수립에 적절히 활용되어 청년 아르바이트의 먹거리 보장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공동의 결과물입니다. 먼저 연구는 “SSK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연구센터”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신 김선업 교수님, SSK 연구팀과의 공동발표토론회에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홍주 교수님, 김철규 교수님, 발표를 해주신 안윤숙 박사님을 비롯한 SSK 연구센터의 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동발표토론회에 흔쾌히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 및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2017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문종찬

< 목 차 >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3
1. 한국사회에서 식사양식과 노동의 연관성 찾기	3
2. 아르바이트 노동과 식생활	8
III. 청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및 식생활 실태 분석	11
1. 실태조사의 분석 주제와 자료	11
2. 청년 아르바이트의 노동과 식생활 실태 분석	16
1)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일반적 특성	16
2)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식사양식의 일반적 특징	23
3) 식사시간은 충분한가?	31
4) 아르바이트생의 혼밥	37
5)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43
6)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	49
7) 아르바이트생은 일터에서 무엇을 먹는가?	56
8) 아르바이트 이후 식생활의 변화	67
9) 아르바이트생의 식습관과 건강	76
10)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일과 생활은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과 어떻게 다른가?	86
IV. 결론: 요약 및 정책과제	91
1.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발견	91
2. 정책적 함의와 과제	96

참고문헌	101
부록 1. 설문지	103
부록 2. 직장에서의 식사양식과 식습관 변화의 주요 문항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의 교차표	119

<표 차례>

<표 3-1> 분석 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양식과 식습관 요인	12
<표 3-2>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과 세부 항목	13
<표 3-3>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7
<표 3-4> 조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19
<표 3-5>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사업장 특성	20
<표 3-6>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형태의 특성	21
<표 3-7>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일의 특성: 속도와 정시성	21
<표 3-8> 일의 속도와 정시성에 따른 근무특성	23
<표 3-9> 근무 중 식사 빈도	24
<표 3-10> 근무 중 식사시간	24
<표 3-11> 근무 중 식사장소	25
<표 3-12> 직장식사 동반자	26
<표 3-13> 직장인의 점심식사 동반자(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26
<표 3-14> 직장식사장소와 동반자	27
<표 3-15> 직장식사의 시간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28
<표 3-16> 직장식사의 시간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29
<표 3-17> 직장에 별도의 휴게공간 구비 여부	29
<표 3-18> 휴게 식사의 시간규정 여부와 준수	30
<표 3-19> 휴게실 유무와 식사시간 규정 및 준수	31
<표 3-20> 직장식사시간에 대한 평가와 식사시간	32
<표 3-21>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직장식사시간	32
<표 3-22> 식사양식별 식사시간	33
<표 3-23> 사업장 유형별 식사시간	35
<표 3-24> 근무특성 요인별 식사시간	36
<표 3-25> 직장의 식사빈도별 식사시간	36

<표 3-26> 끼니별 평소 식사의 동반형태 : 직장인 전체와 아르바이트생	39
<표 3-27> 식사양식 요인별 직장 혼밥율	41
<표 3-28> 근무특성별 혼밥율	42
<표 3-29> 직장 혼밥과 평소의 끼니별 혼밥의 상관성	43
<표 3-30> 결식률(전체)	44
<표 3-31> 시간별 근무형태별 끼니별 결식률	45
<표 3-32> 근무시간별 근무형태, 연령, 1인 가구의 끼니별 결식률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47
<표 3-33> 직장에서 식사 거른 경험과 이유	48
<표 3-34> 근무특성별 결식과 불규칙 식사율	49
<표 3-35> 식품미보장 척도 항목과 점수	51
<표 3-36> 식품보장의 구분	52
<표 3-37> 식품보장/미보장별 결식 상태	52
<표 3-38> 가구 식품미보장과 직장 결식	55
<표 3-39> 식사 메뉴 선택 시 중시하는 속성	57
<표 3-40> 식사메뉴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속성별 식사시간, 결식률 및 불규칙 식사율	58
<표 3-41> 동반자 및 식사장소별 선호 메뉴	59
<표 3-42> 근무특성별 선호 메뉴	60
<표 3-43> 직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	61
<표 3-44> 메뉴별 섭취 빈도	62
<표 3-45> 장식사 메뉴의 요인 분석과 식단	63
<표 3-46>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직장식사 식단	64
<표 3-47> 근무특성별 직장식사 식단	65
<표 3-48> 식사양식별 직장식사 식단	67
<표 3-49> 아르바이트 이후 메뉴별 섭취 증가와 감소	68
<표 3-50>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의 변화	69
<표 3-51> 직장식사양식과 근무형태별 식습관 변화	70

<표 3-52> 식습관 변화에 대한 항목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71
<표 3-53> 먹거리 관련 지식 역량과 실천 역량의 항목별 분포	72
<표 3-5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먹거리 지식능력과 실행능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3
<표 3-55> 식습관 변화에 대한 종합적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75
<표 3-56> 한 달 동안 음주량과 흡연여부	77
<표 3-57>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음주와 흡연	78
<표 3-58> 아르바이트 근무가 비만과 영양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79
<표 3-59> 비만과 영양불균형에 대한 식습관 항목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80
<표 3-60> 아르바이트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81
<표 3-61> 근무특성 요인별 건강 악화	81
<표 3-62> 식사양식별 건강 변화	82
<표 3-63> 건강 악화에 대한 근무특성 요인, 식생활 요인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5
<표 3-64>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87
<표 3-65>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특성	88
<표 3-66>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양식	89
<표 3-67>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음식 메뉴, 식습관 및 건강 변화 비교	90

[그림 차례]

[그림 1-1] 한국인의 밥상 양극화 현상 (서울신문, 2015.1.27.)	1
[그림 1-2] 연구추진 흐름도	2
[그림 2-1]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 분석 모델	10
[그림 3-1] 빈도별, 끼니별 혼밥율	38
[그림 3-2]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식품미보장율	53
[그림 3-3] 근무특성 요인별 식품미보장율	54

<부록 2. 표 차례>

<문 23.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 빈도 I>	119
<문 23.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 빈도 II>	120
<문 25-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주 식사 장소 I>	121
<문 25-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주 식사 장소 II>	121
<문 25-2.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 식사 장소 I>	121
<문 25-2.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 식사 장소 II>	121
<문 26-1. 일터에서 식사 제공 여부와 방식 I>	125
<문 26-1. 일터에서 식사 제공 여부와 방식 II>	126
<문 27. 일터에서 평균 식사시간 I>	127
<문 27. 일터에서 평균 식사시간 II>	128
<문 28. 일하는 중 식사 시간 충분 정도 I>	129
<문 28. 일하는 중 식사 시간 충분 정도 II>	130
<문 29. 직장에서 식사 동반자 I>	131
<문 29. 직장에서 식사 동반자 II>	132
<문 30-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첫 번째 고려사항 I>	133
<문 30-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첫 번째 고려사항 II>	134
<문 30-2.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두 번째 고려사항 I>	135
<문 30-2.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두 번째 고려사항 II>	136
<문 33-1.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거른 경험 I>	137
<문 33-1.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거른 경험 II>	138
<문 33-2.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제 때 못한 경험 I>	139
<문 33-2.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제 때 못한 경험 II>	140
<문 36-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I>	140
<문 36-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II>	140
<문 36-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김밥 I>	140

<문 36-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김밥 II>	140
<문 36-3.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과일 I>	140
<문 36-3.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과일 II>	146
<문 36-7.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밥 I>	146
<문 36-7.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밥 II>	146
<문 36-8.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패스트푸드 I>	146
<문 36-8.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패스트푸드 II>	146
<문 36-9.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야채 및 샐러드 I>	146
<문 36-9.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야채 및 샐러드 II>	146
<문 38-1.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I>	146
<문 38-1.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II>	146
<문 38-2.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를 더 먹음 I>	146
<문 38-2.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를 더 먹음 II>	146
<문 38-3.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I>	146
<문 38-3.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II>	146
<문 38-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I>	146
<문 38-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II>	146
<문 38-5.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를 더 빨리함 I>	146
<문 38-5.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를 더 빨리함 II>	146
<문 38-6.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더 불규칙 I>	146
<문 38-6.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더 불규칙 II>	146
<문 38-7.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I>	146
<문 38-7.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II>	146
<문 38-8.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손수 털 차려먹음 I>	146
<문 38-8.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손수 털 차려먹음 II>	146
<문 41-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음주횟수나 양 I>	169
<문 41-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음주횟수나 양 II>	170

<문 41-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흡연횟수나 양 I >	171
<문 41-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흡연횟수나 양 II >	172
<문 55.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I >	173
<문 55.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II >	174

1. 서론

이 연구는 2016년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시민시장실에서 “여러분의 일과 식생활은 어떻습니까”라는 주제의 대답을 마련하고, 정책박람회에 참여한 청·장년층의 일과 식생활에 있어 유기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먹거리의 접근성(양적 측면)과 적절성(질적 측면)은 소득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접근성 측면에서 결식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이어트 등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식을 하지만, 저소득층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이다. 단순한 결식을 차이보다도 “왜 굶는가?”를 살펴 봐야 한국의 먹거리 불평등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절성 측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 만큼 더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웰빙 디바이드(wellbeing divide)’ 현상(날씬한 부자와 뚱뚱한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1] 한국인의 밥상 양극화 현상 (서울신문, 2015.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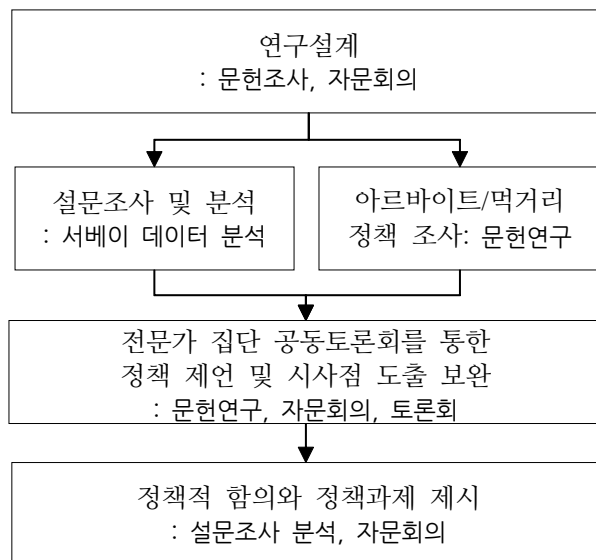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먹거리 양극화 현상은 소득의 근간이 되는 임금노동의 조건(임금과 노동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개인의 직

급, 성별, 가정환경, 조직의 분위기 등의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일과 식생활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노동과 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단기근로자·초단기근로자, 1인 가구 등)의 일과 식생활에 주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각 개인의 일상생활과 개인적 사유 등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일과 식생활에 대한 관계를 밝혀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한다. 먼저 2장에서는 먼저 2장에서는 일과 식생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아르바이트 노동과 식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한다. 3장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한 특징 등을 정리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통계청 지역 고용조사에서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의 직종과 업종별 구성과 아르바이트 광고에서 청년을 선호하는 직종을 참고하여 할당표집을 하여 총 250개의 유효표본을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취약계층 청년 아르바이트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서울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1-2] 연구추진 흐름도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사회에서 식사양식과 노동의 연관성 찾기

1) 한국사회 식사양식의 현대적 변용

사회적 양식으로서의 “식사양식”은 크게 보아 어떻게 먹는가와 무엇을 먹는가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어떻게 먹는가의 사회적 규칙에는 식사 빈도와 지속 시간, 장소, 동반자를 포함하며, 무엇을 먹는가는 먹는 대상 즉 음식 메뉴를 가리킨다. 전자가 식사양식의 형식이라면 후자는 그 내용이다.

식사양식의 사회성은 특정 사회적 조건에 상응하여 유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사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사회의 노동의 형태와 연관지어 보기로 한다. 사회마다 존재하는 특유의 사회적 노동의 양식은 사회적 활동의 근간을 형성하며, 사회적 활동의 리듬과 영역을 규정한다. 특정 노동양식은 생산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재생산을 위한 가족과 휴식 활동의 영역과 리듬을 규정하며 이 과정에서 먹기의 주기와 리듬이 형성된다. 노동시간과 빠르기 등의 시간성과 일하는 장소의 공간성, 다른 노동자와의 협력 등의 관계성, 나아가 가족과의 분화와 제도적 인접성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가의 식사 형식과 무엇을 먹는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식사양식은 일정 부분 노동양식의 산물이다.

초기 산업사회에서 식사양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음식역사가 로텐버그(Rotenberg)에 따르면, 식사양식의 변화는 작업장에서 이전과 다르게 일이 조직화됨으로써 나타난 재조직화의 결과이다(Rotenberg, 1981). 과거에 가족생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식사는 점차 덜 중요해지는데, 이 사례는 식사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산업화와 자본주의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산업화 이전 상업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던 가정에서의 아침과 저녁식사, 동료와 일터에서의 점심식사, 식사 사이에 두 차례 간식이라는 다섯 끼가 산업화 과정에서 세 끼로 대체된다. 주중에 일상적으로 친구나 학교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던 활동으로서의 식사가 주말에 벌어지는 이벤트가 되면서 일상의 인간 관계가 점차 사라진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먹기 패턴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비엔나의 일상생활이 테일러리즘이라는 과학적 관리에 따른 산업적 재조직화로부터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전과 오후 간식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점심식사도 짧은 휴식을 이용하여 작업장 책상이나 의자에서 이루어진다(Holm, 2013: 327-330).

초기 산업화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집과 일터의 공간적 분리가 식사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후기 산업화 사회에 이르러 바깥에서의 식사가 본격화되고, 대표적인 공동체적 식사인 가족식사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상황에 직면한다. 공동체적 식사를 상징하는 가족식사의 변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다(Populain, 2002). 첫째, 먹거리 생산 및 유통의 상업화이다.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화된 먹거리가 제공됨으로써 가족식사를 대체한다. 먹거리의 대량 생산과 상대적으로 식품가격이 저렴해짐으로써 가족 바깥에서 식사가 경제적 효용성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맛과 분위기의 추구도 바깥에서 식사를 부추기는 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시간 리듬의 변화이다. 산업화 초기에 정연하게 이루어졌던 시간의 “표준화된 구획화”가 후기 산업화 단계로 들어오면서 보다 유연해지면서 기존 생활 리듬의 변화가 점차 뚜렷해진다. 노동시간이 24시간 밤낮으로 확장되고, 아침에서 늦은 오후까지 일하는 일괄적 방식에서 노동시간이 제각각인 일들이 많아지면서 비정형화된 노동 형태가 점차 증가한다. 셋째, 여성 역할의 변화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특히 한부모 가구와 단독 가구의 증가로 가족 내에서 식사 준비를 전담해 왔던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족 역할이 바뀌었다. 마지막 요인은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분화의 증대이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참살이 먹거리의 추구,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선호, 청년층의 퓨전 먹거리 취향과 같이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서 다양한 먹거리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확대되었는데 집단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욕구는 더 이상 기존의 가족식사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이처럼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결국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식사양식의 변화는 나라마다 공통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특수성도 존재한다. 21세기에 들어와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식사양식의 급격한 재편에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식사양식의 변화를 서구국가와 비교에 주목하여 정리해 보자(김선업 외, 2016).

첫째, 전체 식사에서 가족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구사회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Warde et al., 2007) 가족식사의 감소 수준이 매우 크다. 우리사회의 가족식사 참여율은 서구국가에 비해서 특히 낮으며, 전체 식

사에서 가족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족식사 참여율은 서구사회에 비해서 20~25%p 정도 낮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식사시간은 미국과는 비슷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식사의 참여율과 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양상은 한편으로 식사의 형식적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가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가족식사가 가족 성원들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의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때, 가족식사의 약화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대표적 기제를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가족식사의 빈도와 시간 감소를 가족 기능의 약화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일 전통적인 가족식사 양식의 공간적 혹은 시간적 분리에 직면하여 가족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식사양식이 존재한다면, 먹기의 형식적 변화만을 근거로 하는 가족의 탈공동체 명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식사의 외재화이다. 가족 이외 사람과의 식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사회의 외식율은 서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 또한 높다. 서구사회에서 외식 증가는 가족과의 식사 참여의 큰 감소 없이 적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사회의 외식은 가족식사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외식 시간의 경우 한국의 자료에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지만 가족 이외 식사와 간식과 음료 시간의 합으로 추정해 볼 때 (2004년 42분, 2009년 50분), 서구사회에 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식사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외 사람과의 식사 및 음료 시간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식사양식에서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양상은 전체 식사시간의 증가이다. 21세기 들어 전체 식사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시간으로 볼 때 한국의 식사와 음료 시간은 프랑스보다는 적지만 다른 서구 국가보다는 길다. 이는 가족 이외 사람과의 식사 그리고 간식과 음료 시간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가족 바깥에서 외식 증가에 따른 전체 식사 및 음료 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전반적 개인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교류 기회를 뜻하는 식사의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과 관계 형성에 식사와 같은 일정 수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양식이 식사 영역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근거로 일

단 해석해 볼 수 있다.

2) 노동의 관점에서 본 식사양식

그렇다면 위에서 지적한 변화들은 노동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석의 의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노동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조직화 양식이 분화됨에 따라서 식사양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의 다양한 분화 형태로 식사양식 또한 정형화된 방식에서 이탈된 여러 양식이 나타날 것이며, 식사양식은 특정 노동 환경에 대한 적응 양식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의 예를 살펴보자.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계약직, 초단시간 노동 등 다기한 고용형태를 비롯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전형적인 작업시간에서 벗어나 야간노동이나 시간외 고용 등 낮 시간 노동 이외의 비전형적 노동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적이고 비전형적 노동이 식사양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면 다음의 결과들을 예견할 수 있다. 정규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한 노동들은 복지적 지원과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데, 여기에는 먹거리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열악한 처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식사시간이나 공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다. 노동현장에서 먹거리에 대한 취약한 보장 상황은 노동에 대한 차별 이전에 존재했던 가정 식탁의 불안정성과 가중하여 짧은 식사시간, 빈번한 결식과 불규칙 식사, 간편식 위주의 식사와 같은 불안정한 식사양식을 낳는다.

둘째, 사회적 활동으로서 직장에서 식사가 지니는 의의는 약화되기 보다는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식사의 외재화의 배경에는 개인 차원의 외식의 증가와 함께 급식, 회식, 단체 식사와 같은 집단 차원의 식사가 보편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외식은 대부분 직장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직장인에게 직장에서의 점심식사는 단순히 일 중에 식사를 하고 영양을 취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활동과 교류의 중요한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됨으로써 직장식사가 점심 이외에도 두 끼까지 확장되는데 직장에서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동반자와 함께 한다. 또한 특유의 직장 문화로 직장 동료와 직장 바깥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직장일과 관련한 외부 사람과의 접촉과 교류가 식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직장식사는 사회활동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조직문화를 공유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직장식사로부터의 배제나 소외는 조직에 대한 참여와 정체성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비의도적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가족식사 못지않게 일터에서의 식사는 건강과 영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이루어지는 아침식사의 결식률은 매우 높다. 간단한 요기에 그치거나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의 점심식사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적 기회이며, 대부분 직장에서 별도의 점심시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빠뜨리지 않는다. 참여도가 높은 직장식사는 일정 시간 반복될 때, 가정에서의 식사와 독립적으로 특유의 식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장식사의 빈번한 식사는 가정에서의 식사 못지않게 건강과 영양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직장에서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홀한 가족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직장에서의 식사가 불안정하고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영양의 결핍이나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양자 간 관계는 특정한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다. 예상되는 부정적 상호작용은 불안정한 가족식사와 역시 불안정한 직장식사가 결합한 경우로써, 이때 두 개의 불안정한 식사는 상호작용하면서 건강과 영양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과 식사양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식생활 문제가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식생활 문제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어 온 어린이, 고령자,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름의 복지적 대응이 이루어져 왔지만, 노동자의 식생활 문제는 작업장 바깥의 문제로 간주하거나 먹거리가 노동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주요 논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

오늘날 일상화되고 있는 고용과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식생활 안정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를 비롯하여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더불어 “낮은 먹거리 독해능력(food illiteracy)”으로 먹거리 보장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생활 중심적 복지의 맥락에서 먹거리 문제는 노동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의 관점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의 식사양식 실태를 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동 특성이 먹는 양식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같은 제약들이 식생활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다.

2. 아르바이트 노동과 식생활

이제 논의의 초점을 아르바이트 노동에 집중해 보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아르바이트생이 직면한 노동 여건이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구를 의미한다. 이때 아르바이트 노동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 일의 특성이 식생활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 효과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유발한 효과를 포함한다.

첫 번째 접근에서는 일차적으로 정규 노동과 구분되는 초단시간제 노동이 직면한 특수하고도 열악한 노동환경이 식생활에 미치는 특유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 중 식사시간이나 장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식사 자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는 부적합한 식사(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 매장에서 팔다 남은 음식을 식사로 대신 제공하는 일 등)로 인한 식생활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부적절하고 안정되지 못한 식사양식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압박, 일의 불안정성, 제도적 보장의 결여와 같은 불리한 노동환경과 관련이 있다.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시간과 관련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한 노동자의 식생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Nyberg and Olsen, 2010; Raulio, Roos and Prättäl, 2010; Lowden et al., 2010). 이들 연구들은 야간 노동자, 교대 근무자, 배달 노동자, 운전사, 간호사, 패스트푸드 매장 판매원 등 시간적 압력이 큰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정상적 식습관과 식생활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¹⁾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식생활은 결국 건강의 문제를 가져오는데 식사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거나 혹은 매개적이다. 건강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결핍이나 영양불균형을 낳음으로써 비만을 비롯한 여러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과 식사의 매개적 효

1)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 노동자의 식생활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드물다. 패스트푸드 종사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대상의 일부 연구들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업종과 연령이 제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근무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식습관이 내용이 일부 메뉴나 식사횟수에 국한되어 있다(김지명·강복희, 2014; 이승림·김수진, 2013; 조미양·한태선, 2014; 임지숙·허영란·정은·이재준, 2016).

과는 스트레스를 비롯한 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징후와 건강 사이에 위치한다. 시간적 압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과식을 하거나 약물에 의존함으로써 건강과 영양에 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²⁾

두 번째의 포괄적 접근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외적 조건이 식생활에 미치는 보다 포괄적 효과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노동이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는 복합적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특정 노동 상황과 결합하여 식생활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하는 노동자 가구의 식량보장/미보장 상황과 노동환경 요인이 결합하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아르바이트생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열악한 식사양식을 수용한다. 또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식생활의 불안정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외적 조건은 식생활이나 식품안전성에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동시에 지님으로써 보다 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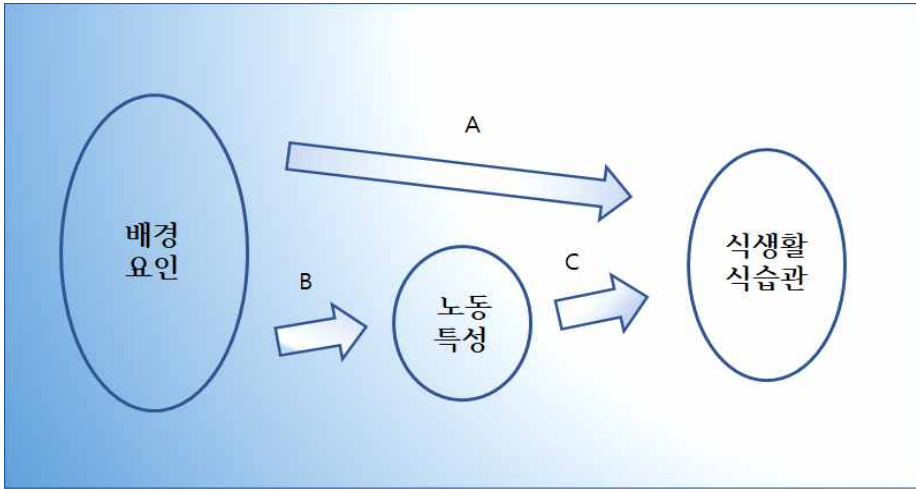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이다. 전자의 접근을 통해서 노동환경이 식생활이나 건강에 미치는 기제나 인과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후자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노동과 식생활의 관계에 작용하는 조절적 요인이나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양자 간 관련성을 보다 특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아르바이트생의 둘러싼 외적 조건이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노동특성이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외적 배경 요인이 노동특성에 미치는 효과, 둘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외적 배경 요인이 식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셋째, 아르바이트생의 노동특성이 식생활 및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라는 세 가지 효과들이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1]은 위의 분석 과제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에서 A는 아르바이트생의 외적 배경요인이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경로를 나타낸 것이며, B는 배경요인이 노동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C는 노동특성이 식생활에 미치는 경로를 각각 표시한 것이다.

2)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식생활의 효과는 건강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유의 식사양식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효과를 낳는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식사의 동반 형태와 장소에 주목하여 조직에서 배제와 포섭의 문화가 형성과 유지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일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자산의 영역을 방어하는가 하면,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림 2-1]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 분석 모델



Ⅲ. 청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및 식생활 실태 분석

1. 실태조사의 분석 주제와 자료

1) 분석 주제와 항목

아르바이트생이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 주제와 관련 요인 및 항목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

첫째, 아르바이트생 식생활의 일반적 특징을 기술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식사를 중심으로 식사양식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고, 양자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식사양식의 형식은 식사의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식사시간, 식사 빈도 및 결식, 식사의 규칙성, 동반자, 식사장소, 식사 제공 방식의 항목을 포함한다. 무엇을 먹는가의 식사양식의 내용에는 음식 메뉴에 대한 선호와 메뉴별 섭취빈도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타 식생활 관련 요인에는 가구의 식생활 형편, 식습관 요인이

둘째,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 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평가한다. 청년 세대, 1인 가구, 경제적 취약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생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안정한 식사양식의 형태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식생활의 특징을 설명한다. “결식과 불규칙 식사”, “짧은 식사시간”, “혼밥”, “식품미보장(불안정성)”, “편의성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의 주제별로 아르바이트 식생활의 특징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평가한다.

셋째,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양식 및 식생활에 대한 설명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집단별로 식사양식을 비교하고 원인을 설명한다. 설명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 그리고 평소의 식생활 관련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항목별로 식사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 연령, 혼인상태, 세대형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등을 포함하며, 근무특성 요인에는 근무시간, 근무경력, 근무형태, 하는 일의 특성 등으로 구성한다. 요인별 항목과 세부 범주는 <표 3-2>와 같다.

넷째,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를 분석한다. 아르바이트 생활 이후, 식습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음식 메뉴를 비롯하여 식사양식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다섯째, 식생활이 아르바이트생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특성 요인, 생활습관 요인을 포함하여 식습관과 식사양식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아르바이트생의 내부 분화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특성과 식생활 양상을 비교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특성의 분화 양상을 비교하고 나아가 식생활 양상을 비교한다.

<표 3-1> 분석 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양식과 식습관 요인

구분 및 영역	항목	설명 및 범주
식사양식의 형 식	식사시간	직장식사의 평균 시간
	식사 동반자	직장식사와 평상시 식사 동반자: 혼자/여럿이 함께
	식사장소	직장 내 식당/직장 인근 식당/휴게시설/일하는 장소/편의점
	식사 제공 방식	직장식사 제공 방식
	식사시간 규정	직장의 식사시간 규정과 준수 여부
	식사빈도와 결식	직장식사 빈도와 결식률, 평소 식사 빈도와 결식률
	불규칙 식사	불규칙한 직장식사 경험률
식사양식의 내 용	선호 속성	메뉴 선택 시 고려하는 속성
	자주 먹는 메뉴	직장식사에서 자주 먹는 메뉴
	메뉴별 섭취 빈도	10개 메뉴별 섭취 빈도
	메뉴별 섭취 빈도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10개 메뉴별 섭취 빈도 변화
식습관 및 식생활 요인	식품미보장/보장	가구차원의 식품미보장 척도 10문항
	식습관	식습관의 변화 척도
	먹거리 해독 능력 (food literacy)	먹거리 인지역량과 실천역량

구분 및 영역	항목	설명 및 범주
건강 및 생활습관 요인	아르바이트 이후 건강 변화	건강 변화: 좋아짐/나빠짐/변화 없음
	음주, 흡연, 수면	음주, 흡연, 수면의 양 변화

<표 3-2>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과 세부 항목

요인	항목	범주
인구사회학 요인	성	남성/여성
	연령	20대 초반/20대 후반/30대
	세대형태	1인 가구/부부가구/부모와 동거/기타 가구
	혼인상태	기혼/미혼
	교육수준	고졸/대학 재학, 휴학/대학원 이상
	가구수입	가구의 월평균 수입
근무특성 요인	주급	일주일 주급
	사업장 규모	종사자 수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프랜차이즈 직영점/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무경력	아르바이트 근무 년 수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형태	교대근무 여부/야간 근무 여부/주말근무 여부/ 시간 외 근무 여부
	일의 빠르기	하는 일의 빠르기 수준: 빠름/중간/느림
일의 정시성	하는 일의 시간 준수성 수준: 높음/중간/낮음	

이상의 분석 주제를 아래와 같은 주제로 정리하여 순서대로 기술한다.

주제 1.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별로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특성을 기

술한다.

주제 2.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 : 일반적 특징

-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하는 식사양식과 관련한 기본 특징을 정리한다. 1) 식사 빈도와 식사시간, 2) 식사 장소, 3) 같이 먹는 동반형태, 4) 식사시간 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5) 휴게 관련 환경과 휴게관련 규정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의 문제점을 평가한다.

주제 3. 식사시간은 충분한가?

- 일터에서의 식사시간에 대한 분석으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별로 식사시간의 실태를 분석하여, 식사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식사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한다.

주제 4. 아르바이트생의 혼밥

- 혼밥을 둘러싼 시각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혼밥의 특성을 분석한다. 직장 혼밥과 함께 평소 끼니별 혼밥 실태를 비교하고, 직장 혼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의 혼밥의 성격을 규정한다.

주제 5.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 하루와 일주일 동안의 결식 실태를 끼니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직장식사에서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주제 6.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

- 식품미보장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제적 차원의 식품불안정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 실태를 기술하고, 아르바이트생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다. 나아가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과 직장식사의 불안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미보장 상태가 직장식사에 지니는 의의를 밝힌다.

주제 7. 아르바이트생은 일터에서 무엇을 먹는가?

- 직장식사에서 먹는 메뉴에 대한 분석으로 선호하는 메뉴의 속성, 평소 직장식

사에서 자주 먹는 메뉴의 특성을 기술한 다음, 자주 먹는 메뉴의 유형으로 메뉴의 식단 유형을 발견한다. 선호 메뉴의 속성과 식단이 식사양식의 형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아르바이트 집단에 따른 식단의 차이를 분석한다.

주제 8. 아르바이트 이후 식생활의 변화

- 아르바이트 이후 식생활의 변화를 메뉴별 섭취 빈도와 전반적인 식습관을 통해서 평가하고, 식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나아가 먹거리 관련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이 식습관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주제 9. 아르바이트생의 생활 습관, 식습관 및 건강

- 아르바이트생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를 포함하여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주제 10.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식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특성 요인, 식사양식과 식생활을 비교한다.

2)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20대와 3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25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조사는 2017년 9월~1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청년 아르바이트의 노동과 식생활 실태 분석

1)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연령, 혼인상태, 세대형태, 교육수준, 거주형태 및 소득수준별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표 3-3> 참조), 성별분포에는 차이가 없으며(남성 50.8%, 여성 49.2%), 연령은 20~39세³⁾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20대 후반(25~29세)이 39.6%, 30대 38.4%, 20대 초반(20세~24세)이 22.0%이며, 평균 연령은 28.6세이다. 또한 성별 평균 연령은 남성 28.6세, 여성 28.5세로 거의 비슷하다.

세대 형태별로는 1인 가구가 20%, 부부 및 그들 자녀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16.4%, 부모 혹은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동거가족이 54.0%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혼이 83.5%로 기혼자보다 월등하게 많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이하가 20% 정도이며, 대학재학이나 휴학 중이 24.0%이며, 대졸 이상이 57.2%로 비교적 높은 학력임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월 소득은 3,748,440원이며, 가구당 평균소득은 1인 가구 1,313,000원, 2인 가구 3,152,174원, 3인 가구 4,318,519, 4인 이상 가구 4,678,750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아 전체 근로자 소득평균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⁴⁾ 거주형태로는 자가 44.8%, 전세 32.0%, 반전세 16.0%, 기타 7.2%로 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절반을 넘는다.

3) 서울시는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16.3.30)을 통해 청년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의 통계청 기준(15세 이상 29세 이하)보다 더 넓게 규정하여 만 19세에서 39세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 지원정책 대상 역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조사대상 연령을 만 19~39세로 정하였다.

4) 통계청 발표 2017년도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4,507,805원이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 2,292,638원, 2인 가구 3,838,199원, 3인 가구 5,158,011원, 4인 가구 5,962,619원이다. 201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은 3,768,077원이며, 가구별 소득 평균은 3,768,077원, 1인 가구 2,424,462원, 2인 가구 3,732,354원, 3인 가구 4,329,384원, 4인 가구 5,630,275원이다

<표 3-3>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범주	비율 (사례 수)	비고	
성	남	50.8(127)		
	여	49.2(123)		
연령	20대 초반	22.0(55)	평균연령 28.6세((남자 28.6세, 여자 28.5세))	
	20대 후반	39.6(99)		
	30대	38.4(96)		
세대형태	1인 가구	20.0(50)	평균 연령	
	부부가족	16.4(41)		28.3세
	부모와 동거	54.0(135)		35.4세
	기타	9.6(24)		27.0세
혼인상태	미혼	83.5(207)		
	기혼	16.5(41)		
	기타	0.8(2)		
교육수준	고졸이하	18.8(47)		
	대학 재학.휴학	24.0(60)		
	대졸 이상	57.2(143)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4(46)	평균 3,748,440원, 1인 가구 1,313,000원, 2인 가구 3,152,174원, 3인 가구 4,318,519원, 4인 이상 4,678,750원	
	200만원~400만원 미만	31.2(78)		
	400만원~500만원 미만	23.2(58)		
	500만원 이상	27.2%(68)		
거주형태	자가	44.8(112)		
	전세	32.0(80)		
	반전세	16.0(40)		
	월세	5.6(14)		
	고시원	1.6(4)		
	계	100.0(250)		

(2) 근무특성 요인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경력, 근무시간, 주급 및 시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4> 참조). 먼저 근무경력으로는 2년 미만이 거의 반 정도(46.8%)이며,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25.2%, 3년 이상이 28.0%이다. 근무경력 평균은 2.20년(표준편차 1.46년, 중앙값 2.00년)이다.

성, 연령, 세대형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근무시간의 차이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에서 근무경력이 길다(기혼 3.11년, 미혼 2.03년).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에서(고졸이하 2.84년, 대학재학 휴학 1.77년, 대졸 이상 2.2년), 가구소득이 낮은 층에서(200만원 미만 2.48년,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2년,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9년, 500만원 이상 1.89년)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길다. 세대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근무기간이 가장 길지만, 1인가구의 근무경력은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보다 길다(단독가구 2.56년, 부부가구 3.11년, 부모와 동거 1.84년).

근무시간별 분포로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 14.4%, 15시간~35시간 이하 55.6%, 36시간 이상 30.0%이며, 평균 근무시간은 29.3시간이다. 성, 연령, 세대형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근무시간의 특징으로는 성과 연령별 근무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교육수준, 세대유형, 가구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고졸이하 33.5시간, 대학재학 휴학 29.6시간, 대졸 이상 28.9시간), 세대형태별로는 1인 가구(1인 가구 33.5시간, 부부가구 27.3시간, 부모와 동거 28.0시간, 기타 31.3시간), 가구소득에서는 월수입 20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다.

근무경력과 근무기간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나타난 공통점으로 교육수준이 고졸이하,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1인 가구에서 근무경력이 오래되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한편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개수로는 대부분 하나이며 2개 이상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4%이다.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주일 주급은 15만원 미만이 18.0%,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 25.6%, 2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33.6%, 30만원 이상이 22.7%이며, 전체의 평균 주급은 229,425원, 중앙값은 210,000원이다. 시급은 6,500원 이하가 21.6%, 6,500원~7,000원 이하 26.8%, 7,000원~8,000원 이하 26.4%, 8,000원 이상 24.2%이며, 법정 최저임금(6,460원) 미만은 8.0%이다. 평균 시급은 7,133원이고 중앙값은 7,250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동기에 따라서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분류하면, 전체 응답자 중 생계형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34.8%, 비생계형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65.2%으로 본 연구대상 집단에서 비생계형은 생계형의 거의 2배 정도이다.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형편에서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을 비생계형 아르

바이트생“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비교를 포함하여 두 집단의 식사 양식의 비교는 이후 별도의 절에서 다루어진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아르바이트 관련 특성

항목	범주	비율 % (사례 수)	비고
근무경력	1년 미만	12.8(32)	평균 근무경력 2.22년 (표준편차 1.45년)
	1년 이상~2년 미만	34.0(84)	
	2년 이상 ~3년 미만	26.2(65)	
	3년 이상	28.0(69)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14.4(36)	평균 근무시간 29.3시간 (표준편차 10.3시간)
	16시간~35시간 이하	55.6(139)	
	36시간 이상	30.0(75)	
아르바이트 개수	1개	96.0(240)	
	2개 이상	4.0(10)	
주급	15만원 미만	18.0(45)	평균 주급 229,425원 (중앙값 210,000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	25.6(64)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3.6(84)	
	30만원 이상	22.8(57)	
시급	6,500원 이하	21.6(54)	평균 시급 8,133원 (중앙값 7,250원)
	6,500원~7,000원 이하	26.8(67)	
	7,000원~8,000원 이하	26.4(66)	
	8,000원 이상	25.2(63)	
생계형 여부	생계형	34.8(87)	
	비생계형	65.2(163)	
계		100.0 (250)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특성을 규모별, 사업자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표 3-5>참조), 규모별로는 1~2명 24.8%, 3~4명 35.2%, 5~9명 26.8%, 10명 이상 13.2%로 5인 미만과 5인 이상 비율이 6:4 정도이다. 알려진 바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는 일반 근무자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사업자별로는 개인사업장이 70%를 넘고 있으며(71.4%), 프랜차이즈 가맹점(19.4%, 프랜차이즈 직영점(9.3%)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고(27.6%) 다음으로 교육서비스(26.0%), 도소매업(26.0%)의 순이다.

<표 3-5>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사업장 특성

항목	범주	비율(사례 수)
사업장 규모	1~2명	24.8(50)
	3~4명	35.2(67)
	5~9명	26.8(59)
	10명 이상	13.2(63)
사업자별	개인사업장	71.4(143)
	프랜차이즈(직영점)	9.3(21)
	프랜차이즈(가맹점)	19.4(39)
업종별	숙박	5.2(13)
	음식업	27.6(69)
	교육서비스	26.0(65)
	도소매업	21.2(53)
	예술_스포츠_여가관련 서비스	8.8(22)
	협회_단체수리_기타 개인서비스	6.4(16)
	보건업_사회복지 서비스업	3.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6(4)
계		100.0(250)

이제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의 시간별 근무형태를 살펴보자(<표 3-6> 참조). 조사대상자의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계약시간외 근무의 네 가지 근무형태별 분포로는 교대근무 39.6%, 야간근무 14.0%, 휴일근무 42.0%, 계약시간외 근무 24.8%로, 아르바이트생의 4할이 조금 넘는 비율이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의 비율도 이에 근접하고 있다. 네 가지 근무시간별 근무형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과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세대형태와 경제적 형편에서 일부 근무형태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대형태별로 1인 가구의 휴일근무 비율이 다른 세대형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휴일근무 비율: 1인 가구 72.0%, 부부가구 36.6%, 부모와 동거 34.8%, 기타 가구 29.2%), 가구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생의 67.4%가 휴일에 근무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휴일 아르바이트에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비교하면, 휴일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일하고 있지만, 계약시간 이외의 근무자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지

않다. 계약시간 이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이 더 길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원해서 시간 외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시간 이외에 일을 연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6〉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형태의 특성

항목	범주	비율 %	1인 가구의 비율, %	생계형 아르바이 트 비율,%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 %	주당 근무 시간, 시간
교대근무	근무함	39.6	30.0	26.3	32.6	30.6
	근무안함	60.4	60.0	40.4	67.4	27.4
야간근무	근무함	14.0	22.0	60.0	19.6	29.1
	근무안함	86.0	78.0	30.7	80.4	29.3
휴일근무	근무함	42.0	72.0	47.6	67.4	31.4
	근무안함	58.0	28.0	25.5	32.6	27.9
시간 외 근무	근무함	24.8	14.0	38.7	17.4	27.0
	근무안함	75.2	86.0	33.5	82.6	30.1

일의 속도와 일의 정시성에 빠른 일의 특성으로는(〈표 3-7〉 참조), 일의 속도에서 전체 일에서 빠른 속도의 일이 3/4이상인 빠른 속도의 일이 29.2%, 빠른 속도의 일이 반 정도인 중간 속도의 일이 35.2%, 빠른 속도의 일이 1/4이하인 속도가 느린 일이 35.6%이다. 얼마나 시간에 맞춰 일을 엄격하게 하는가의 일의 적시성별로는 시간에 엄격하게 맞춰하는 일이 전체 3/4이상인 적시성 높은 일이 35.2%, 절반 정도인 적시성이 중간인 일이 38.4%, 적시성이 낮은 일이 26.4%로 일의 속도에 비해서 시간에 맞추어 일하는 정시성의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일의 특성: 속도와 정시성

항목	범주	비율 &
일의 속도	빠름(빠른 속도의 일이 전체 3/4이상)	29.2
	중간(빠른 속도의 일이 전체 반 정도)	35.2
	느림(빠른 속도의 일이 전체 1/4이하)	35.6

항목	범주	비율 &
일의 적시성	높음(시간 맞춰 하는 일이 전체 3/4이상)	35.2
	중간(시간 맞춰 하는 일이 전체 반 정도)	38.4
	낮음(시간 맞춰하는 일이 전체 1/4이하)	26.4
계		100.0(250)

일의 속도와 적시성에 따라서 근무경력, 근무시간, 사업장 특성, 근무시간별 근무형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표 3-8> 참조). 먼저 근무경력 과 근무시간에 따라 하는 일의 속도와 적시성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근무경력에서 는 일의 속도가 빠르고, 일의 적시성이 높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일을 하는가의 근무시간에서 일의 속도와 일의 적시성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종업원 규모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사업장 유형별로는 일의 속도보다는 일의 정시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비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시성이 높은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일의 정시성 높은 비율: 5인 이상 사업장 48.0%, 5인 미만 사업장 26.7).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일의 속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일의 정시성에서 차이가 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일의 정시성이 높는데 비해서, 개인사업장에서 일의 정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정시성 높은 일의 비율: 프랜차이즈 직영점 65.2%, 프랜차이즈 가맹점 50.5%, 개인사업장 27.1%).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의 근무시간별로는 일의 빠르기에서 교대근무에서 속도가 빠른 일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야간근무도 빠른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시간외근무에서는 속도가 빠른 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휴일근무도 일의 빠르기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일의 정시성에서는 시간외근무는 정시성이 낮은 일의 비율이 높지만,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정시성이 높은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빠른 일은 비교대근무에 비해서 교대근무에서 크게 많으며, 야간근무가 비야간근무에 비해서 약간 많지만, 시간외근무에서는 오히려 일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일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일의 정시성에서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에서 정시성이 높은 일이 다소 많은 반면, 시간외근무에서는 정시성이 높지 않은 일이 많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의 특성은 이후에 분석할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의 하위집단별 특성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표 3-8> 일의 속도와 정시성에 따른 근무특성

항목	범주	근무 시간 (시간)	근무 경력 (년)	5인 이상 비율%	근무시간별 근무형태 %				
					교대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	전체
일의 속도	빠름	29.3	2.5	27.0	45.7	45.7	33.3	12.9	29.2
	중간	27.8	2.1	28.0	31.4	31.4	33.3	48.4	35.2
	느림	30.8	2.1	45.9	22.9	22.9	33.3	36.7	35.6
	계	29.5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의 적시성	높음	29.8	2.3	48.0	24.2	17.1	31.4	8.1	35.2
	중간	27.7	2.4	36.9	46.5	38.1	40.0	40.3	38.4
	낮음	31.0	1.9	16.0	29.4	45.7	28.6	51.6	26.4
	계	20.3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식사양식의 일반적 특징

아래에서는 일터에서의 식사양식의 일반적 특징을 식사빈도와 식사시간, 식사장소와 같이 먹는 동반형태, 식사시간 규정과 식사제공 방식을 중심으로 분포의 특징을 기술한다.

(1) 식사 횟수와 시간

일하는 중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의 식사 회수를 알아본 결과(<표 3-9> 참조), 7할 정도(71.6%)는 적어도 하루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중에 식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 하루에 한번 식사를 하고 있으며(64.8%), 하루 두 번 이상 하는 경우는 6.8%이다.

<표 3-9> 근무 중 식사 빈도

범주	비율 %
하루 세 번	0.4
하루 두 번	6.4
하루 한 번 정도	64.8
2~3일에 한 번	10.0
거의 안함	18.4
계	100.0(250)

아르바이트 중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는 3/4 정도는 일하는 중간에 하고 있으며 (75.0%), 일을 하기 전이나 후에 하는 경우가 21.1%,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3.9%이다.

직장에서 식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식사시간은 39.2분이다(중앙값은 40분). 시간별로는 “30분 미만”이 16.7%, “30분 정도”가 32.8%, “30분~40분 이하”가 16.2%, “40분~1시간이하”가 34.3%로, 전체의 반 정도(49.5%)는 30분 이하의 식사시간을, 1/6정도는 30분 미만의 짧은 식사시간을 쓰고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근무 중 식사시간

범주	비율 %
30분미만	16.7
30분	32.8
30분 ~ 60분미만	20.1
1시간	30.4
계	100.0(204)

평균시간 39.24분(표준편차 15.99, 중앙값 30분)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식사시간을 같은 연령대의 정규직 노동자의 식사시간과 비교해 보면, 약 5분 정도 식사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직장인 전체의 직장에서 점심식사 시간은 본 조사결과보다 4분 길다(통계청, 2015). 같은 자료에서 정규직의 식사시간과 비교하면 하루 전

체 식사시간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식사시간은 1시간 19분, 정규직은 1시간 24분으로 아르바이트의 식사시간이 5분 정도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생활 시간조사에서 식사시간은 실제 먹는 구체적인 식사행동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포함하고, 식사 이후의 휴식시간과 같은 식사관련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식사시간에 비해서 엄격하게 측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사시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별도의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장소와 동반자

근무 중 주로 식사하는 곳으로는 “일하는 장소에서 식사”가 가장 많고(40.7%), “일터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다(38.2%). “일터 내에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거나”(14.7%), “일터 내의 별도 식당을 이용하는”(5.4%) 비율은 20.1%이다(<표 3-11> 참조). 즉 전체의 60%정도가 일터 내에서 식사를 하며, 이중 2/3는 별도 공간이 아닌 일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1/3은 일터 내에 있는 휴게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근무 중 부(副) 식사장소로 일터 주변 편의점이 가장 많아 실제 식사에서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주 식사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편의점 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1> 근무 중 식사장소

범주	주 식사장소 %	부 식사장소 %
일터와 별도의 휴게 공간	14.7	21.8
일하는 장소	40.7	22.4
일터 내 별도 식당	5.4	10.9
일터 주변 식당	38.2	12.9
일터 주변 편의점	1.0	27.2
기타	-	4.8
	100.0(204)	100.0(147)

한편 직장에서 식사 동반자 형태는 “혼자서”가 27.0%, “직장 동료 등과 함께” 먹는 비율이 73.0%로 거의 1/3정도는 혼자 식사하고 있다(<표 3-12> 참조).

<표 3-12> 직장식사 동반자

범주	비율
혼자서	27.0
직장 동료 등과 여러 명이 함께	73.0
계	100.0

본 조사의 동반자 분포를 직장인 전체의 식사 동반형태와 비교해 보면(<표 3-13> 참조), 아르바이트 근무에서 혼자 먹는 비율이 직장인 전체보다 크게 높다. 2014년에 조사한 생활시간 조사결과에서 직장인의 점심시간의 동반자 중 혼자 먹는 비율은, 직장에서 식사하는 경우 11.3%, 직장 이외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6.6%에 그치고 있다. 반면 혼자서와 가족 이외의 사람(대부분 직장동료나 일과 관련된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비율은 각각 87.2%와 91.9%이다. 즉 직장인 전체와 비교할 때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혼자 먹는 비율은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동반자 형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직장에서 혼밥”의 주제에서 다루어진다.

<표 3-13> 직장인의 점심식사 동반자(통계청,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식사장소	혼자	가족	기타	계 %
직장	11.7	1.1	87.2	100.0
식당	6.6	1.5	91.9	100.0

아래의 <표 3-14>는 직장에서 식사동반자와 식사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표인데, 동반형태와 식사장소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을 이용하는 식사에서 동반식사 비율이 높은 반면,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일수록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식사장소와 식사 동반자를 교차하여 식사양식을 유형화해보면, 조사 대상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혼자서 식당 이외의 공간”에서 식사하는 비율은 19.1%, “혼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유형이 7.8%, “여러 명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유형이 35.7%, “여러 명이 함께 식당 이외에서 식사”하는 유형이 3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4> 직장식사장소와 동반자

범주	혼자	여러 명이	범주	혼자	여러 명이	
일터와 별도의 휴게 공간	27.3	10.1	식당	%	29.1	49.0
일하는 장소	40.0	40.9		전체 %	7.8	35.8
일터 내 별도 식당	5.5	5.4	식당 이외 장소	%	70.9	51.0
일터 주변 식당	23.6	43.5		전체 %	19.1	37.3
일터 주변 편의점		-	계	계	100.0	100.0
계 %				전체 %	100.0	100.0

(3) 식사시간 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직장에 별도의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다면 식사시간이 얼마나 지켜지는지의 식사시간의 규정과 준수 여부의 분포로는(<표 3-15> 참조),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30.4%,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일이 있으면 식사대신 일을 하는, 즉 식사시간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27.5%이며, 나머지 전체의 4할 정도(42.2%)는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고 알아서 식사”하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생의 30%는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만, 나머지 70%는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형태이건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64.2%이다. 식사제공 방식은 식사비로 제공받거나(29.9%),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를 제공받는(27.9%) 형태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매장 내 상품이나(2.5%). 그 밖의 형태(3.9%)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표 3-15〉 직장식사의 시간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범주	비율 %	범주	비율 %
식사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식사	30.4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로 제공받는다.	27.9
		식사비를 제공받는다.	29.9
정해져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을 함	27.5	매장 내 상품으로 제공받는다.	2.5
		기타 다른 형태로 식사를 제공받는다	3.9
정해져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	42.2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35.8
		계	100.0

직장에서의 식사시간 규정과 식사제공 방식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식사시간 규정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66.5%), 식사시간을 지키는 비율(47.6%)에서 개인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개인사업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사시간 지정이나 시간을 지키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근무자 수가 1~2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높아(56.0%), 인원 제약으로 별도의 식사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원이 10명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식사시간을 정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근무자 규모 이외에도 사업장의 여러 특성이 식사시간 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사제공 방식도 사업자 유형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사업자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식사비 제공받음 비율: 프랜차이즈 직영점 57.1%, 프랜차이즈 가맹점 12.8%, 개인사업자 30.8%). 또한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종업원 수가 1~2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떨어진다(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비율: 종업원 수 1~2명 43.8%, 3~4명 28.8%, 5~9명 19.2%, 10명 이상 8.2%).

이와 같은 식사시간 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52.5%),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38.6%),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높다(33.3%).

<표 3-16> 직장식사의 시간규정과 식사제공 방식

범주	식사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식사	정해져 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 함	정해져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	계 %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로 제공받는다	28.1	33.3	38.6	100.0
식사비를 제공받는다	52.5	19.7	27.9	100.0
매장 내 상품으로 제공받는다	-	-	-	100.0
기타 다른 형태로 식사를 제공받는다	-	-	-	100.0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13.7	30.1	56.2	100.0
계 %	30.4	27.5	42.2	100.0

- : 사례 수가 적어 비율 산출하지 않음

(4) 휴게관련 환경과 휴게 관련 규정

직장에 설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가 52.0%, 없는 경우가 48.0%로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정도는 설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표 3-17> 참조).

<표 3-17> 직장에 별도의 휴게공간 구비 여부

범주	비율 %(사례 수)
있음	52.0
없음	48.0
계	100.0(250)

사업장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휴게공간 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휴게공간 구비율: 개인사업자 49.7%, 프랜차이즈 가맹점 52.1%, 프랜차이즈 직영점 65.2%). 또한 사업장 규모가 10명 이상의 사업장의 휴게공간 구비율이 다소 높다(사업장 규모별 휴게공간 구비율:

1~2명 50.0%, 3~4명 52.3%, 5~9명 46.3%, 10명 이상 66.7%).

다음으로 휴게와 관련한 시간 규정으로는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가의 유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지는가를 질문한 결과, 휴식 공간과 식당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6.0%), “정해진 휴게시간 없지만 눈치껏 쉴 수 있음”이 39.1%로 가장 많고, “휴게시간 정해져있고 근무공간 떠나 쉴 수 없음”이 22.1%,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사용”이 13.6%,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으나 바빠서 쉬기 힘들” 13.2%, “휴게시간 없음” 11.9%의 순서이다(<표 3-18> 참조). 이를 다시 정리하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48.9%,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51.1%이며, 정해진 휴게시간 유무와 상관없이 쉴 수 있는 경우가 74.9%, 쉴 수 없는 경우가 25.1%이다. 또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쉴 수 있다는 비율이 35.7%이다.

<표 3-18> 휴게 식사의 시간규정 여부와 준수

범주	비율 % (사례 수)	비율 % (사례 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12.8	13.6
휴게시간 정해져있고 근무공간 떠나 쉴 수 없음	20.8	22.1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으나 바빠서 쉬기 힘들	12.4	13.2
휴게시간 없음	11.2	11.9
정해진 휴게시간 없지만 눈치껏 쉴 수 있음	36.8	39.7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하	6.0	-
계 %	100.0(250)	100.0(235)

사업장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개인사업장에 비해서 높고(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비율: 개인사업장 33.3%, 프랜차이즈 직영점 68.2%, 프랜차이즈 가맹점 28.2%)(<표 3-19>참조),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비율: 종업원 수 1~2명 23.7%, 3~4명 25.7%, 5~9명 46.1%, 10명 이상 64.6%).

일하는 작업장에 휴게 공간이 있는가는 노동의 휴식권 보장에 필수적 요소의 하

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의 근무는 규정된 휴식 시간을 적절히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식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알아서 식사하는 경향의 비율이,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식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표 3-19〉 휴게실 유무와 식사시간 규정 및 준수

범주	휴게실 있음	휴게실 없음	계	검정
식사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식사	43.3	17.0	100.0	16.984 p<.01
정해져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을 함	24.0	31.0	100.0	
정해져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	32.7	52.0	100.0	

3) 식사시간은 충분한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장에서 평균 식사시간은 39.2분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식사시간이 짧았으며, 매우 짧은 시간에 식사하는 아르바이트生在이 적지 않았다.

식사시간에 대한 아르바이트 근무자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직장에서의 식사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43.6%, “다소 부족하다” 46.1%, “매우 부족하다” 10.3%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56.4%에 이르고 있다(<표 3-20> 참조). 아르바이트 스스로 충분하다고 평가한 경우의 평균 식사시간은 48.65분이며, 다소 부족하다는 34.46분, 매우 부족하다는 20.71분으로 실제 식사시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0> 직장식사시간에 대한 평가와 식사시간

범주	비율 %	평균 식사시간	
		분	F 검정
충분하다	43.6	48.6	49.941 **
다소 부족하다	46.1	34.5	
매우 부족하다	10.3	20.7	
계	100.0	39.2	

** p<.01, * p<.05

또한 아르바이트시 식사시간이 아르바이트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43.4%이며, “약간 줄었다”가 50.0%, “많이 줄었다”가 6.4%로 아르바이트생은 반 수 이상은 식사시간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식사시간을 알아보면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응답자의 평균 식사시간은 43.2분, 약간 줄었다는 평균 식사시간은 37.8분, 많이 줄었다는 응답자의 평균 식사시간은 25.9분으로 실제 식사시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제 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족한 식사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 요인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근무형태와 직장에서 식사양식과 관련한 요인이다.

먼저 성, 연령, 혼인상태, 세대형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직장식사시간을 비교한 결과, 집단별 식사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21> 참조). 이 결과는 직장에서 하는 식사시간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평소 식습관이 반영되기보다는 하는 일이나 근무환경과 같이 일과 관련한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1>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직장식사시간

범주	연령			성		혼인상태		세대형태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남성	여성	미혼	기혼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 형제	기타
시간-분	36.5	40.6	39.6	40.0	38.5	39.7	35.7	39.0	35.7	39.8	42.5
검정	F=.996 n.s			t=.418 n.s		t=1.659 n.s		F=.834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식사하는 장소, 동반자 및 식사제공 방식에 따라서 직장에서 식사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표 3-22> 참조). 먼저 식사하는 장소별 식사시간은 일터 주변의 식당이나 일터 내에 별도 식당이 있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각각 46.8분과 45.5분), 편의점에서 식사가 30분으로 가장 짧다. 식사장소를 식당과 식당 이외의 장소로 구분해 보면 식당에서의 식사시간은 46.6분, 식당 이외 장소에서의 식사시간의 평균은 33.5분으로 두 장소 간 식사시간의 격차는 매우 크다.

또한 혼자 먹는 식사와 동료와 같이 먹는 식사동반 형태별 식사시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혼자 먹는 식사의 식사시간은 28.36분, 같이 먹는 식사의 식사시간은 43.26분으로 같이 먹을 때 식사시간이 약 15분 정도 길다.

일터에 일정한 휴게 공간과 휴게시간이 있는가의 여부도 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해진 휴게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식사시간은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보다 7분 정도 길다. 또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터에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전혀 없거나 눈치껏 쉬는 경우보다 식사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도 휴게시간이 없는 작업장에서 식사시간이 가장 짧고,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지만 눈치껏 쉴 수 있거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바빠서 쉬기 힘든 경우의 식사시간은 비슷하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키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해진 공간에서 쉬거나 직장 내 외부 공간에서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시간은 비슷하다. 즉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활동 공간의 특정 공간에서 휴식 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무환경에 비해서 식사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식사양식별 식사시간

항목	식사 장소					동반자		휴게공간	
	일터의 별도 휴게 공간	일하는 장소	일터 내 별도 식당	일터 주변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혼자	동료 직원과 함께	있음	없음
시간	36.7	32.5	45.5	46.8	30.0	28.4	43.3	42.8	35.5
검정	F=10.51 **					t=31.849 **			

항목	휴게시간과 사용				
범주	휴게시간 정해짐 휴게공간 자유사용	휴게시간 정해짐 근무공간 떠나 설 수 없음	휴게시간 정해져 있으나 바빠서 쉬기 힘들	휴게시간 없음	정해진 휴게 시간 없지만 눈치껏 설 수 있음
시간_분	43.4	46.0	37.8	31.1	37.2
검정	F=4.016 **				

항목	식사시간 규정		
범주	식사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 식사	정해져 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을 함	정해져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
시간_분	44.5	38.9	35.6
검정	F=6.830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사업장 유형도 식사시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업자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장(39.72), 프랜차이즈 가맹점(33.72)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직영점(45.24)에서 식사시간이 길다(<표 3-23> 참조). 특히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식사시간은 가맹점에 비해서 11분 이상 길다. 이는 앞서 사업장 유형에서 그 특성을 분석한 바와 같이, 직영점에서 휴게공간과 별도 휴식시간이 정해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식사제공 방식에 따라서 식사시간에 차이도 적지 않다.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에 식사시간이 가장 긴데 비해서(49.2분) 매장 내의 상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가장 짧다(16분). 그런데 식사제공 방식이 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독립적 효과라기보다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식사비를 별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같이 보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식사시간 보장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23> 사업장 유형별 식사시간

항목	사업장 규모		사업자 유형		
	5인 미만	5인 이상	개인사업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간	35.4	44.4	39.7	45.2	33.7
검정	t=17.224 **		F=.991 *		

** p<.01, * p<.05

이번에는 근무특성 요인별로 식사시간을 비교해 보자(<표 3-24> 참조). 먼저 근무시간과 식사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식사시간이 다소 길지만, 근무시간이 길수록 식사시간이 감소하는 선형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무시간의 단순한 길이보다 시간별 근무형태 등의 근무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의 속도와 일의 정시성은 식사시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의 속도가 빠를수록 식사시간이 줄고 있지만(속도 가장 빠름 33.31분, 속도 가장 느림 43.55분),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적시성이 높은 일일수록 식사시간이 오히려 증가한다(정시성 가장 높음 42.04분, 시간정시성 가장 낮음 32.45분).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진행되는 일의 정시성이 노동에 대한 통제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초과 업무를 막는 등 업무수행의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규정된 식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바이트 시간별 근무형태에 따른 식사시간은 야간근무자의 식사시간이 가장 짧다. 주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식사시간이 41.47분인데 비해서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식사시간은 28.08분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13분 정도 짧다. 이 차이는 무엇보다 야간근무의 특성으로 해석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저녁 식사시간이 점심보다 짧고, 저녁시간이 늦을수록 식사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있는데(전체 직장인의 평일 점심식사 시간 35.6분, 저녁 식사시간 34.5분 늦은 저녁식사 29.3분) 아르바이트 근무에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시간이 특히 짧은 이유는 별도 식사시간을 정하기 않고, 주변 식당이용이 어려우며, 근무자의 수가 적은 야간근무 특유의 노동환경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야간근무에 따른 차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대근무자의 식사시간도 비근무자에 비해서 약간 짧다(식사시간: 교대근무자 36.8분, 비교

대근무자 41.1분).

<표 3-24> 근무특성 요인별 식사시간

범주	근무시간			일의 속도			일의 정시성		
	15시간 이하	15~35시간 이하	36시간 이상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시간_분	43.8	38.3	38.8	33.3	39.8	43.6	42.0	40.6	32.4
검정	F=2.3 .08			F=6.37 **			F=5.94 **		

범주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시간_분	28.1	41.5	36.8	41.1	38.6	39.7	38.43	29.5
검정	t=21.886 **		t=4.497 **		t=.256 n.s		t=.190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또한 직장에서 식사하는 빈도에 따라서 식사시간에 차이가 있다(<표 3-25> 참조). 직장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식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시간은 하루 한번이나 그 이하로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크게 짧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식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야간이나 새벽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장시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에서 식사시간이 짧게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에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점심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저녁이나 새벽시간 근무 시 식사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3-25> 직장의 식사빈도별 식사시간

항목	직장에서의 식사빈도		
범주	2~3일에 한번	하루 한번	하루 두 번 이상
비율	37.6	40.8	26.8
검정	F=6.402 **		

** p<.01

4) 아르바이트생의 혼밥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혼자 먹기, 즉 혼밥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혼밥은 먹는 속도가 빠르고 편식으로 영양 문제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사람과 교류가 약화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혼밥은 타인의 부담스러운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편의성의 이점을 지닌 “개인화된” 식사양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 보기도 한다.

사실 혼밥을 둘러싼 여러 시선들은 사회적 맥락과 배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혼밥의 다양한 형태와 관계가 있다. 음식을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혼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혼밥도 있다. 고령자나 1인 가구의 혼밥이 후자의 상황을 가리킨다면, 미식가나 채식주의자의 혼밥은 전자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현실에서 혼밥의 배경과 맥락은 보다 다양하겠지만, 이에 따라서 혼밥의 의미와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혼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직장에서 동료와의 접촉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직장문화에서 동료와 같이 하는 식사를 바람직하게 여긴다. 여기에는 동일한 직장에서의 시간 리듬과 노동양식의 표준화가 직장에서의 집합주의적 행동양식을 유지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직장 상황에서 혼밥은 비정상적인 식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교대근무가 많고, 일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고, 동료와 독립적 업무가 많거나, 종업원 수가 적은 작업장에서 동료와 동반 식사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지적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은 근무형태가 다양하며, 식사 관련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혼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고, 미혼과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혼밥이 이미 상당히 습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혼밥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장의 식사양식, 일의 특성과 근무형태를 대상으로 혼밥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직장 혼밥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기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 끼니별 혼밥 경험도 같이 조사하여 양자를 비교한다.

(1) 평소의 혼밥

먼저 평소 하루 세끼 식사 모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식사동반 형태를 알아보면([그림 3-1] 참조), 한 끼 혼밥율은 39.9%이며, 두 끼 혼밥은 12.6%, 세 끼 모두 혼밥은 1.0%로 조사되어,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 혼밥하는 비율은 반을 조금 넘는 53.5%이다. 끼니별로는 아침 혼밥율이 43.9%로 가장 높고, 점심은 14.9%이며, 저녁이 12.9%로 가장 낮다. 점심과 저녁식사에서 최소 한 끼를 혼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1/4정도인 24.5%이다. 동반식사 중 가족식사는 아침이 54.6%로 가장 높고, 저녁식사가 40.8%이다. 가족 이외의 동료 등과의 식사는 저녁식사에서 가장 높아 전체의 46.4%가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비율은 가족식사보다 높다.

[그림 3-1] 빈도별, 끼니별 혼밥율

단위: %



본 조사결과를 전체 직장인 대상의 생활시간조사와 비교해 보면(김소화, 2017), 아침식사 혼밥율은 다소 높고, 점심식사는 비슷하고, 저녁식사는 더 낮다(<표 3-26> 참조). 아침식사 혼밥율이 높은 이유는 젊은 층과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아르바이트생 특유의 생활 여건이 어떻게 반영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고찰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저녁 혼밥율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직장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고, 연령이 젊고 미혼이 많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과 식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3-26〉 끼니별 평소 식사의 동반형태 : 직장인 전체와 아르바이트생

항목		혼자	여러 명			계 %
			가족	가족 이외	소계	
아침	아르바이트생	43.9	54.6	1.5	56.1	100.0
	직장인 전체	40.0	49.9	10.1	60.0	100.0
점심	아르바이트생	14.9	2.0	83.1	85.1	100.0
	직장인	13.8	5.0	81.2	86.2	100.0
저녁	아르바이트생	12.8	40.8	46.4	87.2	100.0
	직장인	23.6	48.8	27.6	76.4	100.0

아르바이트생의 하루 혼밥율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세대형태에서 혼밥율 차이가 가장 크고 성별과 연령에서도 일부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혼밥율은 특히 아침식사에서 높고, 저녁식사도 약간 높지만, 점심식사는 다른 가구와 비슷하다(1인 가구 혼밥율: 아침 94.1%, 점심 10.0%, 저녁 28.0%). 아침식사는 주로 가정에서 하는데 비해서 점심식사는 바깥이나 직장에서 하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중반의 혼밥율이 높는데, 20대 초반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높고, 30대는 기혼자가 많기 때문에 식사 동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가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혼밥율이 약간 높는데, 특히 점심식사 혼밥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아침식사 혼밥율: 남자 11.0%, 여자 14.6%, 점심식사 혼밥율: 남자 7.9%, 여자 22.0%, 저녁식사 혼밥율: 남자 11.0%, 여자 14.6%).

끼니별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혼밥의 인구사회학적 분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혼밥이 주로 생활환경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끼니별 대표적인 동반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동반 식사와 혼재되어 있는 혼밥 양상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직장에서의 혼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장에서 주로 혼자 밥을 먹는다고 응답한 직장식사 혼밥율은 27.0%이다. 이 수치는 평소 점심 혼밥율(14.9%)이나 저녁 혼밥율(12.7%)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며 이 둘을 합한 혼밥율과 비슷하다. 아르바이트생이 일터에서 하는 식사의 대부분이 점심식사이며 일부 저녁식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위의 평소 식사에서 혼밥율이 일터 식사의 혼밥율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일터 바깥의 식사를 대상으로 응답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먼저 아르바이트생의 일터 혼밥이 성, 연령, 세대형태의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평소 식사에서는 세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혼밥율의 차이가 발견된 바 있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직장 혼밥율은 거의 비슷하다. 반면, 사업장 특성이나 일의 특성 그리고 직장 식사양식에 따라서 혼밥율의 차이가 적지 않다. 사업장 특성별로는 예상대로 근무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혼밥율이 높으며(혼밥율: 종업원수 1~2인 사업장 56.0%, 10인 이상 사업장 10.7%), 사업자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소에서 가장 높다(혼밥율: 개인사업장 24.8%, 프랜차이즈 직영점 14.3%, 프랜차이즈 가맹점 36.2%).

직장의 식사제공 방식도 혼밥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표 3-27> 참조).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를 제공받거나”(혼자 식사하는 비율 8.7%), “식사비를 제공받는 경우”(혼자 식사하는 비율 9.8%)는 대부분 여럿이 식사를 하는 반면, “매장 내 상품으로 제공받거나”(혼밥율 100.0%),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받는다” 경우에(혼자 식사하는 비율 50.0%) 혼밥율이 높다.

식사시간과 식사장소에 따라서 혼밥율 격차가 매우 크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에서 혼밥을 더 많이 한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에 맞추어 식사”하는 경우에 혼밥율은 14.5%에 그치고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을 하는” 경우에도 혼밥율은 21.4%로 높지 않다. 반면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하는” 경우의 혼밥율은 39.5%에 이르고 있다. 식사장소에 따라서는 “일터 안이나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여럿이 식사하는 비율이 높지만, “휴게시설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식사에서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어 식당이용 여부가 혼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 식사양식 요인별 직장 혼밥율

항목	식사장소					식사제공방식			
	일터의 별도 휴게 공간	일하는 장소	일터 내 별도 식당	일터 주변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주방 조리 식사 제공	식사비 제공	매장 내 상품 제공	기타 다른 형태로 제공
범주									
비율 %	50.0	26.5	27.3	16.7	100.0	8.8	9.8	100.0	50.0
검정	$\chi^2=17.712$ **					$\chi^2=50.686$ **			

항목	식사시간		식사시간 규정		
	30분 미만	30분 이상	식사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시간 식사	정해져 있으나 일이 있으면 일을 함	정해져있지 않고 한가할 때 알아서 식사
범주					
비율 %	45.5	8.7	14.5	21.4	39.5
검정	$\chi^2=35.083$ **		$\chi^2=12.651$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근무특성별로 직장 혼밥율을 살펴보면, 먼저 경력이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의 높은 혼밥율이 눈에 띈다(<표 3-28> 참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에서 혼밥율이 크게 증가한다(혼밥율: 2년 미만 20.0%, 2년 이상~3년 미만 24.6%, 3년 이상 46.7%). 또한 일의 정시성이 낮을수록 혼밥을 많이 하며(혼밥율: 일의 정시성 높음 17.7%, 중간 27.7%, 낮음 40.6%), 시간별 근무형태에서는 교대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의 혼밥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교대근무자 여부에 따라서 혼밥을 격차가 특히 크고, 야간근무자의 혼밥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일의 정시성이 낮은 일에서 혼밥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료와 식사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일의 진행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예측이 힘들 때 혼밥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근무특성별 혼밥율

항목	근무경력			일의 속도			일의 정시성		
	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범주									
비율 %	20.0	24.6	46.7	29.0	24.2	27.6	17.6	27.7	40.4
검정	$\chi^2=8.414 *$			$\chi^2=.400$ n,s			$\chi^2=7.667 *$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범주								
비율 %	47.1	22.9	47.5	13.7	28.1	26.1	40.7	22.0
검정	$\chi^2=8.369 **$		$\chi^2=28.397 **$		$\chi^2=.662$ n.s		$\chi^2=7.082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이제 직장에서의 혼밥이 평소 식사에서의 혼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앞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평소 식사의 혼밥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형태나 성별 등의 요인이 직장 혼밥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직장의 혼밥과 평소 혼밥이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소 혼밥과 직장 혼밥의 상관성을 직접 비교한 결과가 아래의 <표 3-29>인데, 직장 혼밥과 평소 혼밥 경험과의 상관성을 식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직장 혼밥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여주는 평소 식사는 점심이며($r=.257$), 아침과 저녁식사에서 양자 간 상관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평소 아침과 저녁 식사는 대부분 가정 등 일터 바깥에서 하고,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식사를 주로 직장에서 한다고 전제할 때, 아침식사의 혼밥과 직장 혼밥의 낮은 상관성은 평소 일터 바깥의 혼밥과 직장 혼밥이 관련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상대적으로 점심식사에서 양자 간 높은 상관성은 아르바이트생의 점심식사가 대부분 직장에서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정리하면, 직장 혼밥은 평소 가정이나 일터 바깥에서 혼밥 습관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직장에서 혼밥을 야기하는 배경과 가정이나 일터 바깥에서 혼밥을 하는 배경과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

<표 3-29> 직장 혼밥과 평소의 끼니별 혼밥의 상관성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단순 상관계수 r	-.055 n,s	.257 **	-.042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지금까지 분석 결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혼밥은 일부 인구사회학적 집단에서 관찰되는 일터 바깥의 평소 혼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사 제공 방식, 식사장소와 같은 직장의 식사양식과 교대근무와 같이 일의 정시성으로 인한 시간의 압력과 일의 시간적 예측성과 관련이 있는 근무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식사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혼밥은 평소의 식습관이 일터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 부족과 시간적 압박, 식사 동반자와 독립된 식사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먹기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구조적 압력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직장 혼밥은 식사시간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습관과 관련성이 크다.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혼밥은 여럿이 함께 하는 식사에 비해서 식사시간이 부족하고(앞서 분석에서 혼밥 식사시간이 여러 명과 같이 하는 식사에 비해서 식사시간이 15분 정도 짧음), 불규칙한 식사도 많이 하고 있어(불규칙 식사율: 혼밥 76.4%, 여럿이 함께 하는 식사 61.1%), 영양 불균형과 결핍이나 건강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본 분석에서 직장 혼밥과 평상시 혼밥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장 혼밥이 오랜 기간 반복된다면 하나의 식습관으로 형성되어 일터 바깥에서도 혼밥이 습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1) 하루 동안의 결식

먼저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별로 전체 식사의 실천일 수와 결식일 수를 살펴보자(<표 3-30> 참조). 하루 평균 식사 수는 2.31회이고 하루 3회 기준으로 결식식사 수는 .69회이다. 식사별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날이 3.44일로 식사 중 결식일이 가장 많고 점심을 하지 않은 날은 .67일로 점심식사 결식 날이 가장 적

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아침식사 평균 실천율은 50.8%, 평균 결식률은 49.2%로 하루를 기준으로 반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르바이트생의 결식률은 전체 직장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따르면, 평일 식사 횟수는 평균 2.6회, 휴일 평균 2.6회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생의 하루 평균 결식횟수가 약 0.29회 높다. 또한 평일 기준으로 전체 직장인의 끼니별 결식률로는 아침식사 19.2%, 점심식사 4.9%, 저녁식사 9.1%로, 아르바이트생의 결식률 49.1%, 9.4%, 10.3%에 비해서 모든 끼니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다.

<표 3-30> 결식률(전체)

항목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평균 먹는 날 수	3.56	6.34	6.28
식사 실천율 %	50.9	90.6	89.7
일주일 평균 결식 날 수	3.44	.67	.72
결식률 %	49.1	9.4	10.3
전체 직장인 평일	30.5	4.9	24.0
전체 직장인 휴일	19.2	14.7	8.1
하루 평균 먹는 식사 수	2.31		
식사 실천율 %	77.0		
하루 평균 결식 식사 수	.69		
결식률 %	23.0		

성, 연령, 세대형태, 혼인상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결식률은 주로 아침식사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미혼, 20대 초반,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다(아침식사 결식일수, 연령별: 20대 초반 4.18, 20대 후반 3.20, 30대 3.27. 세대형태별: 1인 가구 4.02일, 부부가구 2.56일, 부모와 동거 3.49일, 기타 3.50일. 혼인상태별: 미혼 3.64일 기혼 2.56일).

근무특성에서는 시간별 근무형태에 따라서 결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표 3-31> 참조), 아침, 점심, 저녁의 끼니별로 양상이 다르다. 야간근무자는 저녁과 아침식사에서 높은 결식률을 보여주며, 교대근무자는 점심과 저녁식사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은 근무자는 아침과 점심식사에서, 그리고 휴일근무자는 아침식사

의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근무시간별 결식률의 차이는 근무시간 요인이 결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31> 시간별 근무형태별 끼니별 결식률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아침 결식	날 수	4.60	3.26	3.06	3.70	4.15	2.93	4.10	3.23
	검정	t=10.477 **		t=4.535 n.s		t=18.001 **		t=6.672 *	
점심 결식	날 수	.85	.63	.87	.62	.64	.68	.87	.59
	검정	t=1.732 n.s		t=8.634 **		t=.094 n.s		t=4.718 *	
저녁 결식	날 수	1.09	.67	.92	.60	.73	.72	.90	.66
	검정	t=7.076 **		t=8.339 **		t=.000 n.s		t=3.473 n.s	
하루 결식	끼니 수	.93	.65	.69	.69	.78	.62	.84	.64
	검정	t=13.678 **		t=.001 n.s		t=18.001 **		t=10.363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결식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결식률에 얼마만큼의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설명요인으로는 위에서 결식률과의 이차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시간별 근무형태와 연령 그리고 세대형태 요인을 포함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변수의 투입은 위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인 모델 1에서는 연령과 세대요인만을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인 모델 2는 여기에 네 개 유형의 근무형태를 첨가하였다. 아래의 <표 3-32>는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및 하루 평균 결식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끼 식사 중 관련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식사는 아침식사이다. 즉 점심식사나 저녁식사에 비해서 아침식사에서 근무형태 등에 따른 식사의 결식률의 차이가 가장 크다(설명요인의 설명력 16%). 하루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의 설명력(11%)도 적지 않는데 이는 주로 아침식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끼 식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심식사의 결식률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낮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점심을 하거나 아침식사의 결식 다음에 점심에는 식사를 거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침식사의 결식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요인은 근무시간별 근무 형태이다. 네 가지 근무형태 모두 아침식사 결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휴일, 야간, 시간외의 세 가지 근무형태는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비해서, 교대근무의 영향력은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는 아침식사의 결식률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비해서, 교대근무는 오히려 아침결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대근무자에서 아침식사의 결식률이 낮은 이유는 교대근무자에서 1인 가구가 적은 등 근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결식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가 적어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주기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교대근무자의 점심과 저녁식사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직장에서 하는 낮 시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시간 압력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 끼를 모두 고려한 하루 전체 결식률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야간, 휴일, 시간외 근무의 세 가지 근무형태가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여준다.

셋째, 연령(20대 초반)과 세대형태(1인 가구) 특성은 근무형태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 설명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침식사의 모델 1에서는 20대 초반과 1인 가구의 아침식사 결식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네 가지 근무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모델 2에서는 효과가 약화되거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모델 2에서 20대 초반과 다른 연령집단과의 아침식사 결식률 격차에 대한 설명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독립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 같은 결과는 아침식사의 결식에 미치는 두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특성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표 3-32> 근무시간별 근무형태, 연령, 1인 가구의 끼니별 결식률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요인	아침식사 결식				점심식사 결식		저녁식사 결식		하루 중 결식			
	모델1		모델2		모델2		모델2		모델1		모델2	
	b값 β 값	유의 도	b값 β 값	유의 도	b값 β 값	유의 도	b값 β 값	유의 도	b값 β 값	유의 도	b값 β 값	유의 도
연령	2.673 .179	.004	.675 .121	.042	-.068 -.030	.641	-.023 -.174	.862	.140 .134	.035	.083 .080	.192
1인 가구	.795 .137	.028	.251 .043	.486	-.131 -.055	.415	-.094 -.643	.521	.073 .068	.285	.004 .003	.957
야간 근무			1.036 .155	.010	.173 .063	.331	.370 .146	.023			.226 .180	.004
휴일 근무			1.217 .259	.000	-.001 -.001	.993	.004 .003	.970			.174 .198	.002
교대 근무			-.099 -.190	.002	.305 .156	.016	.262 .146	.023			-.047 -.053	.385
시간 외 근무			1.099 .205	.001	.220 .110	.125	.148 .073	.258			.210 .209	.001
상수	3.065	.000	2.673	.000	.502	.000	.554	.000	.644	.000	.533	.000
수정 R제곱	.050	.002	0.16	.000	.030	.041	.048	.017	.021	.050	.110	.000

- 연령: 20대 초반=1인 더미변수, 1인 가구: 1인 가구=1인 더미변수,
야간근무, 휴일근무, 교대근무 및 시간외 근무는 각각 근무=1인 더미변수

(2) 일터에서의 결식과 불규칙 식사

이제 근무 중 일터에서 식사를 거르는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표 3-33> 참조). 일터에서 근무 때문에 식사를 거른 경험이 적어도 일주일
일에 한번 이상 있다는 응답은 1/3이 조금 넘는 35.2%이며 3~4일에 한번 이상 거
른다는 응답은 14.4%이다. 결식의 이유로는 “일이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서”라는 이유가 50.5%로 가장 많지만, “먹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거나”(17.6%), “혼
자 먹기 싫어서라는 이유”(10.9%)도 적지 않다. 일로 바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는 직장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이지만, 먹을 장소나 동반
의 문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상은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환경과 관
련이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근무로 식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한 경험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반을 조금 넘는 55.2%에 이르고 있다.

<표 3-33> 직장에서 식사 거른 경험과 이유

항목	비율 %	이유	비율 %
하루에 한번 정도	1.2	일이 바빠서	50.8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17.6
3~4일에 한번 정도	13.2	먹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10.9
		혼자 먹기 싫어서	8.8
일주일에 한번 정도	20.8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3.1
		메뉴가 마땅하지 않아서	6.7
거의 없음	64.8	기타	2.1
		계	100.0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업장 특성 및 노동환경 요인에 따른 직장에서 결식률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성, 연령, 세대형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장에서 결식률의 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장 규모, 사업자 형태, 휴게 공간 유무와 식사 결식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형태에서 결식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대 근무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다(<표 3-34> 참조). 교대근무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야간근무와 시간외근무도 결식률과 관계가 있어 교대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로 직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직장 안과 바깥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식사의 결식률 분석에서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무와 시간외근무에 비해서 아침식사의 결식률이 오히려 낮았지만, 직장에서의 결식은 다른 근무 형태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터에서 식사시간 보장 여부도 결식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식사시간의 보장과 결식률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일터에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는 일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결식률이 정해진 식사시간이 있는 근무자에 비해서 결식률이 다소 높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지켜 식사를 하는 근무자에 비해서(결식률 41.9%)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일이 있을 때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는 근무자의 결식률이(25.0%) 크게 낮다. 후자의 경우에 정해진 식사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 비해서, 전자의 경우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불규칙 식사에 대한 분석 결과도 결식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시간별 근무형

태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의 특성이 식사의 불규칙성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적 뚜렷하다. 시간별 근무형태에서는 교대근무자의 불규칙 식사 경험율이 가장 높으며, 휴일근무자와 야간근무자도 불규칙한 식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일의 특성에서는 일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 때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시간에 맞추어 일하는 정시성이 높을수록 불규칙 식사를 적게 하고 있다.

<표 3-34> 근무특성별 결식과 불규칙 식사율

항목		근무시간			일의 속도			일의 정시성		
범주		15 시간 이하	15~35 시간 이하	36 시간 이상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결식	비율 %	30.5	31.6	44.0	34.3	29.6	41.6	28.4	40.6	36.4
	검정	χ^2 1.841, 10			χ^2 1.423 n.s			χ^2 1.529 n.s		
불규 칙	비율	55.6	48.9	66.7	65.7	53.1	46.3	42.1	70.6	50.0
	검정	χ^2 3.153 *			χ^2 2.576 *			χ^2 8.552 *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범주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결식	비율 %	45.7	33.5	43.4	28.7	38.1	33.1	45.2	31.9
	검정	χ^2 1.972 .09		χ^2 4.929 *		χ^2 .662 n.s		χ^2 3.610 *	
불규 칙	비율	68.6	53.0	65.7	48.3	62.9	49.7	62.9	52.7
	검정	χ^2 2.954 *		χ^2 7.404 **		4.322 *		χ^2 1.978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6)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

(1) 식품미보장의 개념과 측정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은 “식품의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성이 제한된 것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하거나 적절한 영양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를 가리킨다. 학문이나 입장에 따라서 식품불안정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분석 단위에 따라서 개인, 가구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 개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생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가구 차원 식품미보장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품미보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먹거리 결핍에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식품미보장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결핍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보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식품미보장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먹거리 결핍의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미보장 개념은 단순히 결핍의 상태만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영양의 상태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예측해 주는 지표로서 분석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가구의 먹거리 결핍이 직장식사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의 원인이자 배경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시 식사와 식품 소비의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하거나, 식사가 식비 형태도 제공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때, 경제적 문제는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또한, 평소 불충분한 식사가 지속됨으로서 형성된 결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화되고 이 같은 식습관이 직장식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때 식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루에 최소 끼니만 먹거나 극단적인 편의 위주의 식사가 직장식사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 상태가 직장식사를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아르바이트시 식사가 직장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된다면 가구차원의 식품미보장에도 불구하고 직장식사에서 불충분한 식사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과 관련한 이상의 연구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간단히 식품미보장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한 후, 아르바이트생의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 상태를 기술하고, 아르바이트생 집단별로 식품미보장 실태를 비교한다. 둘째,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과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의 관계를 직장식사의 결식을

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식품미보장의 측정은 미국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US-HFFS)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식품보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김기랑·김미경, 2009),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18문항 척도 대신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한 가구용 척도인 10문항 척도를 적용하였다. 척도항목과 척도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3-35> 참조).

<표 3-35> 식품미보장 척도 항목과 점수

문항	아동 비포함 가구	
	응답	점수
먹을 것이 떨어진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자주/2.가끔	1
	3.없음	0
먹을 것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자주/2.가끔	1
	3. 없음	0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던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식비가 부족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자주/2.가끔	1
	3.없음	0
식사를 거른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또는 귀댁 인들)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까?	1.예	1
	2.아니오/8.비해당	0
식사를 거른 빈도 문)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1.매달/2.몇 달 동안	1
	3.한두 달/8.비해당	0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1.예	1
	2.아니오/8.비해당	0
배고픈데 먹지 못한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1.예	1
	2.아니오/8.비해당	0
필요한 만큼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필요한 만큼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1.예	1
	2.아니오/8.비해당	0
하루 종일 굶은 경험 문)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또는 귀댁 성인들)는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었습니까?	1.예	1
	2.아니오/8.비해당	0
하루 종일 굶은 빈도 문)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1.매달/2.몇 달 동안	1
	3.한두 달/8.비해당	0

위의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식품보장의 수준은 아래의 <표 3-36>과 같다. 점수에 따라서 식품보장의 수준은 식품보장 확보 상태,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

품보장 초기단계,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 중간단계,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 심화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식품보장을 확보한 상태가 94.2%이며,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식품불안정) 초기단계가 4.0%,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불안정) 중간 단계가 1.2%이며,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 상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6〉 식품보장의 구분

구분	점수	비율 %
식품보장 확보	0~2	94.8
식품미보장 초기단계(배고픔 비동반)	3~5	4.0
식품미보장 중간단계(배고픔 동반)	6~8	1.2
식품미보장 심화단계(배고픔 동반)	9~10	0.0

(2) 식품미보장과 결식

식품미보장에서 대표적 지표의 하나는 결식이다.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결식률을 끼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표 3-37>참조), 특히 아침식사의 결식률이 매우 높아,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일주일에 6일 정도(6.14일) 결식하고 있다. 이 결식률은 보장상태 아르바이트생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또한 하루 세 끼 중 결식 끼니가 한 끼를(1.12끼) 넘는다. 점심식사의 결식률도 보장 상태의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녁식사 결식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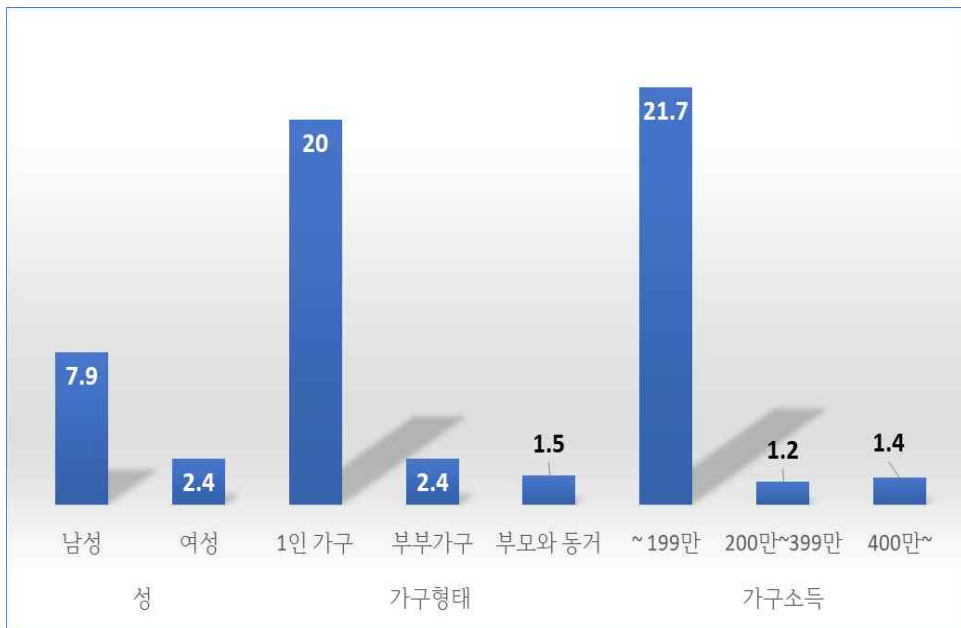
〈표 3-37〉 식품보장/미보장별 결식 상태

항목	일주일 평균						하루 평균 결식 횟수	
	아침식사 결식 일수		점심식사 결식 일수		저녁식사 결식 일수		평균	표준오차
범주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보장	3.30	.15	.65	.06	.72	.06	.66	.03
미보장	6.15	.32	.85	.24	.75	.25	1.12	.05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식품보장 여부에는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예상대로 경제적 형편이다([그림 3-2] 참조).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에서 미보장율이 21.7%로 평균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세대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미보장율이 특히 높은데(미보장율 20.0%),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서 주로 기인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미보장율이 높다(미보장율: 여성 2.4%, 남성 7.9%). 그러나 연령별 식품보장율의 차이는 없다.

[그림 3-2]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식품미보장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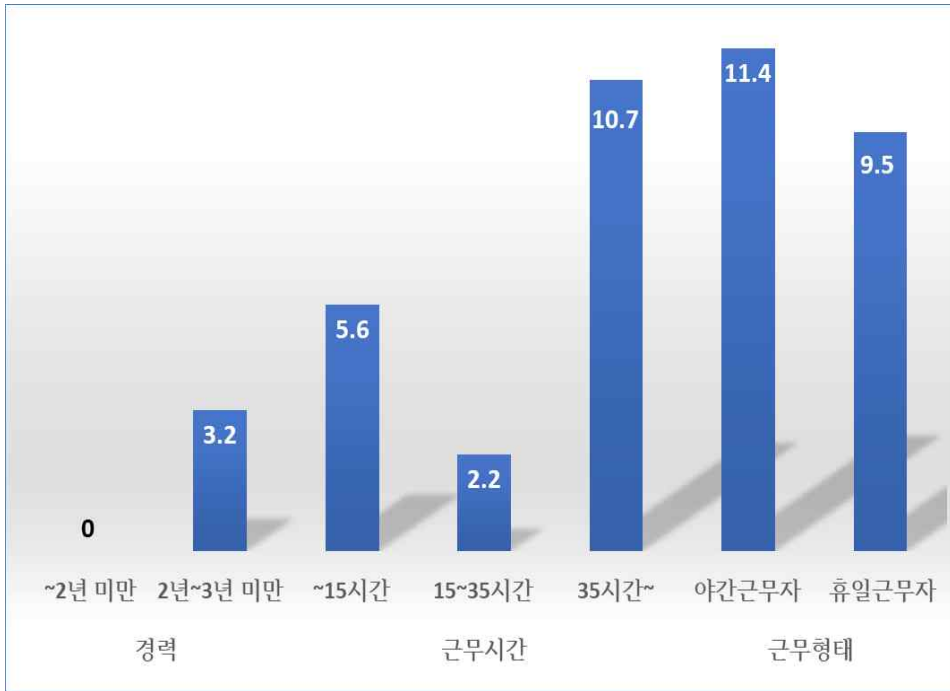
수치: %



근무특성 요인별로는 근무시간이 길고(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이상 근무자의 미보장율 10.7%), 경력이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의 미보장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경력 3년 이상 근무자의 미보장율 14.3%). 근무시간별로는 평일과 주간 근무자보다 야간과 휴일근무자의 미보장율이 약간 높다(미보장율: 야간근무자 11.4%, 비야간근무자 4.2%. 휴일근무자 9.5%, 비휴일근무자 2.1%)([그림 3-3] 참조).

[그림 3-3] 근무특성 요인별 식품미보장율

수치: %



식품보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근무시간이나 야간과 휴일근무의 근무형태 요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경제적 형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양자 간 관련성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식품미보장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인과성의 맥락에서 근무형태 요인이 식품미보장상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양자 모두 경제적 결핍이라는 공통의 외적 변인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과 직장식사 결식

가구의 식품미보장 상태가 직장식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직장에서의 결식 경험과 가구 차원의 식품보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3-38>을 보면, 가구 차원의 낮은 식품보장은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잦은 결식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직장에서의 3~4일에 한

번 이상 결식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결식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 식품미보장율을 보여준다.

〈표 3-38〉 가구 식품미보장과 직장 결식

항목	직장에서 결식 경험			
	없음	일주일에 한번 정도	3_4일에 한번 이상	전체
미보장율 %	3.1	7.7	14.4	5.2

이 같은 결과는 앞서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과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에 관해서 앞서 설정한 여러 가설들 가운데 적어도 마지막 가설, 즉 양자 간에 관련성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구 차원에서의 식사의 불안정성이 직장식사도 높은 불안정성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앞서 설정했던 두 가지 요인, 즉 경제적 요인과 식습관 요인에 근거해서 설명해보자. 먼저 경제적 설명은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경제적 압박이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자리 선택의 자유가 적기 때문에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와 같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일도 받아들이게 된다.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는 식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및 비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식품미보장 상태에 머무는 결과를 낳는다.

또 다른 설명은 가구의 경제적 문제로 가정에서 잦은 결식을 경험하면서 끼니마다 챙겨먹는 식사의 정규성에 대한 습관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식사를 충분히 챙겨먹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상적 식습관 대신에 끼니를 거르는 행위가 습관화되어 정규 식사에 대한 일종의 “절차 중심의 비정상적 식사(gastro-anomie)”가 지속되고 가정 밖에서도 식사를 지극히 편의적인 먹기 행동으로 간주하여 직장에도 빈번한 결식을 경험한다.

이상의 두 가지 설명 모두에서 시간적 압박이나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은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이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가구에서 식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제적 궁핍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도 역시 식품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7) 아르바이트생은 일터에서 무엇을 먹는가?

여기에서는 일터에서 무엇을 먹는가의 주제를 다룬다. 아르바이트생이 직장에서 먹는 메뉴는 두 가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하나는 메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메뉴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 먹는 구체적인 메뉴이다. 전자가 아르바이트생의 선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다면, 후자는 실제 직장식사에서 먹는 메뉴를 의미한다. 선호 메뉴와 실제 먹는 메뉴는 현실에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전자의 선호 메뉴에는 아르바이트 근무에서 발생한 특정한 먹기에 대한 욕구와 평소의 선호 메뉴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후자와 구분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주 먹는 메뉴들의 유형은 직장식사의 전형적인 식단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직장식사의 대표적인 식단을 추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직장식사의 메뉴의 섭취 빈도를 기준으로 메뉴 유형을 발견한다. 직장식사의 유형화된 식단을 누가, 어떠한 식사 형식에서, 그리고 어떠한 근무 환경에서 자주 섭취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직장식사의 형식과 식사 메뉴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1) 중요하게 고려하는 메뉴 속성: 속도와 포만감에 대한 선호

직장식사에서 선호하는 메뉴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맛”, “영양”, “안전”, “가격”, “포만감”의 5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표 3-39> 참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호 요인은 “맛”이며(45.1%), 그 다음으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꼽고 있다(32.4%). 이어서 “안전한 음식”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들고 있다. 두 번째 선택요인까지 합하면 “맛”(71.2%),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48.7%),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30.5%)의 순서이다. 성인의 일반적인 메뉴 선호와 비교할 때, 빨리 먹는 음식과 포만감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이다.

<표 3-39> 식사 메뉴 선택 시 중시하는 속성

범주	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② 그 다음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	① + ②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32.4	16.3	48.7
맛	45.1	26.1	71.2
영양	3.4	4.9	8.3
안전한 음식	8.8	18.2	27.0
가격	3.9	10.3	14.1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6.4	24.1	30.5
합계 % (사례 수)	100.0(204)	100.0(204)	200.0(204)

일터에서 식사 메뉴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특정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에서 발생하는 욕구나 평소의 먹거리 취향이나 식습관에 따른 선호를 반영한다. 일터 식사에서 많이 먹는 메뉴는 직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근무자 개개인의 선호나 평소의 식습관이 반영된 메뉴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비해서, 메뉴 선택 시 고려요인은 먹는 사람의 요구나 선호도를 반영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실에서 선호 메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노동환경으로부터의 요구와 평소의 개개인의 먹거리 취향은 어느 정도 상호배타적으로 작용한다. 만일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먹거리 메뉴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이라면, 평소 취향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할 여지는 적을 것이다. 반면, 노동환경 요인이 메뉴 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면, 직장에서 선택한 메뉴에는 개인적 선호가 많이 포함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선호 메뉴가 근무특성으로 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식사양식과 근무형태별로 선호 메뉴를 비교해 보자. 먼저 직장에서의 여러 식사 형식과 선호 메뉴와의 관계를 직장식사시간, 결식, 불규칙한 식사 경험을 대상으로 양자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일터에서 식사시간, 식사장소, 결식률, 불규칙한 식사율과 선호 메뉴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 3-40>이다(분석에서 사례 수가 적은 영양과 가격 요인은 제외하였다). 먼저 선호 메뉴별 식사시간을 살펴보면, 맛이나 안전한 음식을 찾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비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근무자의 식사시간이 짧다. 되돌려 말하면, 식사시간이 적을

수록 빨리 먹거나 포만감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 결식률과 불규칙 식사를 사이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포만감 있는 음식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고 있다.

〈표 3-40〉 식사메뉴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속성별 식사시간, 결식률 및 불규칙 식사율

범주	직장에서의 식사시간 분	결식률 %	불규칙 식사율 %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31.4	51.5	74.2
맛	45.1	31.5	55.4
영양	-	-	-
안전한음식	40.8	55.6	72.2
가격	-	-	-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32.3	53.9	84.6
계 (사례 수)	39.2(204)	42.2(204)	65.2(204)

- 사례 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선호 메뉴와 직장식사의 동반자 형태와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다(<표 3-41> 참조).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는 여럿이 먹는 경우에 비해서 혼자 먹는 경우에 월등하게 높다(각각 63.6%와 20.8%). 또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 보다, 일하는 장소나 휴게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에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 양자 간 상관성은 두 가지 인과적 방향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빨리 먹기 위해서 혼자 먹거나, 혼자 먹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빨리 먹는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1> 동반자 및 식사장소별 선호 메뉴

항목		동반자		식사장소			
		혼자	여러 명이 함께	별도 휴게 공간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 내 별도 식당	일터 주변 식당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비율 %	63.6	20.8	50.0	37.3	18.1	21.8
	검정	$\chi^2=9.934$ **		$\chi^2=4.695$ *			
포만감을 주는 음식	비율 %	7.3	6.0	3.3	7.2	9.1	5.1
	검정	$\chi^2=.101$ ns		$\chi^2=1.842$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이제, 일의 특성과 시간별 근무형태별로 선호 메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표 3-42> 참조). 근무시간별 노동형태에 따른 선호 메뉴는 일부 근무형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는 일의 속도가 빠르고 교대근무자에서, 그리고 포만감에 대한 선호는 야간근무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호 메뉴가 근무특성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식습관의 안정적인 요소의 하나인 음식 선호가 직장에서의 식사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터에서 활동이 특정 메뉴를 선호하는 식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의 근무환경에서 연유한 외적 압력에 따라서 메뉴 선택에 선호가 결정되는 상황은 직장에서 특정 메뉴를 먹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특유의 식문화의 “아비투스”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에 있어서 식문화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보다는 일의 속도와 같은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집합적으로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에 있다.

〈표 3-42〉 근무특성별 선호 메뉴

항목		근무시간			일의 속도			일의 정서성		
		15시간 이하	15~35시간 이하	36시간 이상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비율 %	34.6	38.5	23.0	35.5	40.9	22.4	25.7	37.4	34.0
	검정	$\chi^2=2.426$ n.s			$\chi^2=3.018$ *			$\chi^2=1.255$ ns		
포만감을 주는 음식	비율 %	3.8	4.8	9.5	6.5	3.0	6.2	8.1	2.4	10.6
	검정	$\chi^2=938$ n.s			$\chi^2=1.127$ n.s			$\chi^2=2.000$ ns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계약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비율 %	44.1	30.0	41.3	26.6	36.0	29.6	37.0	30.7
	검정	$\chi^2=2.588$ n.s		$\chi^2=4.826$ *		$\chi^2=,931$ n.s		$\chi^2=.732$ n.s	
포만감을 주는 음식	비율 %	4.7	14.7	6.2	6.5	9.0	4.3	7.4	6.0
	검정	$\chi^2=4.814$ *		$\chi^2=.003$ n.s		$\chi^2=1.809$ n.s		$\chi^2=.131$ n.c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2) 직장식사의 메뉴와 식단

아르바이트 근무 시 일터에서 먹는 식사 메뉴 중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이며, 이를 제외한 메뉴 중에서는 즉석조리식품(16.7%)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거나(4.0%), 패스트푸드 음식의 순이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음식메뉴에서는 패스트푸드가 가장 많고(39.9%), 즉석조리식품(25.3%), 빵/과자(21.3%)의 순서이다. 가장 많이 먹는 메뉴와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메뉴를 합하면 패스트푸드(42.8%), 즉석조리식품(42.0%)을 많이 먹는 비

율이 높게 증가한다(<표 3-43> 참조).

<표 3-43> 직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

범주	① 가장 많이 먹는 음식	②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음식	① + ②
즉석 조리식품	16.7	25.3	42.0
패스트푸드	2.9	39.9	42.8
치킨	0.0	1.1	1.1
빵, 과자	1.0	21.3	22.3
과일샐러드	1.0	3.9	5.0
집에서 조리한 음식	4.4	1.1	5.5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	74.0	7.3	81.3
계 % (사례 수)	100.0(204)	100.0(204)	200.0(204)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삼각김밥, 과일, 떡볶이/튀김, 라면 등 즉석요리식품,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야채/샐러드, 밥, 빵의 9개 메뉴별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3-44>이다. 메뉴별로 섭취 빈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밥의 섭취 빈도가 가장 높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지 않는 비율도 반 정도에 이른다. 밥 다음으로는 과일의 빈도가 높으며, 빵과 즉석요리식품의 빈도도 비교적 높다. 떡볶이,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는 약 1/3정도가 최소 3~4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아르바이트생이 40%를 조금 넘고 있으며(42.4%), 편의점 도시락을 최소 일주일 한 번 먹는 비율은 20% 정도로 삼각김밥을 더 자주 먹고 있다.

<표 3-44> 메뉴별 섭취 빈도

메뉴	거의 매일	이틀 한번	3~4일 한번	일주일 한번	한 달 한두 번	거의 먹지 않음	계 %
편의점 도시락	0.0	4.0	3.6	14.4	52.0	26.0	100.0
편의점 삼각김밥	0.0	4.0	6.4	32.0	36.4	21.2	100.0
과일	10.4	26.0	28.8	24.8	6.4	3.6	100.0
떡볶이/튀김	0.0	7.6	28.4	38.4	25.2	0.4	100.0
라면 등 즉석 요리식품	1.2	17.2	32.8	34.0	13.2	1.6	100.0
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0.4	2.8	25.2	41.2	27.2	3.2	100.0
야채/샐러드	1.2	11.6	30.8	26.4	20.8	9.2	100.0
밥	51.6	40.8	6.8	0.8	0.0	0.0	100.0
빵	0.4	16.8	36.8	31.6	11.2	3.2	100.0
인스턴트커피나 탄산음료	48.0	26.8	15.6	7.2	0.8	1.6	100.0

위의 9개 메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메뉴에 따른 먹기 유형, 즉 식단을 발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표 3-45>인데, 결과에서 메뉴의 먹기 유형은 크게 3가지 식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요인 1의 식단은 떡볶이/튀김, 라면 등 즉석요리식품,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서 요인 부하값이 높고 밥에서는 높은 음의 부하값을 보여주고 있는 먹기 유형으로, 전형적인 패스트푸드 위주 메뉴에 해당하며 밥을 대체하는 대체식 식단이다. 떡볶이, 즉석요리, 피자 등이 밥을 대용하는 메뉴로 빈번히 섭취한다. 또한 이 메뉴 섭취는 과일섭취와 높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빈번할수록 과일 섭취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인 2의 식단은 편의점 도시락과 편의점 삼각김밥에서 높은 부하값을 보여주는 편의성 중심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패스트푸드 메뉴와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패스트푸드를 일부 포함하는 메뉴이다. 또한 야채와 과일의 섭취와는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편의성 메뉴의 섭취 빈도는 야채와 과일섭취와 반비례적이다.

요인 3의 식단은 야채와 과일 중심의 건강식 메뉴들로 이루어져 있다. 야채/샐러드와 과일에서 높은 부하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빵과의 정적 상관성도 비교적 높다. 물론 빵은 요인 1과 요인 2와 모두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모든 메뉴

의 섭취에서 빵의 섭취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떡볶이 튀김을 비롯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메뉴와는 약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건강식 메뉴를 자주 섭취할수록 이들 메뉴들은 적게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5> 직장식사 메뉴의 요인 분석과 식단

수치: 요인 부하값

메뉴	요인 1	요인 2	요인 3
떡볶이/튀김	.761	.135	-.154
라면 등 즉석 요리식품	.713	.117	-.044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693	.280	.003
밥	-.591	.059	.082
편의점 도시락	.147	.909	-.059
편의점 삼각김밥	.095	.903	-.089
야채/샐러드	-.029	-.100	.893
과일	-.397	-.192	.713
빵	.422	.357	.536
식단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특징	떡볶이, 튀김, 즉석식 중심, 밥을 적게 섭취	편의점 메뉴 중심(도시락, 삼각김밥), 패스트푸드도 일부 포함	야채/샐러드, 과일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 같은 세 가지 식단의 섭취 빈도를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근무형태와 근무환경 요인 및 식사양식 형태별로 비교해 보자.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살펴보면(<표 3-46> 참조), 성별로는 남성에서 편의식 메뉴의 먹기 빈도가 높은 반면, 여성에서 영양식 메뉴의 먹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20대에서 편의성 메뉴를 자주 섭취하고, 20대 초반에서 건강식 메뉴의 섭취 빈도가 특히 떨어진다.

세대형태별 차이도 매우 뚜렷하다. 대체식 섭취 빈도는 부부가구에서 가장 낮고, 편의식 메뉴의 이용은 1인 가구에서 높은 반면, 부부가구에서 가장 낮다. 건강식

식단은 부부가구에서 특히 높은 반면, 1인 가구에서 가장 낮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대체식과 편의식 섭취 빈도가 높은 반면, 기혼은 건강식 메뉴의 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서 지적한 세대형태별 차이가 주로 혼인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편의식 메뉴의 섭취 빈도가 높은 반면, 건강식 메뉴의 섭취 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세부 메뉴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로는, 특히 과일섭취에서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남성, 20대 초반 연령층, 1인 가구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섭취 빈도가 낮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과 편의점 삼각김밥은 남자, 20대, 1인 가구, 미혼,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먹거리 취약 인구집단에서 많이 찾고 있다. 피자, 햄버거, 패스트푸드 섭취는 20대, 미혼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라면 등 즉석조리식품은 여성, 20대, 미혼에서 섭취 빈도가 높다.

<표 3-46>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직장식사 식단

요인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성	n.s	남자>여자, t=-2.555**	남자<여자, t=2.663**
연령	n.s	20대>30대, F=8.133*	20대 후반>30대> 20대 전반., F=6.461*
세대형태	n.s	1인 가구> 1인 가구 이외, t=-2.638**	1인 가구 이외> 1인 가구, t=2.953**
혼인상태	미혼>기혼, t=3.558**	미혼>기혼, t=3.420**	기혼>미혼, t=-2.354**
가구 소득	n.s	20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t=-2.418**	2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t=3.058**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이제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별 메뉴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자(<표 3-47> 참조). 먼저 사업장 형태에 따른 메뉴 유형으로는 사업장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에서

대체식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건강식 메뉴의 섭취 빈도가 높다. 또한 일반 사업장 근무자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근무자가 편의점에서 주로 파는 편의식 섭취 빈도가 매우 높다.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형태별로 메뉴 유형을 비교해 보면, 시간외근무와 교대근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시간외근무자에서 대체식 섭취 빈도가 높은 반면, 편의식과 건강식의 섭취 빈도는 낮다. 또한 교대근무자는 비교대근무자에 비해서 건강식 섭취 빈도가 낮다. 세부 메뉴별로는 역시 과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간외근무자에서 과일 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근무시간의 요인이 과일섭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의 속도와 정시성의 정도에 따른 일부 메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속도가 빠른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체식 메뉴를 많이 섭취하는데 비해서 건강식 메뉴를 적게 섭취한다. 또한 일의 정시성이 높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식 메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섭취한다.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형태에 따라서 식단 메뉴의 차이가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식사 메뉴가 시간적 리듬과 압력으로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47> 근무특성별 직장식사 식단

요인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사업장 규모	n.s	n.s	5인 이상>5인 미만 t=3.546**
사업장 유형	n.s	프랜차이즈 직영= 프랜차이즈 가맹> 개인사업장 F=5.576**	프랜차이즈직영= 개인사업장> 프랜차이즈가맹
교대근무	n.s	n.s	비교대근무자> 교대근무자 t=4.507**
야간근무	n.s	n.s	n.s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비근무, t=-1.676*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비근무 t=1.784*	시간 외 비근무> 시간 외 근무, t=2.485*
휴일근무	n.s	n.s	n.s

요인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일의 속도	n.s	n.s	속도 중간 이하> 속도 빠름, t=2.624**
일의 정시성	n.s	정시성 높음> 정시성 중간 이하, t=-3.723**	n.s
근무경력	n.s	n.s	n.s
근무시간	n.s	n.s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식사 내용으로서의 메뉴 유형은 식사의 형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직장식사의 여러 형식적 특성과 식품보장과 관련한 요인을 대상으로 메뉴 유형의 섭취 빈도를 비교해 보자(<표 3-48> 참조).

먼저 가구의 식품보장 상태에 따른 직장의 식사 메뉴의 차별적 섭취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식품상황이 미보장상태인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에서도 대체식과 편의식 메뉴를 자주 먹는 반면, 건강식은 덜 먹는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식품미보장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구의 식품미보장 상황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에서의 식사 메뉴의 제약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경험도 일부 메뉴에서 섭취 빈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루 전체의 평균 결식률, 직장 결식률, 직장식사 불규칙 식사율이 모두 높을수록, 대체식을 더 자주 섭취한다. 하루 중 식사를 많이 거를수록 건강식 메뉴를 적게 섭취한다. 또한 직장에서 식사시간과 동반자 요인도 일부 메뉴의 섭취 빈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직장식사시간이 30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은 대체식 식단을 자주 먹는데 비해서, 식사시간이 30분 이상인 식사시간이 충분한 아르바이트생은 건강식을 자주 먹는다. 직장 혼밥도 건강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식사의 장소에 따른 섭취하는 식단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식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식을 더 자주 먹는다. 또한 직장에서 주로 혼밥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건강식을 덜 섭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직장에서의 결식과 불규칙 식사, 짧은 식사시간과 혼밥은 건강식 섭취를 어렵게 하고 대체 메뉴를 자주 섭취함으로써, 식습관과 영양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8〉 식사양식별 직장식사 식단

요인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가구 식품미보장	미보장>보장, t=-3.019**	미보장>보장, t=-3.914**	보장>미보장, t=2.239*
하루 평균 결식	결식률이 높을수록, 자주 r=.344**	n.s	결식률이 낮을수록 자주, r=-.127*
직장 결식	경험>비경험, t=-7.297**	경험>비경험, t=-2.216*	n.s
직장 불규칙 식사	경험>비경험, t=-4.405**	n.s	n.s
직장식사 장소	n.s	식당 이외의 장소> 식당 t=-2.045*	n.s
직장식사 시간	30분 미만> 30분 이상, t=-3.655**	n.s	30분 이상> 30분 미만, t=-2.879**
직장 혼밥	n.s	n.s	여럿이>혼자, t=1.823*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8) 아르바이트 이후 식생활의 변화

아르바이트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 차원에서 이전 식생활과 비교를 통해서 보다 명확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다면, 아르바이트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 이후, 메뉴별 섭취 빈도의 변화와 식사시간, 동반형태 등의 식습관의 여러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현재 시점에서 아르바이트 이전과 비교하는 “회상 방법”(Recall Study)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식습관의 변화에는 기존의 식습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기존의 식습관은 아르바이트 효과를 억제할 수도 있고, 이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식습관 변화를 부정적이라고 전제할 때, 건전한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거나 억제할 것이며, 불규칙하거나 문제가 있는 식습관은 아르바이트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행동양식으로서의 식습관은 음식에 대

한 태도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이나 태도는 행동의 기저를 이루어, 식습관을 안정적 구성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기존의 식습관을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인지 역량과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실행 역량으로 개념화하여, 인지 능력과 실행 역량이 식습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메뉴와 식습관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일터 바깥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라면을 비롯한 10개 음식메뉴의 섭취 빈도를 아르바이트 이전과 비교한 변화를 정리한 결과가 <표 3-49>이다. 10개의 음식메뉴 가운데, 라면 등 즉석 조리식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떡볶이/튀김, 빵,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순서로 더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다. 반면 증가보다 감소 비율이 높은 음식은 야채, 과일, 밥이며 이 중에서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음식은 과일이다. 이와 같은 음식 메뉴의 변화는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한 일터에서 식사양식의 변화로 전체 식생활의 변화가 적지 않으며, 그 방향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9> 아르바이트 이후 메뉴별 섭취 증가와 감소

메뉴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계 %
라면 등 즉석 조리식	6.9	38.4	55.2	100.0
떡볶이/튀김	10.0	46.8	43.2	100.0
빵	9.2	48.0	42.8	100.0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5.2	54.8	40.0	100.0
인스턴트커피나 탄산음료	5.2	54.8	39.9	100.0
편의점 삼각김밥	8.8	51.6	39.6	100.0
편의점 도시락	7.2	60.0	31.0	100.0
야채/샐러드	14.0	74.0	12.0	100.0
과일	34.9	54.4	11.2	100.0
밥	29.6	62.5	8.0	100.0

아래의 <표 3-50>은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의 변화를 아래의 8개 항목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일터 바깥에서도 식습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 식습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졌다”이며 (70.0%), 다음으로 “더 빈번하게 간식을 하고 있다”(52.0%), “당의 섭취가 증가했다”(53.2%)는 변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음식을 혼자 먹는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응답(41.6%)도 매우 많다. “식사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약간 더 많다. 일터에서 식사와 바깥에서의 식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답에는 일터에서 식사와 바깥에서의 식사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가한 전반적인 식습관의 변화하는 점에서 일터 바깥에서 평소의 하는 식사의 식습관 변화를 상당히 반영하는 결과임에는 분명하다.

<표 3-50>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의 변화

항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계 %
당이 많은 음식을 더 많이 찾는다	53.2	26.0	20.8	100.0
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많이 찾는다	46.0	31.6	22.4	100.0
식사량이 늘었다	29.2	39.6	31.2	100.0
혼자 먹기가 더 많아졌다	41.6	31.2	27.2	100.0
식사를 더 빨리한다	70.0	18.4	11.6	100.0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졌다	36.0	36.4	27.6	100.0
간식을 더 많이 한다	52.0	34.8	13.2	100.0
음식을 손수하는 빈도가 줄었다	42.4	38.4	19.2	100.0

식습관 변화에 대한 8개 항목은 상관도가 매우 높고,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이 .796로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이 8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식습관 변화 “단순 합산 총합 척도”(summated scale)를 구성하여 분석한다.

먼저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 양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식습관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근무형태에서는 교대근무와 시간외 근무에서 식생활의 부정적 변화가 경험한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표 3-51> 참조).

직장에서의 식사양식에서는 직장에서 결식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불규칙

식사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식생활의 부정적 변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식사시간이나 혼밥 여부는 식생활의 변화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직장식사의 형식에 비해서 식사 메뉴가 식생활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중심의 대체식 식사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편의식 식사를 많이 할수록 식생활의 부정적 변화가 크다. 반면 건강식 식사를 할수록 식습관의 부정적 변화 정도가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표 3-51> 직장식사양식과 근무형태별 식습관 변화

항목	동반자		불규칙 식사경험		결식경험	
	혼자	여럿이	있음	거의 없음	있음	거의 없음
점수	3.01	3.95	3.10	2.84	3.19	2.87
검정	t=.456 n.s		t=-3.449 **		t=-4.087 **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점수	3.05	2.97	3.23	2.83	3.05	2.88	3.23	2.90
검정	t=.668 n.s		t=5.230 **		t=2.196 *		t=-3.736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아래의 <표 3-52>는 식습관 변화와 이자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준 변수들로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각 변수가 식습관 변화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세 개의 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모델 1은 직장 결식과 불규칙 식사의 두 가지 요인만 투입한 모델이고, 모델 2는 교대근무와 시간외근무의 근무형태 요인을 포함한 모델이고, 모델 3은 여기에 3가지 메뉴 요인을 포함한 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위의 단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장 결식과 불규칙 식사 경험 모두 식습관 변화에 의미 있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요인 중 결식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모델 2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는 교대근무와 시간외근무는 식습관 변화에 독립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모델 1에서 확인되었던 결식과 불규칙 식사 요인의 독립적 효과는 근무형태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 2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식과 불규칙 식사가 불규칙하고 시간적 압력이 있는 근무형태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요인을 투입한 모델 3의 종합 모델 분석결과는 첫째, 음식 메뉴가 식습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무형태나 결식, 불규칙 식사의 설명력이 16.2%인데 비해서, 음식 메뉴를 포함했을 때의 설명력은 32.7%로 배 정도 증가한다. 그만큼 메뉴가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메뉴 요인을 포함한 이후에도 교대 근무와 시간외근무의 시간에 따른 근무유형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근무유형이 무엇을 먹는가의 내용과는 별개로 식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종합 분석모델에서 직장 결식과 불규칙 식사의 독립적 효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직장 결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주로 무엇을 먹는가의 메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즉 결식이나 불규칙 식사는 이로 인해서 패스트푸드식이나 편의식을 많이 찾게 되고 결국 식습관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적 고리에서 선행적 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3-52> 식습관 변화에 대한 항목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모델1		모델2		모델3				
	b값	β 값	유의도	b값	β 값	유의도	b값	β 값	유의도
직장 결식	.248	.191	.007	.202	.156	.020	-.023	-.017	.784
직장 불규칙 식사	.158	.125	.060	.105	.085	.204	.054	.043	.471
교대근무				.320	.253	.010	.313	.247	.000
시간 외 근무				.235	.164	.006	.249	-.001	.002
대체식 섭취							.305	.167	.000
편의식 섭취							.123	.198	.000
건강식 섭취							-.005	.007	.191
상수	2.812		.000	2.671		.000	2.780		.000
수정 R-square	.068		.000	0.162		.000	.327		.000

- 식습관 변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 직장결식, 직장 불규칙 식사. 교대근무, 시간 외 근무는 해당 범주를 1로, 그 외 범주를 0으로 처리한 더미변수임.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 섭취는 각 식단의 섭취척도의 Z점수임

(2) 먹거리 관련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

여기에서는 식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먹거리에 대한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먹거리에 관한 인지 역량은 먹거리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정보에 대한 지식 혹은 이를 추구하는 태도 영역을 포함한다. 먹거리에 대한 실천 능력은 실제 먹거리를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 먹거리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이를 먹기 행태로 바꾸는 과정에 요구되는 실천적 활동으로 요리행위가 핵심 역량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의 내용과 의의를 구분하고 나아가 기존의 먹거리와 관련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평가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둘러싼 먹거리 환경의 부정적 영향들을 완충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나 식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선택지를 요구하거나,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나름의 대안적 먹기를 추구할 수 있다.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은 각각 아래와 같이 3문항으로 구성하여 문항을 단순 합산하여 총합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실천 역량의 수준이 인지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양상이다(<표 3-53> 참조).

<표 3-53> 먹거리 관련 지식 역량과 실천 역량의 항목별 분포

영역	항목	동의	반반	동의 하지 않음	계 %
실천 능력	나는 조리 할 줄 아는 음식이 많다	20.8	33.3	47.2	100.0
	나는 손수 음식하기를 즐겨한다	14.4	24.0	61.6	100.0
	피곤해도 음식을 챙겨먹는다	32.8	37.6	29.6	100.0
지식 능력	식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할 때 식품표시를 확인한다	42.4	34.4	23.2	100.0
	음식점에서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29.6	36.8	33.6	100.0
	평소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52.8	27.6	19.6	100.0

아래의 <표 3-54>는 먹거리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이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먹거리 관련 실천 역량과 인지 역량 모두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두 역량의 영향의 방향은 상반된다. 즉 실천 역량은 식습관의 부정적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미치는데 비해서, 인지 역량은 부정적 변화와 정적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식습관 변화가 아르바이트 근무자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먹거리 관련 인지 역량으로 직장에서 식사나 먹기에 관심이 많거나 이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식사양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실제 먹거리를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적 노력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발생하는 직장에서의 식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역량이 강화될수록 실제 식습관 변화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5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먹거리 지식능력
과 실행능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식습관 변화	
	b값	유의도
먹거리 관련 실천 역량	-.247	.000
먹거리 관련 인지 역량	.312	.000
상수	2.649	.000
수정 R 제곱	.09	.000

-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적

(3) 식습관 변화의 종합적 분석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바 있는 식습관 관련 요인들로 설명요인을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식습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표 3-55> 참조). 모델 1은 근무형태와 일의 특성의 근무특성 요인들로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식습관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다. 교대근무, 야간근

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일의 속도, 일의 정시성을 설명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모델 2는 직장에서의 식사양식이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한 모델로서 식사시간, 식사동반자, 불규칙 식사 경험율, 직장에서의 식사제공 방식을 설명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모델 3은 통합모델로서 모델 1과 모델 2의 설명요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먼저 모델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근무형태 중에서 교대근무와 계약시간외 근무의 효과가 크며, 일의 특성에서 일의 정시성의 독립적 효과가 유의미하다. 또한 식사시간, 결식, 불규칙 식사 모두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델 3의 결과로는 첫째, 종합모델에서도 먹거리 관련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모델 1과 모델 2에서 발견되었던 설명요인의 독립효과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일부 식사양식 요인의 독립효과는 노동환경 및 먹거리 역량 요인 통제 이후에 약화되고 있다. 불규칙 식사, 식사시간에서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노동환경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 효과로 판단된다. 근무특성 요인에서 교대근무와 계약시간외 근무, 일의 정시성 요인의 효과는 모델 1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식사양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부분 근무특성 요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5> 식습관 변화에 대한 종합적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	모델1 근무특성 : 근무형태와 일의 특성		모델2 식사양식		모델3 종합	
	b값	유의도	b값	유의도	b값	유의도
요인						
교대근무	.335	.000			.336	.000
야간근무	.032	.771			.081	.448
시간 외 근무	.261	.000			.358	.000
휴일근무	-.127	.092			-.048	.540
근무시간	-.002	.678			-.003	.489
일의 속도_빠름	.056	.116			.060	.134
일의 정시성_높음	.081	.007			.080	.020
결식			.181	.050	.202	.018
불규칙 식사			.183	.009	.073	.396
식사시간_30분 미만			.160	.036	.007	.011
식사제공1			.161	.138	.099	.291
식사제공2			-.053	.623	-.003	.969
동반자_혼자			.012	.913	-.123	.220
먹거리 인지 역량					.300	.000
먹거리 실천 역량					-.188	.000
상수	2.401	.000	2.568	.000	1.593	.000
수정 R 제곱	.170	.000	.090	.000	.343	.000

- 식습관 변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 먹거리 인지 역량과 실천역량을 제외한 설명변수는 해당 범주를 1로, 그 외 범주를 0으로 처리한 더미변수임.

9) 아르바이트생의 식습관과 건강

아르바이트생의 건강은 식습관과 식사양식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최종 관심 주제이다.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일과 식습관을 문제 삼은 궁극적 이유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일과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정신, 신체 등 건강의 영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거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비만, 영양,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대상으로 본인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에 대한 설명요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여러 근무의 특성, 그리고 가구와 직장의 식생활과 식사양식의 특성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아르바이트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음주, 흡연, 수면은 특히 먹거리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습관 요인이다.

분석 방법과 절차로는 먼저 아르바이트생의 흡연과 음주 실태와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어서 근무특성 요인, 식생활요인, 생활습관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살펴본 다음, 이들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 모델의 설정하여, 요인의 상대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적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건강 나빠짐”과 “건강 나빠지지 않음”으로 이분화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한다.

(1) 흡연과 음주

아르바이트생의 한 달 동안의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41.6%는 한 달에 2-4번을 마신다고 답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라 답한 아르바이트생이 25.2%, 한 달에 1회 정도 마시는 경우는 14.4%였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시는 아르바이트생이 전체의 2.8%였으며, 한 달에 1회 미만 마시는 경우는 9.2%,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6.8%였다. 즉 한 달에 2번 이상 음주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80%(79.6%)에 이르고 있으며 일주일에 음주를 1번 이상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8.0%이다. 흡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는 아르바이트생이 29.6%였으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6.4%, 피운 적 없다는 64%였다 (<표 3-56> 참조).

〈표 3-56〉 한 달 동안 음주량과 흡연여부

한 달 동안 음주량	비율 %	흡연여부	비율 %
전혀 마시지 않았다	6.8	피움	29.6
한 달에 1회 미만	9.2		
한 달에 1회 정도	14.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에는 피우지 않는다	6.4
한 달에 2-4번	41.6		
일주일에 2-3번 정도	25.2	피운 적 없음	64
일주일에 4번 이상	2.8		
계	100.0	계	100.0

아르바이트생의 음주와 흡연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살펴보자. 먼저 흡연율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의 흡연율이 51.2%로 여성의 흡연율 7.3%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에서 35.4%로 가장 높으며(흡연율: 20~24세 23.6%, 30대 27.1%), 미혼자의 흡연율이 기혼자의 2배 이상이다(미혼자 32.9%, 기혼자 12.12%). 세대형태에서는 1인 가구의 흡연율이 44.0%로 부부가구나 부모동거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부부가구 12.2%, 부모와 동거 가구 28.9%).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45.7%로 가장 높아,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이 아르바이트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음주 정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음주 빈도가 높으며, 기혼자에 비해서 미혼자의 음주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형태나 연령에 따른 음주빈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근무특성별로 흡연율과 음주정도를 비교하면, 근무경력에 따라서 음주빈도와 흡연율의 차이가 눈에 띈다. 3년 이상 경력자의 흡연율이 37.1%로, 3년 미만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10%p 정도 높다(흡연율: 2년 미만 28.2%, 2년 이상 3년 미만, 27%). 3년 이상 경력자가 술도 상대적으로 자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음주자 비율: 경력 2년 미만 22.2%, 2년 이상~3년 미만 30.2%, 3년 이상 45.7%), 근무경력이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에서 흡연과 음주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별 근무형태에서는 흡연율의 차이를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휴일근무자가 비근무자에 비해서 흡연율이 약간 높다(흡연율: 휴일근무자 34.3%, 비근무자 26.2%), 일의 정시성에 따라서 흡연율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일의 정시성이 낮

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흡연율이 높다(흡연율: 일의 정시성 높음 23.9%, 중간 31.3%, 낮음 34.8%). 이 같은 결과는 일의 상시성과 규칙성이 흡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주빈도에서는 야간근무자에서 음주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음주빈도 한 달에 한번 이하: 야간근무자 28.4%, 야간비근무자 28.4%), 단시간 근무자보다 장시간 근무자에서 음주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음주는 흡연과는 다르게 업무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시간적 여유나 동반자 요인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르바이트 이전과 음주와 흡연 빈도를 비교하면(<표 3-57> 참조), 음주의 경우 횟수나 양에 변화 없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지만,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로 늘었다는 응답이 다소 많다. 흡연횟수나 양의 변화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1.2%,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이며, 늘었다는 응답은 8.3%로 음주와 마찬가지로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많다. 또한 음주의 증가와 흡연의 증가 간에는 양적 상관성(단순상관계수 $r=.269$)이 나타나고 있어 양자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7>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음주와 흡연

음주횟수와 양	비율 %	흡연횟수와 양	비율 %
매우 늘었다	0.4	매우 늘었다	0.4
약간 늘었다	22.0	약간 늘었다	8.0
변화 없다	63.2	변화 없다	91.6
약간 줄었다	12.8	약간 줄었다	2.4
매우 줄었다	1.6	매우 줄었다	
계	100.0	계	100.0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음주량과 흡연의 변화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발견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요인에서는 일부 요인에 따라서 음주빈도와 흡연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무경력이 대표적 요인이다. 앞서 분석에서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음주와 흡연율이 증가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근무경력은 음주 빈도와 흡연율 증가와도 일정한 정적 상관성을 보여준다. 경력이 2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 중에 아르바이트 전보다 흡연횟수나 양이 늘었다는 사람이 5.1%에 그치고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에는 9.5%,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1.4%로 경력이 높아질수록 일하기 전보다 흡

연횡수나 양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2년 미만 일한 아르바이트 생중 아르바이트 전보다 음주횡수나 양이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이 15.4%인데 비해서,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자 중에서 아르바이트 전보다 음주횡수나 양이 늘었다고 응답이 31.7%였으며, 3년 이상 경력의 아르바이트 근무자 중에서도 28.6%가 아르바이트 전보다 음주횡수나 양이 늘었다고 응답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의 아르바이트생에서 음주 빈도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근무형태에 따른 흡연율과 음주빈도의 변화는 일부 근무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휴일근무자에서 흡연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흡연증가비율: 휴일근무자 13.3%, 비근무자 4.8%), 다른 근무형태에서 흡연율 변화의 차이는 미미하다. 음주빈도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자가 비근무자에 비해서 음주횡수나 양이 오히려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음주빈도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주 증가와 아르바이트 근무형태간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결과는 잠정적인 일반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비만, 영양불균형 및 건강에 대한 우려

아르바이트 근무 시 식사 때문에 건강과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3-58>이다. 아르바이트 근무 시 식습관으로 비만과 영양 불균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8> 아르바이트 근무가 비만과 영양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항목	우려하고 있음	반반	우려하고 있지 않음	계 %
비만에 대한 우려	47.2	24.0	28.8	100.0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	57.6	26.4	6.0	100.0

앞서 설명한 식습관의 변화에 관한 여러 항목이 비만과 영양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3-59>이다. 비만에 대한 우려는 혼밥의 동반자 효과가 두드러지며, 패스트푸드 음식 증가, 간식 증가의 순으로 식습관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에는 아르바이트 근무로 손수 해먹는 음식이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식사시간의 불규칙, 식사량의 증가, 패스트푸드 음식의 증가가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표 3-59> 비만과 영양불균형에 대한 식습관 항목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항목	비만		영양불균형	
	b값	유의도	b값	유의도
당이 많은 음식을 더 많이 찾는다	.012	.892	.054	.400
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많이 찾는다	.169	.048	.115	.046
식사량이 늘었다	.028	.734	.118	.037
혼자 먹기가 더 많아졌다	.364	.000	-.045	.451
식사를 더 빨리한다	.148	.124	.155	.033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졌다	.000	.998	.152	.011
간식을 더 많이 한다	.144	.089	.126	.051
음식을 손수하는 빈도가 줄었다	-.132	.114	.210	.003
상수	5.277	.000	5.948	.000
수정 R 제곱	15.3	.000	8.31	.000

아르바이트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9.0%,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4.4%, “영향이 없다”는 중립적 응답 59.6%로, 아르바이트 근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 영향에 비해 약간 많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4%이다(<표 3-60> 참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에서,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에서 높다. 근무형태별로는 야간근무자, 시간외근무자, 교대근무자에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다.

아르바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해서 아르바이트가 본인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아르바이트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본인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나빠졌다”는 응답은 12.0%이다. 8할 정도(82%)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아졌다”는 반응은 6.0%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 본 아르바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해서 부정적 평가가 다소 적지만, 긍정적 평가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난 점은 같다.

〈표 3-60〉 아르바이트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근무가 귀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율 %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	비율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9.6	약간 나빠짐	12.0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4	변화 없다	82.0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9.6	약간 좋아짐	4.8
모르겠다	6.4	매우 좋아짐	1.2
계	100.0	계	100.0

아르바이트로 본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평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여주는 않는다. 근무특성에서 아르바이트 경력이 오래된, 3년 이상 경력의 아르바이트생에서 많지만, 근무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일의 특성에서는 시간적 정시성이 높을수록, 일의 속도가 빠를수록 아르바이트 이전보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근무시간별 근무형태별로는 야간근무자가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교대근무자도 건강이 나빠졌다는 반응이 약간 더 많다. 즉 시간적 압박을 많이 느끼는 일을 하고, 오래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스스로 건강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표 3-61> 참조).

〈표 3-61〉 근무특성 요인별 건강 악화

항목	근무경력			일의 속도			일의 정시		
	2년 미만	2년 이상~ 3년미 만	3년 이상	빠름	중간	느림	높음	중간	낮음
비율 %	6.8	7.9	28.6	20.5	10.2	6.7	18.2	12.5	3.0
검정	$\chi^2=14.032$ **			$\chi^2=7.643$ *			$\chi^2=8.235$ *		

항목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있음	하지 않음
비율 %	22.9	10.2	15.2	9.9	9.5	13.8	12.9	11.7
검정	$\chi^2=4.543 *$		$\chi^2=1.542 .10$		$\chi^2=1.051 n,s$		$\chi^2=.064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이번에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직장에서 결식, 불규칙 식사, 혼밥, 식사시간의 효과를 알아보면(<표 3-62> 참조), 식사 시간이 30분 미만의 식사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이 건강에 미친 부정적 평가 의견이 많다. 식사의 공간성도 건강 악화와 관계가 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아르바이트생에서 식당 이외의 일하는 장소나 휴게소,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결식이나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 그리고 혼밥 경험자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약간 많다.

자주 먹는 식사 메뉴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특정 메뉴에서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편의식, 건강식 식단 중에서 편의식을 자주 먹는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 이전에 비해서 건강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패스트푸드나 건강식 메뉴의 섭취 빈도는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음주 증가, 수면 감소, 흡연 증가는 모두 건강 악화와 관계가 있다. 아르바이트 이후 수면이 감소하고, 음주와 흡연이 증가한 아르바이트생에서 건강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 3-62> 식사양식별 건강 변화

항목	건강 나빠짐	건강 나빠지지 않음	검정	
			검정치	유의도
가구 식품미보장율 %	12.0	4.5	$\chi^2=3.593$	*
직장 결식률 %	12.6%	11.7%	$\chi^2=.032$	n.s
직장 불규칙한 식사 %	60.0%	54.5%	$\chi^2=.318$	n.s
직장식사시간_30분 미만 %	19.8	5.8	$\chi^2=9.958$	**
직장식사장소_식당이외 장소 %	76.8	53.4	$\chi^2=5.117$	*

항목	건강 나빠짐	건강 나빠지지 않음	검정	
			검정치	유의도
직장 혼밥 %	30.8	26.4	$\chi^2=.219$	n.s
식습관 변화 척도	2.972	3.083	$t=-1.276$	n.s
패스트푸드식 Z값	-.057	.007	$t=.331$	n.s
편의식 Z값	.592	-.080	$t=3.532$	**
건강식 Z값	.000	.000	$t=.001$	n.s
아르바이트 이후 흡연 증가 %	16.7	7.3	$\chi^2=3.082$.08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 증가 %	36.7	20.5	$\chi^2=3.992$	*
아르바이트 이후 수면 감소 %	63.3	33.3	$\chi^2=10.319$	**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지금까지 분석한 근무특성, 식사양식, 생활습관 관련 요인 중에서 건강악화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구분하고 나아가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요인들을 설명요인으로 설정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63> 참조). 분석 모델은 설명요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모델 1에는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으로, 근무경력, 야간근무, 교대근무, 일의 속도와 정시성 요인으로 설명항목을 구성하였다. 모델 2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요인으로 설명요인을 설정하여, 편의식 메뉴 섭취 빈도, 식사시간, 음주, 흡연, 수면 요인을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 3은 모델 1의 근무환경 요인과 모델 2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요인을 모두 포함한 종합모델이다. 모델에서 종속변인은 건강 나빠짐=1, 건강 나빠지지 않음=0의 이항 변인이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 1의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 악화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경력과 야간근무이다. 근무요인의 효과로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에서 Exp(B)가 5.66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의 장기 근무 아르바이트생은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아르바이트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확률이 5.6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무 요인의 Exp(B) 계수는 3.892로, 야간근무자는 비야간근무자에 비해서 건강 악화로 평가할 확률이 비야간근무자에 비해서 3.4배 증가한다. 단순 이자 분석에서 발견되었던 일의 속도 요인과 정시성 요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무경력이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에서 일의 속도가 빠르고 정시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상대적

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효과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경력 효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관련한 요인들이 건강 악화에 대한 설명력은 11.0%로 근무특성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6개의 설명 요인 중에서 음주 증가 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이 건강 악화에 유의미한 독립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구 식품미보장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가구의 식품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가구 식품미보장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 생활 이후에 건강이 악화될 확률은 4.50배이다. 아르바이트 이후 흡연 증가와 수면 감소에 따라서 역시 건강 악화의 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식사시간이 30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30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건강 악화의 확률이 .27배로 감소하여 짧은 식사시간이 건강 악화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식사 메뉴도 건강 악화에 독립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편의식 메뉴 섭취 정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하면, 건강 악화에 이를 확률이 2.667배이다. 생활습관 요인 중에는 흡연 증가, 수면 감소가 건강 악화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델 1과 모델 2를 모두 포함한 종합모델 3에서 설명요인들의 설명력은 15.8로 증가하고 있다. 모델 1과 모델 3에서 유의미했던 일부 요인들의 설명력이 감소하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무요인에서 야간근무, 생활습관요인, 그리고 메뉴 요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는 근무특성 요인과 식생활 요인들의 효과가 결합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모델 3의 종합 모델에서 근무경력의 효과는 약간 감소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건강 악화에 강한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으며, 식생활 요인에서는 가구의 식품미보장 상황과 짧은 식사시간의 효과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이들 요인은 근무요인과는 별도로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는 식사양식의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63〉 건강 악화에 대한 근무특성 요인, 식생활 요인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델1			모델2			모델3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근무경력 3년 이상	1.715*	11.250	5.559				1.261*	4.567	3.529
야간근무	1.359*	5.239	3.892				.433	.445	1.542
교대근무	.416	.691	1.516				.380	.451	1.463
일의 속도 빠름	.801	1.854	2.229				.782	1.354	2.186
일의 정시성 높음	.416	2.065	2.135				.429	.543	1.526
식사시간 30분 이상				-1.285*	6.091	.277	-1.169*	3.344	.311
편의식 섭취				.421*	4.433	1.523	.304	1.581	1.356
가구 식품미보장				2.409*	3.247	4.505	2.500*	3.363	4.183
아르바이트 이후 흡연 증가				.981*	2.160	2.667	.709	.742	2.032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 증가				.084	.022	1.087	-.444	.380	.642
아르바이트 이후 수면 감소				.812*	2.907	2.253	.698	1.573	2.010
예측성공률	90.2			88.2			90.6		
-2Log Likelihood	124.714			131.848			102.830		
Model χ^2	21.549 p=.000			23.809			31.109		
Cox와 Snell R^2	.095			.110			.158		

** p<.01, * p<.05, 종속변수 1=건강악화, 0=건강 비악화, 독립변수로 투입한 설명변수는 편의식 섭취를 제외하고 모두 각 변수의 범주를 1로, 그 이외의 변수를 0으로 처리한 더미변수임, 편의식 섭취는 편의식 섭취척도의 Z점수임

10)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일과 생활은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과 어떻게 다른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일하는 동기가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동기를 우선시 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하는 일에서 비생계형과는 비교되는 상당한 내적 분화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식생활과 식사양식에서도 비생계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 식생활이 또 다른 분화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있어서 이들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다음, 지금까지 분석한 주제를 대상으로 식생활과 식사양식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을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형편에서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을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전체 응답자 중 생계형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34.8%, 비생계형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65.2%로 본 연구대상 집단에서 비생계형은 생계형의 거의 2배 정도이다.

먼저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해보자(<표 3-64> 참조). 성별과 혼인상태별 분포는 거의 비슷하고, 생계형에서 30대의 비율이 다소 높다(30대 비율: 생계형 44.8%, 비생계형 35.0%).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세대형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계형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1인 가구 비율: 생계형 35.6%, 비생계형 11.7%), 부모동거 가구의 비율이 낮다.

예상대로 경제적 형편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훨씬 열악하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평균 가구소득에서 120만원 정도 낮고(가구 월 평균소득: 생계형 296만원, 비생계형 417만원),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생계형의 비율이 높게 증가한다(가구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생계형 31.0%, 비생계형 11.7%). 교육수준에서도 비생계형에 비해서 생계형의 교육수준이 약간 낮다(대졸자 비율: 생계형 49.4%, 비생계형 61.3%)

<표 3-64>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항목	범주	생계형 %	비생계형 %	검정
성	남자	55.2	44.8	$\chi^2=1.021$ n.s
	여자	48.5	51.5	
	계	100.0	100.0	
연령	20대 초반	23.0	21.5	$\chi^2=3.348$ n.s
	20대 중반	32.2	43.6	
	30대	44.8	35.0	
	계	100.0	100.0	
혼인상태	미혼	84.9	82.7	$\chi^2=.191$ n.s
	기혼	15.1	17.3	
	계	100.0	100.0	
세대형태	1인 가구	35.6	11.7	$\chi^2=29.856$ **
	부부가족	14.9	17.2	
	부모와 동거	34.5	64.6	
	기타	14.9	6.7	
	계	100.0	100.0	
교육수준	고졸	25.3	15.3	$\chi^2=4.489$ *
	대학 재학 휴학	25.3	23.3	
	대졸 이상	49.4	61.3	
	계	100.0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1.0	11.7	$\chi^2=33.421$ **
	200만원~400만원 미만	40.2	26.4	
	400만원~500만원 미만	20.7	24.5	
	500만원 이상	8.0	37.4	
	계	100.0	100.0	
계		34.8	65.2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아르바이트 근무 특성을 비교해 보면(<표 3-65> 참조),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비생계형보다 3.5시간 더 일을 하고 있으며(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생계형 31.6시간, 비생계형 28.1시간),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에서 생계형은 주급 기준 261,064원을 받고 있어, 비생계형의 212,538원에 비해서 일주일에 5만원 정도 더 벌고 있다. 또한 생계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의 비율이 높아 더 오랜 기간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별 근무유형에서는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다(생계형 아르바이트생 중 야간근무자 24.1%, 휴일근무자 57.5%). 생계형 아르바이트에서 야간과 휴일 근무가 많은 것은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리한 근무조건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표 3-65>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특성

항목	범주	생계형 %	비생계형 %	비고
경력	2년 미만	49.1	42.5	$\chi^2=1.559$
	2년 이상~3년 미만	23.3	28.7	
	3년 이상	27.6	29.8	
	계	100.0	100.0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17.2	12.9	$\chi^2=18.019$
	16~35시간 이하	37.9	65.0	
	36시간 이상	44.8	22.1	
	계	100.0	100.0	
주급	평균, 단위 원	261.064	212.538	
교대근무	근무함	29.9	44.8	$\chi^2=5.205$ *
	근무안함	70.1	55.2	
	계	100.0	100.0	
야간근무	근무함	24.1	8.6	$\chi^2=11.391$ **
	근무안함	75.9	91.4	
	계	100.0	100.0	
휴일근무	근무함	57.5	33.7	$\chi^2=19.111$ **
	근무안함	42.5	66.3	
	계	100.0	100.0	
시간 외 근무	근무함	27.6	23.3	$\chi^2=.555$ n,s
	근무안함	72.4	76.7	
	계	100.0	100.0	
계		34.8	65.2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2) 식생활 비교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식생활 및 식사양식을 비교하면(<표 3-66> 참조), 먼저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을 차이가 눈에 띈다. 비생계 아르바

이트생의 미보장율은 1.2%에 그치는데 비해서, 생계형은 12.6%로 월등히 높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식품보장의 어려움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 거의 10배 높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미보장율은 아르바이트생 내부에 식품 형편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분화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식품보장을 논의할 때, 아르바이트 근무자 전체의 일반적 특성이나 이들의 평균적 특성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특별한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미보장의 하위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결식률에서 두 집단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하루 전체 결식률의 경우, 생계형은 하루 .84끼니를 결식하는데 비해서 비생계형은 .61끼니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23끼를 더 결식하고 있다. 두 집단 간 결식률의 차이는 아침식사의 결식률 격차에서 발생한 것이다. 직장식사 결식률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계형이 비생계형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생계형 39.1%, 비생계형 33.1%) 결식률의 격차는 직장 바깥의 식사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시간, 식사 장소 및 식사 동반형태에서는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표 3-66〉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양식

항목	생계형	비생계형	검정	유의도
하루 결식률(끼니)	.84	.61	t=-4.189	**
일주일 평균 아침 결식 일수	4.47	2.90	t=-5.392	**
일주일 평균 점심 결식 일수	.74	.62	t=.913	n.s
일주일 평균 저녁 결식 일수	.69	.74	t=.451	n.s
가구 식품미보장율 %	12.8	1.2	$\chi^2=14.998$	**
직장 결식률 %	39.1	33.1	$\chi^2=.881$	n.s
직장 불규칙 식사율 %	55.2	55.2	$\chi^2=.000$	n.s
직장식사장소_식당외의 %	50.5	60.5	$\chi^2=2.713$	n.s
직장식사 시간 30분 미만 %	46.3	51.6	$\chi^2=.559$	n.s
직장에서 혼밥율	23.8	29.0	$\chi^2=.689$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무엇을 먹는가의 메뉴 유형과 메뉴 속성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비생계형에

비해서 포만감 있는 음식의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편의식 음식을 더 자주 먹는 반면, 건강식을 덜 먹고 있다(<표 3-67> 참조). 즉 음식의 내용에 있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양을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편의적 식사가 많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 근무가 식습관과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비생계형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생계형에서 더 많다.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67> 생계형과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음식 메뉴, 식습관 및 건강 변화 비교

항목	생계형	비생계형	검정	유의도
포만감 음식 선호 비율 %	12.5	2.4	$\chi^2=8.54$	*
대체식 Z값	.000	.000	t=.006	n.s
편의식 Z값	.286	-.152	t=-.3.276	**
건강식 Z값	.064	-.034	t=-.740	*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	3.10	2.92	t=-2.530	*
아르바이트로 건강 나빠진 비율 %	14.9	10.4	$\chi^2=1.094$.199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 증가 %	31.0	17.8	$\chi^2=5.723$	*
아르바이트 이후 흡연 증가 %	6.9	9.2	$\chi^2=.392$	n.s
아르바이트 이후 수면 감소 %	39.1	35.6	$\chi^2=.298$	n.s

** p<.01, * p<.05, n.s : not significant

IV. 결론: 요약 및 정책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 실태를 아르바이트생 특유의 근무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외적 요인의 상호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식사양식을 식사의 형식과 내용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직장식사를 중심으로 일터 바깥의 평상시 식생활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정리하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1.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발견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식사는 장소의 공간성, 누구와 같이 하는가의 관계성, 빈도와 지속의 시간성에서 적지 않은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 아르바이트생이 직장에서 하는 식사는 장소의 공간성, 누구와 같이 하는가의 관계성, 빈도와 지속성의 시간성에서 적지 않은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정도는 30분 이하의 짧은 식사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30%에 그치고 있다. 1/3정도는 일주일에 최소한번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일주일이 한번 이상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불규칙한 식사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이 절반을 넘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생에서 “비정상적 식사(gastro-anomie)”가 일상화되는 양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또한 식사장소로 식당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식당을 이용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많으며, 작업장에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이 일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이른다. 3할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에서 주로 혼자서 밥을 먹는다. 부족한 식사시간, 식당이 아닌 곳에서의 편의적 식사, 잦은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혼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

정적인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혼밥은 개성추구의 개인화 양식이라기보다는 근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먹기 행동이다.

□ 혼밥을 “개인화된” 식사양식으로써 개성 추구의 문화 양식으로 바라보는 적극적 시각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혼밥은 교대근무자와 같이 시간적 압박이 강한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식사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식사제공 방식, 식사 동반자와 별도의 독립된 식사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먹기 행동이다. 직장 혼밥이 평상시 혼밥과의 상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혼밥이 오랜 기간 반복된다면, 일터 바깥에서도 혼밥이 습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식사시간의 부족은 동반자가 없이 혼자서 식사하고, 식당이 아닌 곳을 이용하고, 야간 근무자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 식당식사의 평균 식사시간은 46.6분, 식당 이외 장소에서의 평균 식사시간은 33.5분으로 두 장소 간 식사시간의 격차는 매우 크다. 또한 혼자 먹는 식사와 동료와 같이 먹는 식사동반 형태별 식사시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혼자 먹는 식사의 식사시간은 28.36분, 같이 먹는 식사의 식사시간은 43.26분으로 같이 먹을 때 식사시간이 약 15분 정도 길다. 주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식사시간이 41.47분인데 비해서 야간근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식사시간은 28.08분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13분 정도 짧다.

아르바이트생의 아침 결식률은 근무시간별 근무형태로부터 영향이 크다.

□ 아르바이트생의 결식률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인데, 아침 결식률이 특히 높다. 이는 미혼, 20대 초반, 그리고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특성 중에서는 근무시간별 근무형태에 따른 결식률 격차가 발견되었으며, 휴일, 야간, 시간외 근무

무자의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형태가 결식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효과에 비해서 강하다.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식사에서도 높은 결식을 경험하고 있어 가구의 식품불안정이 직장식사로 연결되고 있다.

□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가구차원의 식품보장을 확보한 상태가 94.2%이며,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불안정성 초기 단계가 4.0%,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불안정성 중간 단계가 1.2%로 식품미보장율은 5.2%이다.

□ 식품미보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형편으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근무자에서 미보장율이 21.7%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미보장율도 20.0%로 매우 높다. 근무시간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에서 미보장상태가 많으며, 야간과 휴일 근무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가구 차원에서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식사에서도 높은 결식을 경험하고 있다. 가구 차원에서 식사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르바이트 생활과 결합할 때, 직장에서도 역시 식품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르바이트생 직장식사의 메뉴와 식단은 식사양식의 형식, 근무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1인 가구나 저소득층, 시간 압박이 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빨리 먹을 수 음식을 선호하고, 편의식 식단을 자주 찾고, 건강식의 섭취가 감소한다. 편의와 속도를 강조하고, 건강식의 비중이 낮은 식단은 불안정한 식사 형식과 강한 연관성이 보여준다.

□ 직장식사의 음식 선택에서 빨리 먹는 음식과 포만감 있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식사의 식단은 메뉴별 섭취빈도의 패턴에 따라서 대체식, 편의식, 건강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1인 가구와 미혼자는 편의식 메뉴를 가장 자주 섭취하고, 건강식 메뉴를 가장 덜 먹으며, 부부가구와 기혼자는 건강식 식단의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편의식 메뉴의 섭취가 많은 반면, 건강식 메뉴의 섭취는 크게 떨어진다. 가구의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직장에서도 대체식과 편의식을 자주 먹지만, 건강식은 덜 먹고 있다.

□ 근무특성별로는 시간외 근무자에서 대체식 섭취가 높지만, 건강식 섭취 빈도는 낮다. 교대근무자 역시 건강식 섭취 빈도가 낮다. 특히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간외 근무자는 과일의 낮은 섭취가 두드러진다.

□ 식사 형식도 메뉴와 식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사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결식률과 불규칙 식사가 많을수록 빨리 먹을 수 있고 포만감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 혼밥을 하고,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할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찾는다. 또한 결식과 불규칙 식사를 자주할 때, 그리고 식사시간이 부족할 때 대체식을 더 많이 찾는다. 반면 혼밥을 하고, 식사시간이 적을수록 건강식 섭취가 떨어진다.

아르바이트 생활 이후, 식습관의 부정적 변화를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정한 식습관과 이를 야기하는 근무형태에서 주로 기인한다.

□ 아르바이트 생활 이후, 라면 등 즉석 조리식, 떡볶이/튀김, 빵,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순서로 섭취가 증가했으며, 야채, 과일, 밥은 감소 비율이 높는데 특히 과일은 아르바이트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먹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이후에 음식 먹는 속도가 빨라졌고, 간식 회수가 증가였으며, 당의 섭취도 증가했다. 또한 음식을 혼자 먹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등 부정적 변화 양상이 두드러진다.

□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한 일터에서 경험하는 빈번한 결식과 불규칙 식사, 교대근무와 시간외근무의 근무형태, 대체식과 편의식 식단의 빈번한 섭취가 식생활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평소 먹거리에 대한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은 아르바이트 생활이 식습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 아르바이트 생활이 미치는 식습관의 부정적 영향에도, 먹거리 역량이 양자간의 부정적 연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지 역량이 먹거리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요인이라면, 실천 역량은 노동환경이 식습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행동요인으로 적극적 요인이다.

아르바이트 생활 이후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의견이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와 흡연 증가의 생활 습관적 요인과 혼밥, 편의식 위주 식습관, 그리고 가구 차원의 취약한 식품보장상태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래 일을 하고 시간 압박이 높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서 이 같은 양상이 많이 발견된다.

□ 아르바이트 근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19.0%)가 더 많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4.4%,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해서 실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12.0%, “건강이 좋아졌다”는 반응은 6.0%이다.

□ 아르바이트 경력이 오래된 경력의 아르바이트생에서, 일의 시간적 정시성이 높을수록, 일의 속도가 빠를수록, 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 즉 시간적 압박을 많이 느끼는 일을 하고, 오래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스스로 건강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또한 아르바이트 이후 수면 감소, 음주와 흡연이 증가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편의식 식단을 더 많이 찾고, 식사시간이 짧고, 혼밥을 하고, 식당 이외의 곳에서 식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자신의 건강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 상태에서 경제적 곤란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일수록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특히 근무기간, 식품미보장, 짧은 식사시간이 야간근무, 생활습관요인, 그리고 메뉴 요인의 상대적으로 강한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와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인구사회학적 분화는 주로 경제적 요인과 세대형태의 두 요인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더 오랜 시간일은 하고, 야간 근무와 휴일근무에 더 많이 종사한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하고 취약한 식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 세대형태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1인 가구 비율이 비생계형보다 3배 정도 많고 부모와 동거 가구의 비율이 낮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평균 가구소득은 120만원 정도 적고,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은 비생계형의 3배에 이른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비생계형보다 일주일에 3.5시간 더 일을 하고 있으며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지속하고 있다. 근무유형에서 야간근무자와 휴일근무자에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다

□ 생계형은 비생계형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미보장 상태에 있는 비율이 10배 정도이며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일반 식사에서 훨씬 많은 결식을 경험하고 있다. 비생계형에 비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포만감 있는 음식의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편의식 음식을 더 자주 먹는 반면, 건강식을 덜 먹고 있어 식사의 질적 격차가 크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 근무가 식습관과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비생계형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르바이트 이후 음주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

2. 정책적 함의와 과제

1) 새로운 먹거리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노동세대

기존의 먹거리 정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주요 대상 집단은 어르신이나 모자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식생활은 먹거리 보장과 안정성에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직업준비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압박으로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취하기 힘들다.

기실, 우리가 살펴 본 아르바이트생의 식생활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일반 청년세대의 식생활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준비와 학업으로 시간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 지연됨으로써 상당 기간을 미혼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형태의 20, 30대 미혼자는 이 같은 상황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생애주기적 맥락에서 10대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육제도의 지원으로 먹거리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면, 20대 청년세대는 먹거리의 측면에서 가정과 직장으로부터의 제도적 지원이 그친 상태에서 스스로 챙겨서 먹어야 하는 최초의 시기에 들어섰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청년세대들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하여 20, 30대,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도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푸드뱅크 등과 같이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청년세대 스스로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먹거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불안정한 직장식사에 대한 대응

앞에서 분석한 주제마다 인과성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지만, 직장식사의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이 서로 결합하여 식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르바이트생의 직장에서 식사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혼밥, 짧은 식사시간은 식사의 불안정성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식사양식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직장식사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한 개선과 보장이 요구된다.

세 가지 식사양식 요소가 결합되어 먹거리의 불안정성을 낳고 있다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역으로 긍정적 측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나의 요소의 변화와 개선만으로도 긍정적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식사시간의 확보를 핵심적 유발요인(trigger cause)으로 판단한다. 식당

시설의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개인사업장과 같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도 시설 확보에는 장애요인이 많다. 따라서 작업 안에서의 식사보다는 일터 바깥의 식당을 이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최저 식사시간의 확보는 모든 노동활동에서 식사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청년세대의 먹거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중심 활동

아르바이트로 인한 식습관의 부정적 변화나 건강의 악화 문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상황과 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나 몇 가지 행위론적 요인들이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우리의 분석에서 먹거리에 대한 인지 역량과 실천 역량이 식습관의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지 역량이 먹거리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요인이라면, 실천 역량은 노동환경이 식습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환경의 개선과 함께 먹거리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먹거리 시민교육이 주로 지식이나 흥미 위주의 내용이었다면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먹거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의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조직화되고 있는 “마을부엌”이나 “공유식당”과 같은 먹거리 공동체 모델을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을부엌은 지역사회의 성원들이 공동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는 새로운 먹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서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비롯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여러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먹거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된다.

기존 사업이 여성, 기혼자 중심의 자조적 활동과 아동이나 어르신께 먹거리를 제공하는 복지적 활동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이와 함께 청년, 1인 가구, 남성 중심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4) 가구 차원의 식품보장 확보

지금까지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의 가구 차원의 식품미보장은

가정 식사와 같은 일터 바깥의 먹거리 불안정성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구 차원에서 식품미보장 상태는 직장식사의 높은 결식과 같이 부실한 직장식사로 연결되며,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생계형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낮지 않은 비율이 식품미보장의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아르바이트 생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식품미보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식생활의 악화와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먹거리 한계상황에 처한 인구는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일종의 “근로 먹거리 빈곤층”(Working Food Poor)으로서 이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들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먹거리 복지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행정조사를 비롯한 조사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람·김미경. 2009. “식품 보장 측정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2(4): 374-385.
- 김선업·김홍주·정혜경. 2016. “한국사회 음식문화의 현대적 전개”. 《사회사상과 문화》. 19(2): 195-231.
- 김소화. 2018. 「한국 직장인의 식사구조 특성: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명·강복희. 2014. “간호사들의 교대근무가 식행동 및 건강관련요인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7(5): 416-425.
- 이승림·김수진. 2013. “커피전문점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련요인과 영양상태 조사: 서울지역 20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8(5): 467-477.
- 임지숙·허영란·정은·이재준. 2016. “광주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9(6): 495-505.
- 조미양·한태선. 2014.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과 그 외 음식관련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생의 식습관,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 및 섭취 빈도 비교”.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7(3): 206-213.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원자료」.
- Fischler, Claude. 1988. “Food, Self and Identity.” *Social Science Information*. 27: 275-293.
- Holm, L. 2013. “Sociology of Food Consumption”. in Anne Murcott, Warren Belasco and Peter Jackson (eds). *The Handbook of Food Reserach*. pp. 324-337. Bloomsbury.
- Lowden, A., C. Moreno, U. Holmbiick, M. Lennernas and P. Tucker. 2010. “Eating and shift work - effects on habits, metabolism, and performance”. *Scand J Work Environ Health*. 36(2): 150-162.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6. “Food insecurity and hunger in the United States: An assessment of the measure. Panel to Review U.S. Department of

- Agriculture's Measurement of Food Insecurity and Hunger", Wunderlich GS, Norwood JL, editors,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Nyberg, Maria and Tenna Doktor Olsen. 2010. "Meals at work: integrating social and architectur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t*. 3(3): 222-232.
- Populain, J. P. 2002. "The Contemporary Diet in France: 'De-structuration' or from Commensalism to 'Vagabond Feeding'." *Appetite*. 1: 43-55.
- Rotenberg. R. 1981. "The Impact of Industrialization on Meal Patterns in Vienna, Austria." *Ecology of Food and Nutrition*. 11(1): 25-35.
- Raulio, Susanna, Eva Roos and Ritva Prättäl. 2010. "School and workplace meals promote healthy food habits." *Public Health Nutrition*. 13(6A): 987-992.
- Warde, Allan, Shu-Li Cheng, Wendy Olsen and Dale Southerton. 2007. "Changes in the Practice of Ea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ime-Use." *Acta Sociologica*. 50: 363-385.

부록 1. 설문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식습관을 위한 실태조사		ID				
<p>안녕하십니까?</p> <p>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p> <p>서울노동권익센터는 <u>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과 일과 식습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u>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u>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일과 식습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u>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p> <p>번거로우시겠지만 서울시 정책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관한 모든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며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p> <p>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10월</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센터장 드림</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 조사담당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이 철 팀장 (070-4610-2586, clee@labors.or.kr)</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노동권익센터</p> <p>www.labors.or.kr 02-6925-4349 무료노동법률상담 02-376-0001</p> </div>						
조사일시		조사지역	()구			
		조 사 원				

A. 현재 하고 계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몇 개 입니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이상

문 2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전에 근무한 모든 아르바이트 경력을 말합니다)

만 ()년 ()개월

문 3 현재 귀하가 하시는 아르바이트의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일 수,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 휴일 근무 유무 및 일주일 중 근무시간, 야간근무 유무 및 근무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아르바이트를 두 개 하고 계신다면 일하는 시간 순서대로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 2(세 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긴 아르바이트 2개)에 각각 해당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문 3-1. 일주일 중 근무일수	문 3-2.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	문 3-3. 휴일(토요일/일요일)근무 유무 및 일주일 중 근무시간	문 3-4. 야간근무* 유무 및 시간
아르바이트 1	7일 중 ()일	()시간	① 휴일에 근무하지 않음 ② 휴일에 근무함 → 일주일 총 () 시간 근무	① 야간에 근무하지 않음 ② 야간에 근무함 → 일주일 총 () 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2	7일 중 ()일	()시간	① 휴일에 근무하지 않음 ② 휴일에 근무함 → 일주일 총 () 시간 근무	① 야간에 근무하지 않음 ② 야간에 근무함 → 일주일 총 () 시간 근무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 이후~오전 6시 이전)

문 4 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은 다음 중 어느 업종에 속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 4-1 아르바이트 1 () **문 4-2** 아르바이트 2 ()

- ① 음식점 ② 패스트푸드 ③ 카페 ④ 베이커리 ⑤ 레스토랑 ⑥ 아이스크림 가게
⑦ 생과일주스 ⑧ 패밀리 레스토랑 ⑨ 사무보조 ⑩ 자료입력, 문서작성 ⑪ 고객상담
⑫ 경리, 회계, 총무 ⑬ 대형마트 ⑭ 백화점 ⑮ 편의점 ⑯ PC 방
⑰ 배달 ⑱ 기타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적어주세요.)

문 5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문 5-1. 사장을 제외한 하루 평균 일하는 직원수 (아르바이트 포함)	문 5-2. 개인사업장/ 프랜차이즈	문 5-3. 사업장에서 실 수 있는 별도 휴게공간 유무
아르바이트 1	() 명	① 개인사업장 ② 프랜차이즈(직영점) ③ 프랜차이즈(가맹점) ④ 해당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아르바이트 2	() 명	① 개인사업장 ② 프랜차이즈(직영점) ③ 프랜차이즈(가맹점) ④ 해당없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6 귀하의 근무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문항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 2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6-1. 매일 근무시간 양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①	②
6-2. 매주 근무 일수가 다르다	①	②	①	②
6-3. 매주 근무시간대가 다르다	①	②	①	②
6-4.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①	②
6-5. 대기근무(호출을 받으면 바로 와서 업무를 수행)를 한다	①	②	①	②
6-6. 교대근무를 한다	①	②	①	②
6-7. 계약시간 외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①	②
6-8. 근무시간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①	②	①	②

문 7 아래 중 귀하의 아르바이트 업무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문항 (7-1~7-4)	근무 시간 대부분	근무 시간 3/4정도	근무 시간 절반정도	근무 시간 1/4정도	거의 없음
아르바이트 1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①	②	③	④	⑤
	시간에 엄격하게 맞춰 일함	①	②	③	④	⑤
아르바이트 2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	①	②	③	④	⑤
	시간에 엄격하게 맞춰 일함	①	②	③	④	⑤

문 8 현재 일하는 일자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에서 하나만 선택하되 실수령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임금방식	해당여부 표시	액수					
아르바이트 1	월 급		월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만원					
	일당제		일당 _____ 원					
	주급제/격주제		주당 평균 _____ 원					
위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받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시급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만 원						
아르바이트 2	월 급		월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만원					
	일당제		일당 _____ 원					
	주급제/격주제		주당 평균 _____ 원					
위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받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시급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만 원						

문 9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② 생활비에 도움을 주려고 ③ 학비를 벌기 위해서
 ④ 용돈을 벌기 위해서 ⑤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하려고 ⑥ 여행 등 특별히 쓸 일이 있어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문 10 만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제적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생활이 매우 어렵다 ②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③ 생활이 약간 어렵다 ④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문 11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1.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①	②	③	④	⑤
11-2.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1-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①	②	③	④	⑤
11-4.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11-5.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6.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1-7.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11-8.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1-9.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1-10. 근무시간을 신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문 12 귀하의 아르바이트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까?

12-1. 국민연금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2-2. 국민건강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2-3. 고용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2-4. 산재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2-5. 3.3%의 사업소득세	① 내고 있다 ② 내고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3 귀하의 고용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정확히 1년 ③ 1년 초과 2년 미만 ④ 2년 이상
⑤ 정해져 있지 않음(→ 문 15번으로 이동)

문 14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의 계약관계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 ① 보통 재계약을 한다 ② 보통 계약이 해지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15 귀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고용안정(고용불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대체로 동의하 지 않음	전혀 동의하 지 않음
15-1. 현재의 일자리는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2.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5-3.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미래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은 평소 하는 식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6 최근 한 달 동안의 식사 빈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6-1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아침 식사를 1주일에 평균 몇 회 하셨습니까?

- ① 한 번도 하지 않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문 16-2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점심 식사를 1주일에 평균 몇 회 하셨습니까?

- ① 한 번도 하지 않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문 16-3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저녁 식사를 1주일에 평균 몇 회 하셨습니까?

- ① 한 번도 하지 않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문 17 다음은 식사 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문 17-1 최근 한 달 동안 아침 식사를 할 때, 대체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7-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17-2번으로 이동)
③ 해당 없음 (→ 문 17-2번으로 이동)

문 17-1-1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① 가족 ② 가족 외

문 17-2 최근 한 달 동안 점심 식사를 할 때, 대체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7-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17-3번으로 이동)
③ 해당 없음 (→ 문 17-3번으로 이동)

문 17-2-1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① 가족 ② 가족 외

문 17-3 최근 한 달 동안 저녁 식사를 할 때, 대체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7-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18번으로 이동)
③ 해당 없음 (→ 문 18번으로 이동)

문 17-3-1 대체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① 가족 ② 가족 외

문 18 지난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의 매식(배달음식, 포장음식, 직장에서 제공한 음식 등)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하루 2회 이상 ② 하루 1회 ③ 주 5~6회 ④ 주 3~4회
⑤ 주 1~2회 ⑥ 월 1~3회 ⑦ 거의 안한다(월 1회 미만)

문 19 지난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식사를 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하루 2회 이상 ② 하루 1회 ③ 주 5~6회 ④ 주 3~4회
⑤ 주 1~2회 ⑥ 월 1~3회 ⑦ 거의 안한다(월 1회 미만)

문 20 가정에서 하시는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본인이나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② 배달음식이나 간편한 즉석조리 음식을 먹는다
③ 반반이다

문 21 아래는 음식이나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21-1. 나는 조리할 줄 아는 음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2. 나는 손수 음식하기를 즐겨한다	①	②	③	④	⑤
21-3. 피곤해도 음식을 챙겨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1-4. 평소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5. 식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할 때 식품표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6. 음식점에서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7. 어렸을 때 가정에서 손수해 준 음식보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다	①	②	③	④	⑤
21-8. 맵고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1-9. 음식을 선택할 때 맛보다 영양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게시간과 식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2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아르바이트 1	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하라서 휴게시간이 없음 ②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매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③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으나 근무공간을 떠나 쉴 수 없음 ④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매장이 바빠서 쉬기가 쉽지 않음 ⑤ 휴게시간이 없음 ⑥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지만, 매장 상황에 따라 눈치껏 쉴 수 있음
아르바이트 2	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이하라서 휴게시간이 없음 ②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매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③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으나 근무공간을 떠나 쉴 수 없음 ④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매장이 바빠서 쉬기가 쉽지 않음 ⑤ 휴게시간이 없음 ⑥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지만, 매장 상황에 따라 눈치껏 쉴 수 있음

문 30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많이 고려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 30-1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문 30-2**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② 맛 ③ 영양 ④ 안전한 음식 ⑤ 가격
 ⑥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⑦ 제조회사 ⑧ 성분이나 첨가물

문 31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르바이트 중 가장 많이 드신 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드신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 31-1 가장 많이 먹은 음식 () **문 31-2** 그 다음으로 많이 먹은 음식 ()

- ① 즉석조리식품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 등) ②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등) ③ 치킨
 ④ 빵, 과자 ⑤ 과일, 샐러드 ⑥ 집에서 조리한 음식
 ⑦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 ⑧ 기타 ()

문 32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음식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 ① 그렇다 (→ 문 32-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 33으로 이동)

문 32-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하실 때 일터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이용하십니까?

- ① 거의 그렇다 ②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D. 다음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33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아르바이트 근무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제 때하지 못한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루에 두번 이상	하루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3~4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 한번 정도	거의 경험없음
33-1. 식사를 거른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33-2. 식사를 제 때에 못한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문 34 식사를 거르거나 재 때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 34-1 가장 대표적인 이유 () **문 34-2**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유 ()

- ① 일이 바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②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 ③ 먹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④ 혼자 먹기 싫어서
- ⑤ 일로 인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⑥ 메뉴가 마땅치 않아서
- ⑧ 돈을 아끼려고 ⑨ 기타
- ⑩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한 경험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문 35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식생활과 관련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 35-1 식사하는 시간

- ① 비슷하거나 더 늘었다 ② 약간 줄었다 ③ 많이 줄었다

문 35-2 식사 시간의 규칙성(제 시간에 하는 식사)

- ① 비슷하거나 더 규칙적이다 ② 약간 더 불규칙하다 ③ 많이 더 불규칙하다

문 35-3 식사를 거르는 횟수

- ① 비슷하거나 덜 거른다 ② 약간 더 거른다 ③ 많이 더 거른다

문 36 귀하는 현재 다음과 같은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음식별로 각각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먹는 빈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매일	이틀 한번	3~4 일에 한번	일주 일에 한번	한달에 한두 번	거의 먹지 않음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36-1. 편의점 도시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2. 편의점 삼각김밥/김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3. 과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4. 과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5. 떡볶이/튀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6. 라면 등 즉석조리식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7. 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8. 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먹는 빈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매일	이틀 한번	3~4 일에 한번	일주 일에 한번	한달에 한두 번	거의 먹지 않음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36-9. 야채/샐러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10. 빵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36-11. 인스턴트 커피나 탄산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문 37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하는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1. 평소보다 음식을 더 빨리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7-2. 스트레스로 자주 음식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7-3.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찾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7-4. 일하는 중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7-5. 한 번에 음식을 몰아서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7-6. 이전보다 간식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7. 먹는 음식이 안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7-8. 살이 쪼개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7-9.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7-10. 매번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38 아르바이트 근무 이후 식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터 바깥”에서 하는 평소 식사를 대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38-1. 일터 바깥에서, 당이 많은 음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8-2. “ ”, 패스트푸드 음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8-3. “ ”, 식사량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38-4. “ ”, 혼자서 먹기가 이전보다 더 익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38-5. " " , 바쁘지 않아도 이전보다 식사를 더 빨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8-6. " " , 식사 시간이 이전보다 더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38-7. " " , 간식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8. " " , 음식을 손수 차려 먹는 빈도가 이전보다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① 전혀 마시지 않았다
- ② 한 달에 1회 미만
- ③ 한 달에 1회 정도
- ④ 한 달에 2~4번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문 40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움 (→ 문40-1로 이동)
-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③ 피운 적 없음

문 40-1 하루 평균 담배를 얼마나 피십니까?

하루 평균 개 피

문 41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다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응답해주시십시오.

내용	매우 줄었다	약간 줄었다	변화없다	약간 늘었다	매우 늘었다
41-1. 음주횟수나 양	①	②	③	④	⑤
41-2. 흡연횟수나 양	①	②	③	④	⑤
41-3. 수면시간	①	②	③	④	⑤

E. 다음은 귀댁의 식생활 형편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댁의 가구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인가구의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답해 주십시오.

문 42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문 43 최근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전혀 그런 적이 없다 ④ 모름/응답거부

문 44 최근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질까 봐 걱정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전혀 그런 적이 없다 ④ 모름/응답거부

문 45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전혀 그런 적이 없다 ④ 모름/응답거부

※ 위의 43~45문항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 자주 그랬다' 또는 '② 가끔 그랬다'에 표시했다면 [문 46] 문항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 51]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문 46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또는 귀댁 성인들)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 46-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47번으로)
③ 모름/응답거부 (→ 문 47번으로)

문 46-1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 ① 거의 매달 ② 몇 달 동안(매달 아님) ③ 한두 달 동안만

문 47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응답거부

문 48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배가 고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응답거부

문 49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는 필요한 만큼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응답거부

※ 위의 47~49문항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 예'에 표시했다면 [문 50] 문항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 51]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문 50 최근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하여 귀하(또는 귀댁 성인들)는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문 50-1번으로) ② 아니오 ③ 모름/응답거부

문 50-1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 ① 거의 매달 ② 몇 달 동안(매달 아님) ③ 한두 달 동안만

문 57 최근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내용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57-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57-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57-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57-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①	②	③	④
57-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57-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껴지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57-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57-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57-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G. 배경변수

문 58 성별 ① 남 ② 여

문 59 나이 만 () 세*
* : 2017에서 태어나신 년도(생년)을 뺀 나이를 말합니다

문 60 귀하의 현재 세대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1인 가구(→ 문 60-1으로 이동)
- ② 부부(응답자+배우자) (→ 문 60-2로 이동)
- ③ 응답자+배우자+자녀 (→ 문 60-2로 이동)
- ④ 응답자+부모 (→ 문 60-2로 이동)
- ⑤ 응답자+부모+형제자매 (→ 문 60-2로 이동)
- ⑥ 응답자+미혼 형제자매 (→ 문 60-2로 이동)
- ⑦ 응답자+기타 친인척 (→ 문 60-2로 이동)
- ⑧ 기타 (→ 문 60-2로 이동)

문 60-1 1인 가구인 당신은 본가(부모 등)와 얼마나 자주 교류하면서 식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1주일에 1~2번씩
- ② 한 달에 1~2번씩
- ③ 석 달에 1~2번씩
- ④ 1년에 1~2번씩(명절 등)
- ⑤ 거의 도움을 안 받는다
- ⑥ 해당 사항 없음

문 60-2 귀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응답해주시시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이상

부록 2. 직장에서의 식사양식과 식습관 변화의 주요 문항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근무특성 요인의 교차표

<문 23.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 빈도 >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하는 빈도					계
			하루 세 번	하루 두 번 정도	하루 한 번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거의 안함	
전체		250	.4	6.4	64.8	10.0	18.4	100.0
성별	남	127	0.0	10.2	60.6	11.0	18.1	100.0
	여	123	.8	2.4	69.1	8.9	18.7	100.0
연령	20~24세	55	1.8	3.6	78.2	5.5	10.9	100.0
	25~29세	99	0.0	7.1	65.7	8.1	19.2	100.0
	30대	96	0.0	7.3	56.3	14.6	21.9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2.0	12.0	62.0	10.0	14.0	100.0
	부부가구	41	0.0	4.9	63.4	4.9	26.8	100.0
	부모와 동거	135	0.0	3.0	64.4	13.3	19.3	100.0
	기타	24	0.0	16.7	75.0	0.0	8.3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5	6.8	64.7	11.1	16.9	100.0
	기혼	41	0.0	4.9	63.4	4.9	26.8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0.0	14.9	66.0	2.1	17.0	100.0
	대학재학·휴학	60	1.7	10.0	70.0	5.0	13.3	100.0
	대졸 이상	143	0.0	2.1	62.2	14.7	21.0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10.9	58.7	10.9	17.4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0.0	6.4	70.5	5.1	17.9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3.4	60.3	17.2	19.0	100.0
	500만원 이상	68	0.0	5.9	66.2	8.8	19.1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2.8	5.6	61.1	2.8	27.8	100.0
	16~35시간	139	0.0	4.3	55.4	15.1	25.2	100.0
	36시간 이상	75	0.0	10.7	84.0	4.0	1.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0.0	5.1	63.2	8.5	23.1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0.0	9.5	74.6	12.7	3.2	100.0
	3년 이상	35	2.9	5.7	68.6	8.6	14.3	100.0

<문 23.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 빈도 II>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하는 빈도					계	
		하루 세 번	하루 두 번 정도	하루 한 번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거의 안함		
전체	250	.4	6.4	64.8	10.0	18.4	100.0	
사업장 유형_규모	1~2명	62	0.0	3.2	62.9	14.5	19.4	100.0
	3~4명	88	0.0	5.7	55.7	14.8	23.9	100.0
	5~9명	67	1.5	9.0	73.1	4.5	11.9	100.0
	10명이상	33	0.0	9.1	75.8	0.0	15.2	100.0
사업장유형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6	8.5	59.9	11.9	19.2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0.0	87.0	4.3	8.7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2.1	72.9	6.3	18.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7.3	68.9	5.3	17.9	100.0
	근무함	99	0.0	5.1	58.6	17.2	19.2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5	4.7	64.2	9.8	20.9	100.0
	근무함	35	0.0	17.1	68.6	11.4	2.9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0.0	3.4	61.4	14.5	20.7	100.0
	근무함	105	1.0	10.5	69.5	3.8	15.2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0.0	5.3	67.6	6.9	20.2	100.0
	근무함	62	1.6	9.7	56.5	19.4	12.9	100.0
일의 속도_3분	빠름	73	0.0	8.2	74.0	2.7	15.1	100.0
	중간	88	1.1	3.4	51.1	19.3	25.0	100.0
	느림	89	0.0	7.9	70.8	6.7	14.6	100.0
일의 정시성_3분	높음	88	0.0	8.0	70.5	5.7	15.9	100.0
	중간	96	0.0	2.1	77.1	7.3	13.5	100.0
	낮음	66	1.5	10.6	39.4	19.7	28.8	100.0

<문 25-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주 식사 장소 1>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계
			일터의 별도 휴게공간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 내에 있는 별도 식당	일터 주변의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전체		204	14.7	40.7	5.4	38.2	1.0	100.0
성별	남	104	12.5	39.4	8.7	37.5	1.9	100.0
	여	100	17.0	42.0	2.0	39.0	0.0	100.0
연령	20~24세	49	10.2	51.0	0.0	38.8	0.0	100.0
	25~29세	80	22.5	35.0	8.8	33.8	0.0	100.0
	30대	75	9.3	40.0	5.3	42.7	2.7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43	18.6	41.9	9.3	27.9	2.3	100.0
	부부가구	30	6.7	43.3	3.3	46.7	0.0	100.0
	부모와 동거	109	16.5	40.4	4.6	37.6	.9	100.0
	기타	22	9.1	36.4	4.5	50.0	0.0	100.0
혼인상태	미혼	172	16.3	40.7	5.2	36.6	1.2	100.0
	기혼	30	6.7	43.3	3.3	46.7	0.0	100.0
교육수준	고졸	39	7.7	53.8	12.8	25.6	0.0	100.0
	대학 재학·휴학	52	11.5	46.2	5.8	36.5	0.0	100.0
	대졸이상	113	18.6	33.6	2.7	43.4	1.8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21.1	39.5	7.9	28.9	2.6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64	10.9	48.4	4.7	35.9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47	6.4	40.4	8.5	44.7	0.0	100.0
	500만원 이상	55	21.8	32.7	1.8	41.8	1.8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15.4	42.3	3.8	38.5	0.0	100.0
	16~35시간	104	15.4	42.3	4.8	37.5	0.0	100.0
	36시간 이상	74	13.5	37.8	6.8	39.2	2.7	100.0
경력	2년 미만	90	15.6	46.7	3.3	34.4	0.0	100.0
	2년 이상~3년 미만	61	16.4	32.8	8.2	42.6	0.0	100.0
	3년 이상	30	6.7	40.0	10.0	43.3	0.0	100.0

<문 25-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주 식사 장소 II>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계	
		일터의 별도 휴게공간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 내에 있는 별도 식당	일터 주변의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전체	204	14.7	40.7	5.4	38.2	1.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50	12.0	42.0	8.0	36.0	2.0	100.0
	3~4명	67	19.4	50.7	1.5	26.9	1.5	100.0
	5~9명	59	11.9	39.0	6.8	42.4	0.0	100.0
	10명 이상	28	14.3	17.9	7.1	60.7	0.0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43	11.2	39.2	4.9	43.4	1.4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28.6	23.8	0.0	47.6	0.0	100.0
교대근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20.5	56.4	10.3	12.8	0.0	100.0
	근무안함	124	11.3	41.9	5.6	40.3	.8	100.0
야간근무	근무함	80	20.0	38.8	5.0	35.0	1.3	100.0
	근무안함	170	15.3	37.6	5.3	41.8	0.0	100.0
휴일근무	근무함	34	11.8	55.9	5.9	20.6	5.9	100.0
	근무안함	115	13.9	42.6	4.3	38.3	.9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함	89	15.7	38.2	6.7	38.2	1.1	100.0
	근무안함	150	14.0	41.3	6.0	37.3	1.3	100.0
일의 속도 _3분	근무함	54	16.7	38.9	3.7	40.7	0.0	100.0
	빠름	62	14.5	58.1	1.6	24.2	1.6	100.0
	중간	66	18.2	45.5	3.0	33.3	0.0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느림	76	11.8	22.4	10.5	53.9	1.3	100.0
	높음	74	10.8	39.2	9.5	40.5	0.0	100.0
	중간	83	18.1	41.0	3.6	36.1	1.2	100.0
	낮음	47	14.9	42.6	2.1	38.3	2.1	100.0

〈문 25-2.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 식사 장소 1〉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할 때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						계
			일터의 별도 휴게공간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 내에 있는 별도 식당	일터 주변의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기타	
전체		147	21.8	22.4	10.9	12.9	27.2	4.8	100.0
성별	남	79	21.5	21.5	8.9	8.9	34.2	5.1	100.0
	여	68	22.1	23.5	13.2	17.6	19.1	4.4	100.0
연령	20~24세	30	20.0	20.0	0.0	3.3	43.3	13.3	100.0
	25~29세	63	25.4	19.0	11.1	17.5	25.4	1.6	100.0
	30대	54	18.5	27.8	16.7	13.0	20.4	3.7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30	26.7	16.7	3.3	16.7	30.0	6.7	100.0
	부부가구	21	19.0	19.0	19.0	19.0	19.0	4.8	100.0
	부모와 동거	79	21.5	26.6	10.1	11.4	26.6	3.8	100.0
	기타	17	17.6	17.6	17.6	5.9	35.3	5.9	100.0
혼인상태	미혼	125	22.4	22.4	9.6	12.0	28.8	4.8	100.0
	기혼	21	19.0	19.0	19.0	19.0	19.0	4.8	100.0
교육수준	고졸	20	20.0	10.0	20.0	20.0	20.0	10.0	100.0
	대학 재학·휴학	36	25.0	19.4	2.8	8.3	38.9	5.6	100.0
	대졸이상	91	20.9	26.4	12.1	13.2	24.2	3.3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29	27.6	17.2	3.4	17.2	27.6	6.9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44	18.2	25.0	13.6	18.2	22.7	2.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37	24.3	16.2	16.2	5.4	32.4	5.4	100.0
	500만원 이상	37	18.9	29.7	8.1	10.8	27.0	5.4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14	21.4	7.1	21.4	14.3	35.7	0.0	100.0
	16~35시간	78	26.9	25.6	7.7	9.0	25.6	5.1	100.0
	36시간 이상	55	14.5	21.8	12.7	18.2	27.3	5.5	100.0
경력	2년미만	62	29.0	25.8	9.7	11.3	24.2	0.0	100.0
	2년 이상~3년 미만	48	14.6	16.7	16.7	20.8	22.9	8.3	100.0
	3년 이상	19	15.8	26.3	5.3	0.0	42.1	10.5	100.0

<문 25-2.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 식사 장소 II>

		사례수	근무 중 식사할 때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					기타	계
			일터의 별도 휴게공간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 내에 있는 별도 식당	일터 주변의 식당	일터 주변 편의점		
전체		147	21.8	22.4	10.9	12.9	27.2	4.8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33	18.2	36.4	3.0	12.1	24.2	6.1	100.0
	3~4명	42	23.8	31.0	9.5	9.5	23.8	2.4	100.0
	5~9명	46	28.3	8.7	10.9	19.6	30.4	2.2	100.0
	10명이상	26	11.5	15.4	23.1	7.7	30.8	11.5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08	21.3	24.1	12.0	13.0	25.9	3.7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17	29.4	5.9	17.6	17.6	11.8	17.6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21	19.0	23.8	0.0	9.5	47.6	0.0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91	22.0	13.2	13.2	16.5	29.7	5.5	100.0
	근무함	56	21.4	37.5	7.1	7.1	23.2	3.6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125	22.4	21.6	11.2	12.8	28.8	3.2	100.0
	근무함	22	18.2	27.3	9.1	13.6	18.2	13.6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84	25.0	25.0	7.1	11.9	27.4	3.6	100.0
	근무함	63	17.5	19.0	15.9	14.3	27.0	6.3	100.0
계약시간 이의 근무	근무안함	108	23.1	17.6	12.0	13.9	28.7	4.6	100.0
	근무함	39	17.9	35.9	7.7	10.3	23.1	5.1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38	34.2	15.8	5.3	13.2	26.3	5.3	100.0
	중간	48	25.0	29.2	8.3	12.5	25.0	0.0	100.0
	느림	61	11.5	21.3	16.4	13.1	29.5	8.2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55	21.8	9.1	12.7	16.4	38.2	1.8	100.0
	중간	57	26.3	24.6	12.3	10.5	22.8	3.5	100.0
	낮음	35	14.3	40.0	5.7	11.4	17.1	11.4	100.0

<문 26-1. 일터에서 식사 제공 여부와 방식 1 >

		사례수	아르바이트1_현재 일터에서 식사제공 여부와 방식					계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로 제공받음	식사비를 제공받음	매장내 상품으로 제공받음	기타 다른 형태로 식사를 제공받음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전체		204	27.9	29.9	2.5	3.9	35.8	100.0
성별	남	104	26.0	36.5	2.9	1.0	33.7	100.0
	여	100	30.0	23.0	2.0	7.0	38.0	100.0
연령	20~24세	49	30.6	20.4	6.1	4.1	38.8	100.0
	25~29세	80	26.3	36.3	0.0	7.5	30.0	100.0
	30대	75	28.0	29.3	2.7	0.0	40.0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43	39.5	23.3	2.3	2.3	32.6	100.0
	부부가구	30	20.0	23.3	6.7	0.0	50.0	100.0
	부모와 동거	109	27.5	28.4	.9	4.6	38.5	100.0
	기타	22	18.2	59.1	4.5	9.1	9.1	100.0
혼인 상태	미혼	172	29.7	31.4	1.7	4.1	33.1	100.0
	기혼	30	20.0	23.3	6.7	0.0	50.0	100.0
교육 수준	고졸	39	38.5	28.2	2.6	5.1	25.6	100.0
	대학 재학·휴학	52	30.8	34.6	5.8	0.0	28.8	100.0
	대졸이상	113	23.0	28.3	.9	5.3	42.5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39.5	26.3	2.6	0.0	31.6	100.0
	200만~400만원 미만	64	23.4	32.8	6.3	6.3	31.3	100.0
	400만~500만원 미만	47	27.7	42.6	0.0	0.0	29.8	100.0
	500만원 이상	55	25.5	18.2	0.0	7.3	49.1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23.1	30.8	3.8	7.7	34.6	100.0
	16~35 시간	104	30.8	26.0	2.9	4.8	35.6	100.0
	36시간 이상	74	25.7	35.1	1.4	1.4	36.5	100.0
경력	2년 미만	90	31.1	37.8	5.6	3.3	22.2	100.0
	2년이상~3년미만	61	29.5	31.1	0.0	3.3	36.1	100.0
	3년 이상	30	16.7	20.0	0.0	3.3	60.0	100.0

<문 26-1. 일터에서 식사 제공 여부와 방식 II>

		사례수	아르바이트1_현재 일터에서 식사제공 여부와 방식				계	
			주방에서 조리된 식사로 제공받음	식사비를 제공받음	매장내 상품으로 제공받음	기타 다른 형태로 식사를 제공받음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전체		204	27.9	29.9	2.5	3.9	35.8	100.0
사업장 유형 _규모	1~2명	50	16.0	10.0	2.0	8.0	64.0	100.0
	3~4명	67	37.3	22.4	4.5	4.5	31.3	100.0
	5~9명	59	30.5	44.1	1.7	0.0	23.7	100.0
	10명이상	28	21.4	53.6	0.0	3.6	21.4	100.0
사업장 유형 _사업 자	개인 사업장	143	28.7	30.8	0.0	4.2	36.4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9.5	57.1	9.5	4.8	19.0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35.9	12.8	7.7	2.6	41.0	100.0
교대 근무	근무 안함	124	30.6	32.3	.8	2.4	33.9	100.0
	근무함	80	23.8	26.3	5.0	6.3	38.8	100.0
야간 근무	근무 안함	170	28.2	33.5	.6	2.9	34.7	100.0
	근무함	34	26.5	11.8	11.8	8.8	41.2	100.0
휴일 근무	근무 안함	115	27.8	32.2	2.6	4.3	33.0	100.0
	근무함	89	28.1	27.0	2.2	3.4	39.3	100.0
계약 시간 이외 근무	근무 안함	150	31.3	30.0	1.3	4.0	33.3	100.0
	근무함	54	18.5	29.6	5.6	3.7	42.6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62	46.8	16.1	1.6	0.0	35.5	100.0
	중간	66	30.3	21.2	3.0	9.1	36.4	100.0
	느림	76	10.5	48.7	2.6	2.6	35.5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74	24.3	44.6	1.4	1.4	28.4	100.0
	중간	83	33.7	19.3	1.2	7.2	38.6	100.0
	낮음	47	23.4	25.5	6.4	2.1	42.6	100.0

<문 27. 일터에서 평균 식사시간 1>

	사례수	일터에서 식사시간		계	직장에서의 식사시간_분 시간_분 평균	
		30분 이하	31분 이상			
전체	204	49.5	50.5	100.0	39.2	
성별	남	104	46.2	53.8	100.0	40.0
	여	100	53.0	47.0	100.0	38.5
연령	20~24세	49	59.2	40.8	100.0	36.5
	25~29세	80	46.3	53.8	100.0	40.6
	30대	75	46.7	53.3	100.0	39.6
세대 유형	단독가구	43	53.5	46.5	100.0	39.0
	부부가구	30	63.3	36.7	100.0	35.7
	부모와 동거	109	45.9	54.1	100.0	39.7
	기타	22	40.9	59.1	100.0	42.5
혼인 상태	미혼	172	47.7	52.3	100.0	39.7
	기혼	30	63.3	36.7	100.0	35.7
교육 수준	고졸	39	61.5	38.5	100.0	35.5
	대학 재학 휴학	52	53.8	46.2	100.0	37.0
	대졸이상	113	43.4	56.6	100.0	41.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55.3	44.7	100.0	38.3
	200만원~ 400만원 미만	64	56.3	43.8	100.0	36.9
	400만원~ 500만원 미만	47	42.6	57.4	100.0	40.2
	500만원 이상	55	43.6	56.4	100.0	41.8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42.3	57.7	100.0	43.8
	16~35시간	104	52.9	47.1	100.0	38.4
	36시간 이상	74	47.3	52.7	100.0	38.8
경력	2년 미만	90	45.6	54.4	100.0	39.6
	2년이상~3년미만	61	42.6	57.4	100.0	40.5
	3년 이상	30	63.3	36.7	100.0	36.5

<문 27. 일터에서 평균 식사시간 II>

		사례수	일터에서 식사시간		계	직장에서의 식사시간_분
			30분 이하	31분 이상		시간_분 평균
전체		204	49.5	50.5	100.0	39.2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50	74.0	26.0	100.0	32.2
	3~4명	67	50.7	49.3	100.0	37.8
	5~9명	59	32.2	67.8	100.0	45.3
	10명이상	28	39.3	60.7	100.0	42.7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43	46.9	53.1	100.0	39.7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42.9	57.1	100.0	45.2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64.1	35.9	100.0	33.7
교대근무	근무안함	124	43.5	56.5	100.0	41.1
	근무함	80	58.8	41.3	100.0	36.3
야간근무	근무안함	170	41.8	58.2	100.0	41.5
	근무함	34	88.2	11.8	100.0	28.1
휴일근무	근무안함	115	49.6	50.4	100.0	39.7
	근무함	89	49.4	50.6	100.0	38.6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50	50.7	49.3	100.0	39.5
	근무함	54	46.3	53.7	100.0	38.4
일의 속도 _3분	빠름	62	67.7	32.3	100.0	33.3
	중간	66	47.0	53.0	100.0	39.8
	느림	76	36.8	63.2	100.0	43.6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74	43.2	56.8	100.0	42.0
	중간	83	43.4	56.6	100.0	40.6
	낮음	47	70.2	29.8	100.0	32.4

<문 28. 일하는 중 식사 시간 충분 정도 1>

		사례수	일하는 중 식사시간 충분한지 여부			계
			충분하다	다소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204	43.6	46.1	10.3	100.0
성별	남	104	50.0	40.4	9.6	100.0
	여	100	37.0	52.0	11.0	100.0
연령	20~24세	49	38.8	51.0	10.2	100.0
	25~29세	80	48.8	43.8	7.5	100.0
	30대	75	41.3	45.3	13.3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43	37.2	53.5	9.3	100.0
	부부가구	30	26.7	46.7	26.7	100.0
	부모와 동거	109	47.7	45.9	6.4	100.0
	기타	22	59.1	31.8	9.1	100.0
혼인상태	미혼	172	47.1	45.3	7.6	100.0
	기혼	30	26.7	46.7	26.7	100.0
교육수준	고졸	39	28.2	59.0	12.8	100.0
	대학 재학·휴학	52	48.1	44.2	7.7	100.0
	대졸 이상	113	46.9	42.5	10.6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36.8	52.6	10.5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64	42.2	39.1	18.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47	44.7	44.7	10.6	100.0
	500만원 이상	55	49.1	50.9	0.0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69.2	19.2	11.5	100.0
	16~35시간	104	39.4	50.0	10.6	100.0
	36시간 이상	74	40.5	50.0	9.5	100.0
경력	2년 미만	90	48.9	43.3	7.8	100.0
	2년이상~3년미만	61	45.9	49.2	4.9	100.0
	3년 이상	30	36.7	43.3	20.0	100.0

<문 28. 일하는 중 식사 시간 충분 정도 II>

		사례수	일하는 중 식사시간 충분한지 여부			계
			충분하다	다소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204	43.6	46.1	10.3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50	42.0	46.0	12.0	100.0
	3~4명	67	37.3	50.7	11.9	100.0
	5~9명	59	52.5	40.7	6.8	100.0
	10명이상	28	42.9	46.4	10.7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43	45.5	46.9	7.7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42.9	52.4	4.8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35.9	41.0	23.1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24	49.2	45.2	5.6	100.0
	근무함	80	35.0	47.5	17.5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170	50.6	42.4	7.1	100.0
	근무함	34	8.8	64.7	26.5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15	45.2	44.3	10.4	100.0
	근무함	89	41.6	48.3	10.1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50	44.0	46.7	9.3	100.0
	근무함	54	42.6	44.4	13.0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62	27.4	54.8	17.7	100.0
	중간	66	39.4	54.5	6.1	100.0
	느림	76	60.5	31.6	7.9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74	50.0	39.2	10.8	100.0
	중간	83	43.4	47.0	9.6	100.0
	낮음	47	34.0	55.3	10.6	100.0

<문 29. 직장에서 식사 동반자 1>

		사례수	식사 주로 같이 하는 사람		계
			주로 혼자서	주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직원과 함께	
전체		204	27.0	73.0	100.0
성별	남	104	25.0	75.0	100.0
	여	100	29.0	71.0	100.0
연령	20~24세	49	28.6	71.4	100.0
	25~29세	80	28.8	71.3	100.0
	30대	75	24.0	76.0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43	14.0	86.0	100.0
	부부가구	30	43.3	56.7	100.0
	부모와 동거	109	30.3	69.7	100.0
	기타	22	13.6	86.4	100.0
혼인상태	미혼	172	23.3	76.7	100.0
	기혼	30	43.3	56.7	100.0
교육수준	고졸	39	23.1	76.9	100.0
	대학 재학·휴학	52	25.0	75.0	100.0
	대졸 이상	113	29.2	70.8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13.2	86.8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64	35.9	64.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47	29.8	70.2	100.0
	500만원 이상	55	23.6	76.4	100.0
	15시간 이하	26	38.5	61.5	100.0
일하는 시간	16~35시간	104	29.8	70.2	100.0
	36시간 이상	74	18.9	81.1	100.0
	2년 미만	90	20.0	80.0	100.0
경력	2년이상~3년미만	61	24.6	75.4	100.0
	3년 이상	30	46.7	53.3	100.0

<문 29. 직장에서 식사 동반자 II>

		사례수	식사 주로 같이 하는 사람		계
			주로 혼자서	주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직원과 함께	
전체		204	27.0	73.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50	56.0	44.0	100.0
	3~4명	67	25.4	74.6	100.0
	5~9명	59	11.9	88.1	100.0
	10명이상	28	10.7	89.3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43	23.8	76.2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14.3	85.7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46.2	53.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24	13.7	86.3	100.0
	근무함	80	47.5	52.5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170	22.9	77.1	100.0
	근무함	34	47.1	52.9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15	26.1	73.9	100.0
	근무함	89	28.1	71.9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50	22.0	78.0	100.0
	근무함	54	40.7	59.3	100.0
일의 속도_3분	빠름	62	29.0	71.0	100.0
	중간	66	24.2	75.8	100.0
	느림	76	27.6	72.4	100.0
일의 정시성_3분	높음	74	17.6	82.4	100.0
	중간	83	27.7	72.3	100.0
	낮음	47	40.4	59.6	100.0

<문 30-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첫 번째 고려사항 1>

		사례수	식사메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계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맛	영양	안전한 음식	가격		
전체		204	32.4	45.1	3.4	8.8	3.9	6.4	100.0
성별	남	104	33.7	46.2	3.8	7.7	1.0	7.7	100.0
	여	100	31.0	44.0	3.0	10.0	7.0	5.0	100.0
연령	20~24세	49	36.7	44.9	2.0	4.1	4.1	8.2	100.0
	25~29세	80	36.3	42.5	5.0	7.5	5.0	3.8	100.0
	30대	75	25.3	48.0	2.7	13.3	2.7	8.0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43	25.6	39.5	7.0	14.0	2.3	11.6	100.0
	부부가구	30	36.7	43.3	3.3	6.7	3.3	6.7	100.0
	부모와 동거	109	34.9	46.8	1.8	8.3	5.5	2.8	100.0
	기타	22	27.3	50.0	4.5	4.5	0.0	13.6	100.0
혼인 상태	미혼	172	31.4	45.9	2.9	9.3	4.1	6.4	100.0
	기혼	30	36.7	43.3	3.3	6.7	3.3	6.7	100.0
교육 수준	고졸	39	23.1	53.8	7.7	5.1	0.0	10.3	100.0
	대학 재학·휴학	52	36.5	46.2	1.9	7.7	1.9	5.8	100.0
	대졸 이상	113	33.6	41.6	2.7	10.6	6.2	5.3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26.3	42.1	5.3	15.8	2.6	7.9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64	35.9	40.6	4.7	4.7	3.1	10.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47	25.5	55.3	0.0	10.6	2.1	6.4	100.0
	500만원 이상	55	38.2	43.6	3.6	7.3	7.3	0.0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34.6	34.6	7.7	3.8	15.4	3.8	100.0
	16~35시간	104	38.5	41.3	2.9	10.6	1.9	4.8	100.0
	36시간 이상	74	23.0	54.1	2.7	8.1	2.7	9.5	100.0
경력	2년 미만	90	22.2	51.1	3.3	13.3	2.2	7.8	100.0
	2년 이상~3년 미만	61	34.4	44.3	4.9	8.2	4.9	3.3	100.0
	3년 이상	30	43.3	40.0	3.3	3.3	3.3	6.7	100.0

<문 30-1.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첫 번째 고려사항 II>

		사례수	식사메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계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맛	영양	안전한 음식	가격		
전체		204	32.4	45.1	3.4	8.8	3.9	6.4	100.0
사업장 유형 _규모	1~2명	50	42.0	34.0	4.0	10.0	4.0	6.0	100.0
	3~4명	67	32.8	40.3	3.0	13.4	4.5	6.0	100.0
	5~9명	59	27.1	57.6	3.4	3.4	1.7	6.8	100.0
	10명 이상	28	25.0	50.0	3.6	7.1	7.1	7.1	100.0
사업장 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43	29.4	46.9	4.2	9.8	3.5	6.3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23.8	57.1	0.0	4.8	4.8	9.5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48.7	33.3	2.6	7.7	2.6	5.1	100.0
교대 근무	근무안함	124	26.6	54.8	2.4	5.6	4.0	6.5	100.0
	근무함	80	41.3	30.0	5.0	13.8	3.8	6.3	100.0
야간 근무	근무안함	170	30.0	50.0	2.4	10.6	2.4	4.7	100.0
	근무함	34	44.1	20.6	8.8	0.0	11.8	14.7	100.0
휴일 근무	근무안함	115	29.6	47.8	4.3	11.3	2.6	4.3	100.0
	근무함	89	36.0	41.6	2.2	5.6	5.6	9.0	100.0
계약 시간 이 외 근무	근무안함	150	30.7	50.7	2.7	8.0	2.0	6.0	100.0
	근무함	54	37.0	29.6	5.6	11.1	9.3	7.4	100.0
일의 속 도 _3분	빠름	62	35.5	37.1	6.5	11.3	3.2	6.5	100.0
	중간	66	40.9	36.4	1.5	15.2	3.0	3.0	100.0
	느림	76	22.4	59.2	2.6	1.3	5.3	9.2	100.0
일의 정 시성 _3분	높음	74	25.7	60.8	0.0	4.1	1.4	8.1	100.0
	중간	83	37.3	42.2	3.6	9.6	4.8	2.4	100.0
	낮음	47	34.0	25.5	8.5	14.9	6.4	10.6	100.0

<문 30-2.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두 번째 고려사항 1>

		사례수	식사메뉴 선택 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계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맛	영양	안전한 음식	가격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전체		203	16.3	26.1	4.9	18.2	10.3	24.1	100.0
성별	남	104	15.4	22.1	3.8	18.3	9.6	30.8	100.0
	여	99	17.2	30.3	6.1	18.2	11.1	17.2	100.0
연령	20~24세	49	16.3	32.7	6.1	16.3	8.2	20.4	100.0
	25~29세	79	10.1	26.6	3.8	19.0	17.7	22.8	100.0
	30대	75	22.7	21.3	5.3	18.7	4.0	28.0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43	25.6	27.9	0.0	7.0	16.3	23.3	100.0
	부부가구	30	20.0	30.0	6.7	20.0	3.3	20.0	100.0
	부모와 동거	108	13.0	24.1	5.6	21.3	9.3	26.9	100.0
	기타	22	9.1	27.3	9.1	22.7	13.6	18.2	100.0
혼인상태	미혼	171	15.8	25.7	4.7	18.1	10.5	25.1	100.0
	기혼	30	20.0	30.0	6.7	20.0	3.3	20.0	100.0
교육수준	고졸	38	21.1	26.3	10.5	15.8	10.5	15.8	100.0
	대학 재학·휴학	52	13.5	25.0	3.8	21.2	9.6	26.9	100.0
	대졸이상	113	15.9	26.5	3.5	17.7	10.6	25.7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38	23.7	28.9	0.0	7.9	15.8	23.7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63	11.1	27.0	4.8	22.2	11.1	23.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47	21.3	23.4	2.1	21.3	4.3	27.7	100.0
	500만원 이상	55	12.7	25.5	10.9	18.2	10.9	21.8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26	11.5	19.2	0.0	23.1	15.4	30.8	100.0
	16~35 시간	104	15.4	26.9	3.8	14.4	8.7	30.8	100.0
	36시간 이상	73	19.2	27.4	8.2	21.9	11.0	12.3	100.0
경력	2년 미만	90	12.2	23.3	5.6	24.4	10.0	24.4	100.0
	2년이상~3년미만	60	20.0	23.3	6.7	18.3	6.7	25.0	100.0
	3년 이상	30	23.3	33.3	0.0	10.0	13.3	20.0	100.0

<문 30-2. 아르바이트 근무 중 식사메뉴 선택 시 두 번째 고려사항 II>

	사례수	식사메뉴 선택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계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맛	영양	안전한 음식	가격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전체	203	16.3	26.1	4.9	18.2	10.3	24.1	100.0	
사업장 유형-규모	1~2명	50	16.0	32.0	6.0	8.0	10.0	28.0	100.0
	3~4명	66	16.7	28.8	4.5	22.7	10.6	16.7	100.0
	5~9명	59	11.9	16.9	5.1	23.7	11.9	30.5	100.0
	10명 이상	28	25.0	28.6	3.6	14.3	7.1	21.4	100.0
사업장 유형-사업자	개인사업장	142	16.9	21.1	6.3	17.6	10.6	27.5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1	23.8	28.6	0.0	23.8	9.5	14.3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39	10.3	41.0	2.6	17.9	10.3	17.9	100.0
교대 근무	근무안함	123	17.1	24.4	4.9	23.6	8.9	21.1	100.0
	근무함	80	15.0	28.8	5.0	10.0	12.5	28.8	100.0
야간 근무	근무안함	170	15.3	25.9	4.7	20.0	8.8	25.3	100.0
	근무함	33	21.2	27.3	6.1	9.1	18.2	18.2	100.0
휴일 근무	근무안함	115	13.0	21.7	4.3	20.0	10.4	30.4	100.0
	근무함	88	20.5	31.8	5.7	15.9	10.2	15.9	100.0
계약시간이외 근무	근무안함	149	16.8	27.5	5.4	20.1	8.7	21.5	100.0
	근무함	54	14.8	22.2	3.7	13.0	14.8	31.5	100.0
일의 속도-3분	빠름	62	22.6	27.4	3.2	11.3	11.3	24.2	100.0
	중간	65	9.2	27.7	6.2	18.5	12.3	26.2	100.0
	느림	76	17.1	23.7	5.3	23.7	7.9	22.4	100.0
일의 정시성-3분	높음	74	14.9	25.7	1.4	20.3	9.5	28.4	100.0
	중간	83	16.9	21.7	6.0	16.9	14.5	24.1	100.0
	낮음	46	17.4	34.8	8.7	17.4	4.3	17.4	100.0

<문 33-1.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거른 경험 1>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로 식사를 거른 경험				계
			이틀에 한번정도	3-4일에 한번정도	일주일 에 한번정도	거 의 경 험 없 음	
전체		250	1.2	13.2	20.8	64.8	100.0
성별	남	127	1.6	11.8	23.6	63.0	100.0
	여	123	.8	14.6	17.9	66.7	100.0
연령	20~24세	55	3.6	5.5	29.1	61.8	100.0
	25~29세	99	0.0	13.1	20.2	66.7	100.0
	30대	96	1.0	17.7	16.7	64.6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0.0	12.0	16.0	72.0	100.0
	부부가구	41	0.0	14.6	19.5	65.9	100.0
	부모와 동거	135	2.2	14.8	22.2	60.7	100.0
	기타	24	0.0	4.2	25.0	70.8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1.4	13.0	21.3	64.3	100.0
	기혼	41	0.0	14.6	19.5	65.9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8.5	14.9	74.5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7	5.0	30.0	63.3	100.0
	대졸이상	143	.7	18.2	18.9	62.2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0.0	10.9	17.4	71.7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2.6	11.5	15.4	70.5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15.5	31.0	53.4	100.0
	500만원 이상	68	1.5	14.7	20.6	63.2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2.8	11.1	16.7	69.4	100.0
	16~35시간	139	.7	15.1	15.8	68.3	100.0
	36시간 이상	75	1.3	10.7	32.0	56.0	100.0
경력	2년 미만	117	.9	10.3	17.1	71.8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0.0	22.2	23.8	54.0	100.0
	3년 이상	35	5.7	5.7	25.7	62.9	100.0

<문 33-1.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거른 경험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로 식사를 거른 경험				계	
		이틀에 한번정도	3-4일에 한번정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거 경 없 음		
전체	250	1.2	13.2	20.8	64.8	100.0	
사업장유형 -규모	1~2명	62	4.8	14.5	17.7	62.9	100.0
	3~4명	88	0.0	14.8	14.8	70.5	100.0
	5~9명	67	0.0	6.0	32.8	61.2	100.0
	10명이상	33	0.0	21.2	18.2	60.6	100.0
사업장유형 -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6	15.8	18.6	65.0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13.0	26.1	60.9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4.2	27.1	64.6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7.9	21.2	70.2	100.0
	근무함	99	2.0	21.2	20.2	56.6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1.4	12.6	19.5	66.5	100.0
	근무함	35	0.0	17.1	28.6	54.3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4	12.4	19.3	66.9	100.0
	근무함	105	1.0	14.3	22.9	61.9	100.0
계약시간 이외근무	근무안함	188	.5	9.6	21.8	68.1	100.0
	근무함	62	3.2	24.2	17.7	54.8	100.0
일의 속도 -3분	빠름	73	1.4	16.4	16.4	65.8	100.0
	중간	88	0.0	17.0	12.5	70.5	100.0
	느림	89	2.2	6.7	32.6	58.4	100.0
일의 정시성 -3분	높음	88	0.0	5.7	22.7	71.6	100.0
	중간	96	1.0	18.8	20.8	59.4	100.0
	낮음	66	3.0	15.2	18.2	63.6	100.0

<문 33-2.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제 때 못한 경험 1>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로 식사를 제 때에 못한 경험					계
			하루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3-4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의 경험 없음	
전체		250	1.2	4.8	14.8	34.4	44.8	100.0
성별	남	127	.8	3.9	17.3	40.2	37.8	100.0
	여	123	1.6	5.7	12.2	28.5	52.0	100.0
연령	20~24세	55	1.8	9.1	9.1	40.0	40.0	100.0
	25~29세	99	0.0	4.0	22.2	26.3	47.5	100.0
	30대	96	2.1	3.1	10.4	39.6	44.8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4.0	6.0	18.0	24.0	48.0	100.0
	부부가구	41	2.4	0.0	9.8	29.3	58.5	100.0
	부모와 동거	135	0.0	5.2	14.8	41.5	38.5	100.0
	기타	24	0.0	8.3	16.7	25.0	50.0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1.0	5.8	15.5	35.3	42.5	100.0
	기혼	41	2.4	0.0	9.8	29.3	58.5	100.0
교육수준	고졸	47	4.3	4.3	12.8	25.5	53.2	100.0
	대학 재학·휴학	60	0.0	8.3	11.7	38.3	41.7	100.0
	대졸 이상	143	.7	3.5	16.8	35.7	43.4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6.5	17.4	23.9	50.0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2.6	7.7	11.5	23.1	55.1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3.4	13.8	41.4	41.4	100.0
	500만원 이상	68	0.0	1.5	17.6	48.5	32.4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2.8	2.8	22.2	27.8	44.4	100.0
	16~35시간	139	.7	2.2	10.8	35.3	51.1	100.0
	36시간 이상	75	1.3	10.7	18.7	36.0	33.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0.0	5.1	12.8	36.8	45.3	100.0
	2년 이상~3년 미만	63	1.6	4.8	15.9	34.9	42.9	100.0
	3년 이상	35	2.9	8.6	22.9	31.4	34.3	100.0

<문 33-2.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제 때 못한 경험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로 식사를 제 때에 못한 경험					계
			하루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3-4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 일주일 한번 정도	거의 경험 없음	
전체		250	1.2	4.8	14.8	34.4	44.8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1.6	6.5	14.5	43.5	33.9	100.0
	3~4명	88	1.1	3.4	19.3	35.2	40.9	100.0
	5~9명	67	0.0	6.0	7.5	28.4	58.2	100.0
	10명이상	33	3.0	3.0	18.2	27.3	48.5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7	4.5	15.8	34.5	43.5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0.0	13.0	39.1	47.8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8.3	12.5	33.3	45.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3.3	13.9	30.5	51.7	100.0
	근무함	99	2.0	7.1	16.2	40.4	34.3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9	4.7	14.4	33.0	47.0	100.0
	근무함	35	2.9	5.7	17.1	42.9	31.4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7	1.4	12.4	35.2	50.3	100.0
	근무함	105	1.9	9.5	18.1	33.3	37.1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6	5.3	14.4	31.4	47.3	100.0
	근무함	62	0.0	3.2	16.1	43.5	37.1	100.0
일의 속도_3분	빠름	73	1.4	8.2	17.8	38.4	34.2	100.0
	중간	88	1.1	3.4	10.2	38.6	46.6	100.0
	느림	89	1.1	3.4	16.9	27.0	51.7	100.0
일의 정시성_3분	높음	88	1.1	4.5	12.5	23.9	58.0	100.0
	중간	96	2.1	4.2	18.8	45.8	29.2	100.0
	낮음	66	0.0	6.1	12.1	31.8	50.0	100.0

<문 36-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I >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도시락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7.2	60.0	29.6	2.4	100.0	8.0	60.0	32.0	100.0
성별	남	127	1.6	6.3	55.9	34.6	1.6	100.0	7.9	55.9	36.2	100.0
	여	123	0.0	8.1	64.2	24.4	3.3	100.0	8.1	64.2	27.6	100.0
연령	20~24세	55	0.0	5.5	61.8	27.3	5.5	100.0	5.5	61.8	32.7	100.0
	25~29세	99	1.0	8.1	53.5	34.3	3.0	100.0	9.1	53.5	37.4	100.0
	30대	96	1.0	7.3	65.6	26.0	0.0	100.0	8.3	65.6	26.0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2.0	4.0	50.0	42.0	2.0	100.0	6.0	50.0	44.0	100.0
	부부가구	41	2.4	2.4	80.5	14.6	0.0	100.0	4.9	80.5	14.6	100.0
	부모와 동거	135	0.0	8.9	60.0	28.1	3.0	100.0	8.9	60.0	31.1	100.0
	기타	24	0.0	12.5	45.8	37.5	4.2	100.0	12.5	45.8	41.7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5	8.2	56.0	32.4	2.9	100.0	8.7	56.0	35.3	100.0
	기혼	41	2.4	2.4	80.5	14.6	0.0	100.0	4.9	80.5	14.6	100.0
교육수준	고졸	47	2.1	17.0	48.9	27.7	4.3	100.0	19.1	48.9	31.9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7	5.0	51.7	40.0	1.7	100.0	6.7	51.7	41.7	100.0
	대졸 이상	143	0.0	4.9	67.1	25.9	2.1	100.0	4.9	67.1	28.0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4.3	47.8	43.5	2.2	100.0	6.5	47.8	45.7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1.3	11.5	60.3	23.1	3.8	100.0	12.8	60.3	26.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0.0	6.9	67.2	25.9	0.0	100.0	6.9	67.2	25.9	100.0
	500만원 이상	68	0.0	4.4	61.8	30.9	2.9	100.0	4.4	61.8	33.8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0.0	0.0	69.4	30.6	0.0	100.0	0.0	69.4	30.6	100.0
	16~35시간	139	0.0	7.9	57.6	31.7	2.9	100.0	7.9	57.6	34.5	100.0
	36시간 이상	75	2.7	9.3	60.0	25.3	2.7	100.0	12.0	60.0	28.0	100.0
경력	2년 미만	117	.9	6.8	59.0	33.3	0.0	100.0	7.7	59.0	33.3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6	7.9	63.5	22.2	4.8	100.0	9.5	63.5	27.0	100.0
	3년이상	35	0.0	0.0	60.0	37.1	2.9	100.0	0.0	60.0	40.0	100.0

<문 36-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도시락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도시락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7.2	60.0	29.6	2.4	100.0	8.0	60.0	32.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0.0	3.2	66.1	27.4	3.2	100.0	3.2	66.1	30.6	100.0
	3~4명	88	1.1	9.1	51.1	38.6	0.0	100.0	10.2	51.1	38.6	100.0
	5~9명	67	0.0	9.0	62.7	28.4	0.0	100.0	9.0	62.7	28.4	100.0
	10명이상	33	3.0	6.1	66.7	12.1	12.1	100.0	9.1	66.7	24.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1	7.9	56.5	32.8	1.7	100.0	9.0	56.5	34.5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13.0	60.9	17.4	8.7	100.0	13.0	60.9	26.1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2.1	70.8	25.0	2.1	100.0	2.1	70.8	27.1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7.3	61.6	27.8	2.6	100.0	7.9	61.6	30.5
야간근무	근무함	99	1.0	7.1	57.6	32.3	2.0	100.0	8.1	57.6	34.3	100.0
	근무안함	215	.5	7.0	60.5	29.8	2.3	100.0	7.4	60.5	32.1	100.0
휴일근무	근무함	35	2.9	8.6	57.1	28.6	2.9	100.0	11.4	57.1	31.4	100.0
	근무안함	145	0.0	8.3	56.6	31.7	3.4	100.0	8.3	56.6	35.2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함	105	1.9	5.7	64.8	26.7	1.0	100.0	7.6	64.8	27.6	100.0
	근무안함	188	1.1	8.0	59.0	30.3	1.6	100.0	9.0	59.0	31.9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62	0.0	4.8	62.9	27.4	4.8	100.0	4.8	62.9	32.3	100.0
	중간	73	2.7	9.6	53.4	28.8	5.5	100.0	12.3	53.4	34.2	100.0
	느림	88	0.0	4.5	55.7	38.6	1.1	100.0	4.5	55.7	39.8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9	0.0	7.9	69.7	21.3	1.1	100.0	7.9	69.7	22.5	100.0
	중간	88	0.0	6.8	61.4	29.5	2.3	100.0	6.8	61.4	31.8	100.0
	낮음	96	0.0	6.3	60.4	29.2	4.2	100.0	6.3	60.4	33.3	100.0
	66	3.0	9.1	57.6	30.3	0.0	100.0	12.1	57.6	30.3	100.0	

<문 36-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김밥 1>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삼각김밥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삼각김밥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8.0	51.6	38.0	1.6	100.0	8.8	51.6	39.6	100.0
성별	남	127	1.6	6.3	49.6	41.7	.8	100.0	7.9	49.6	42.5	100.0
	여	123	0.0	9.8	53.7	34.1	2.4	100.0	9.8	53.7	36.6	100.0
연령	20~24세	55	0.0	7.3	47.3	38.2	7.3	100.0	7.3	47.3	45.5	100.0
	25~29세	99	1.0	9.1	44.4	45.5	0.0	100.0	10.1	44.4	45.5	100.0
	30대	96	1.0	7.3	61.5	30.2	0.0	100.0	8.3	61.5	30.2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2.0	6.0	38.0	52.0	2.0	100.0	8.0	38.0	54.0	100.0
	부부가구	41	2.4	2.4	73.2	22.0	0.0	100.0	4.9	73.2	22.0	100.0
	부모와 동거	135	0.0	10.4	49.6	38.5	1.5	100.0	10.4	49.6	40.0	100.0
	기타	24	0.0	8.3	54.2	33.3	4.2	100.0	8.3	54.2	37.5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5	9.2	46.9	41.5	1.9	100.0	9.7	46.9	43.5	100.0
	기혼	41	2.4	2.4	73.2	22.0	0.0	100.0	4.9	73.2	22.0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14.9	51.1	27.7	4.3	100.0	17.0	51.1	31.9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7	8.3	45.0	41.7	3.3	100.0	10.0	45.0	45.0	100.0
	대졸 이상	143	0.0	5.6	54.5	39.9	0.0	100.0	5.6	54.5	39.9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6.5	37.0	54.3	0.0	100.0	8.7	37.0	54.3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1.3	10.3	50.0	34.6	3.8	100.0	11.5	50.0	38.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0.0	6.9	58.6	34.5	0.0	100.0	6.9	58.6	34.5	100.0
	500만원 이상	68	0.0	7.4	57.4	33.8	1.5	100.0	7.4	57.4	35.3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0.0	5.6	63.9	30.6	0.0	100.0	5.6	63.9	30.6	100.0
	16~35시간	139	0.0	8.6	50.4	38.8	2.2	100.0	8.6	50.4	41.0	100.0
	36시간 이상	75	2.7	8.0	48.0	40.0	1.3	100.0	10.7	48.0	41.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9	7.7	53.0	37.6	.9	100.0	8.5	53.0	38.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6	7.9	54.0	34.9	1.6	100.0	9.5	54.0	36.5	100.0
	3년 이상	35	0.0	0.0	51.4	42.9	5.7	100.0	0.0	51.4	48.6	100.0

<문 36-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김밥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삼각김밥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편의점 삼각김밥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8.0	51.6	38.0	1.6	100.0	8.8	51.6	39.6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0.0	1.6	54.8	40.3	3.2	100.0	1.6	54.8	43.5	100.0
	3~4명	88	1.1	11.4	50.0	37.5	0.0	100.0	12.5	50.0	37.5	100.0
	5~9명	67	0.0	9.0	50.7	38.8	1.5	100.0	9.0	50.7	40.3	100.0
	10명이상	33	3.0	9.1	51.5	33.3	3.0	100.0	12.1	51.5	36.4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1	9.6	54.8	33.9	.6	100.0	10.7	54.8	34.5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8.7	56.5	26.1	8.7	100.0	8.7	56.5	34.8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2.1	37.5	58.3	2.1	100.0	2.1	37.5	60.4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7.3	49.0	41.7	1.3	100.0	7.9	49.0	43.0	100.0
	근무함	99	1.0	9.1	55.6	32.3	2.0	100.0	10.1	55.6	34.3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5	7.4	52.6	38.6	.9	100.0	7.9	52.6	39.5	100.0
	근무함	35	2.9	11.4	45.7	34.3	5.7	100.0	14.3	45.7	4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0.0	6.9	54.5	36.6	2.1	100.0	6.9	54.5	38.6	100.0
	근무함	105	1.9	9.5	47.6	40.0	1.0	100.0	11.4	47.6	41.0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1	8.0	47.3	42.0	1.6	100.0	9.0	47.3	43.6	100.0
	근무함	62	0.0	8.1	64.5	25.8	1.6	100.0	8.1	64.5	27.4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2.7	9.6	54.8	28.8	4.1	100.0	12.3	54.8	32.9	100.0
	중간	88	0.0	6.8	46.6	46.6	0.0	100.0	6.8	46.6	46.6	100.0
	느림	89	0.0	7.9	53.9	37.1	1.1	100.0	7.9	53.9	38.2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0.0	6.8	42.0	47.7	3.4	100.0	6.8	42.0	51.1	100.0
	중간	96	0.0	9.4	56.3	33.3	1.0	100.0	9.4	56.3	34.4	100.0
	낮음	66	3.0	7.6	57.6	31.8	0.0	100.0	10.6	57.6	31.8	100.0

<문 36-3.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과일 1>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과일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과일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33.6	54.4	11.2	100.0	34.4	54.4	11.2	100.0
성별	남	127	.8	37.0	54.3	7.9	100.0	37.8	54.3	7.9	100.0
	여	123	.8	30.1	54.5	14.6	100.0	30.9	54.5	14.6	100.0
연령	20~24세	55	3.6	34.5	50.9	10.9	100.0	38.2	50.9	10.9	100.0
	25~29세	99	0.0	27.3	61.6	11.1	100.0	27.3	61.6	11.1	100.0
	30대	96	0.0	39.6	49.0	11.5	100.0	39.6	49.0	11.5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0.0	44.0	50.0	6.0	100.0	44.0	50.0	6.0	100.0
	부부가구	41	0.0	26.8	56.1	17.1	100.0	26.8	56.1	17.1	100.0
	부모와 동거	135	.7	31.9	56.3	11.1	100.0	32.6	56.3	11.1	100.0
	기타	24	4.2	33.3	50.0	12.5	100.0	37.5	50.0	12.5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1.0	34.8	54.1	10.1	100.0	35.7	54.1	10.1	100.0
	기혼	41	0.0	26.8	56.1	17.1	100.0	26.8	56.1	17.1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0.0	23.4	51.1	25.5	100.0	23.4	51.1	25.5	100.0
	대학 재학·휴학	60	3.3	36.7	55.0	5.0	100.0	40.0	55.0	5.0	100.0
	대졸 이상	143	0.0	35.7	55.2	9.1	100.0	35.7	55.2	9.1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0.0	41.3	54.3	4.3	100.0	41.3	54.3	4.3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3	29.5	53.8	15.4	100.0	30.8	53.8	15.4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1.7	37.9	55.2	5.2	100.0	39.7	55.2	5.2	100.0
	500만원 이상	68	0.0	29.4	54.4	16.2	100.0	29.4	54.4	16.2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0.0	30.6	63.9	5.6	100.0	30.6	63.9	5.6	100.0
	16~35시간	139	.7	35.3	53.2	10.8	100.0	36.0	53.2	10.8	100.0
	36시간 이상	75	1.3	32.0	52.0	14.7	100.0	33.3	52.0	14.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9	40.2	51.3	7.7	100.0	41.0	51.3	7.7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6	36.5	52.4	9.5	100.0	38.1	52.4	9.5	100.0
	3년 이상	35	0.0	25.7	62.9	11.4	100.0	25.7	62.9	11.4	100.0

<문 36-3.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과일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과일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과일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8	33.6	54.4	11.2	100.0	34.4	54.4	11.2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1.6	21.0	64.5	12.9	100.0	22.6	64.5	12.9	100.0
	3~4명	88	0.0	39.8	53.4	6.8	100.0	39.8	53.4	6.8	100.0
	5~9명	67	1.5	38.8	47.8	11.9	100.0	40.3	47.8	11.9	100.0
	10명이상	33	0.0	30.3	51.5	18.2	100.0	30.3	51.5	18.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1	30.5	56.5	11.9	100.0	31.6	56.5	11.9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56.5	30.4	13.0	100.0	56.5	30.4	13.0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35.4	58.3	6.3	100.0	35.4	58.3	6.3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28.5	58.9	11.9	100.0	29.1	58.9	11.9	100.0
	근무함	99	1.0	41.4	47.5	10.1	100.0	42.4	47.5	10.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5	33.5	54.9	11.2	100.0	34.0	54.9	11.2	100.0
	근무함	35	2.9	34.3	51.4	11.4	100.0	37.1	51.4	11.4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0.0	31.0	56.6	12.4	100.0	31.0	56.6	12.4	100.0
	근무함	105	1.9	37.1	51.4	9.5	100.0	39.0	51.4	9.5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1	35.1	50.5	13.3	100.0	36.2	50.5	13.3	100.0
	근무함	62	0.0	29.0	66.1	4.8	100.0	29.0	66.1	4.8	100.0
일의 속도_3분	빠름	73	1.4	32.9	54.8	11.0	100.0	34.2	54.8	11.0	100.0
	중간	88	0.0	34.1	58.0	8.0	100.0	34.1	58.0	8.0	100.0
	느림	89	1.1	33.7	50.6	14.6	100.0	34.8	50.6	14.6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1.1	37.5	52.3	9.1	100.0	38.6	52.3	9.1	100.0
	중간	96	0.0	30.2	54.2	15.6	100.0	30.2	54.2	15.6	100.0
	낮음	66	1.5	33.3	57.6	7.6	100.0	34.8	57.6	7.6	100.0

<문 36-7.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밥 1 >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밥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밥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1.2	28.4	62.4	7.6	.4	100.0	29.6	62.4	8.0	100.0
성별	남	127	.8	33.1	58.3	7.1	.8	100.0	33.9	58.3	7.9	100.0
	여	123	1.6	23.6	66.7	8.1	0.0	100.0	25.2	66.7	8.1	100.0
연령	20~24세	55	0.0	27.3	65.5	7.3	0.0	100.0	27.3	65.5	7.3	100.0
	25~29세	99	3.0	27.3	62.6	7.1	0.0	100.0	30.3	62.6	7.1	100.0
	30대	96	0.0	30.2	60.4	8.3	1.0	100.0	30.2	60.4	9.4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4.0	24.0	62.0	10.0	0.0	100.0	28.0	62.0	10.0	100.0
	부부가구	41	0.0	19.5	68.3	9.8	2.4	100.0	19.5	68.3	12.2	100.0
	부모와 동거	135	.7	31.1	63.0	5.2	0.0	100.0	31.9	63.0	5.2	100.0
	기타	24	0.0	37.5	50.0	12.5	0.0	100.0	37.5	50.0	12.5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1.0	30.4	61.4	7.2	0.0	100.0	31.4	61.4	7.2	100.0
	기혼	41	0.0	19.5	68.3	9.8	2.4	100.0	19.5	68.3	12.2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4.3	14.9	66.0	12.8	2.1	100.0	19.1	66.0	14.9	100.0
	대학 재학·휴학	60	0.0	31.7	63.3	5.0	0.0	100.0	31.7	63.3	5.0	100.0
	대졸 이상	143	.7	31.5	60.8	7.0	0.0	100.0	32.2	60.8	7.0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21.7	65.2	10.9	0.0	100.0	23.9	65.2	10.9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3	30.8	55.1	11.5	1.3	100.0	32.1	55.1	12.8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36.2	60.3	3.4	0.0	100.0	36.2	60.3	3.4	100.0
	500만원 이상	68	1.5	23.5	70.6	4.4	0.0	100.0	25.0	70.6	4.4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0.0	19.4	72.2	8.3	0.0	100.0	19.4	72.2	8.3	100.0
	16~35시간	139	1.4	25.9	64.7	7.9	0.0	100.0	27.3	64.7	7.9	100.0
	36시간 이상	75	1.3	37.3	53.3	6.7	1.3	100.0	38.7	53.3	8.0	100.0
경력	2년 미만	117	.9	31.6	61.5	6.0	0.0	100.0	32.5	61.5	6.0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6	30.2	60.3	6.3	1.6	100.0	31.7	60.3	7.9	100.0
	3년 이상	35	2.9	20.0	65.7	11.4	0.0	100.0	22.9	65.7	11.4	100.0

<문 36-7.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밥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밥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_밥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1.2	28.4	62.4	7.6	.4	100.0	29.6	62.4	8.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1.6	19.4	69.4	9.7	0.0	100.0	21.0	69.4	9.7	100.0
	3~4명	88	0.0	19.3	73.9	5.7	1.1	100.0	19.3	73.9	6.8	100.0
	5~9명	67	0.0	44.8	50.7	4.5	0.0	100.0	44.8	50.7	4.5	100.0
	10명이상	33	6.1	36.4	42.4	15.2	0.0	100.0	42.4	42.4	15.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6	27.7	65.0	6.2	.6	100.0	28.2	65.0	6.8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4.3	47.8	34.8	13.0	0.0	100.0	52.2	34.8	13.0	100.0
교대근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2.1	20.8	66.7	10.4	0.0	100.0	22.9	66.7	10.4	100.0
	근무안함	151	.7	28.5	64.2	6.6	0.0	100.0	29.1	64.2	6.6	100.0
야간근무	근무함	99	2.0	28.3	59.6	9.1	1.0	100.0	30.3	59.6	10.1	100.0
	근무안함	215	.9	28.4	64.7	6.0	0.0	100.0	29.3	64.7	6.0	100.0
휴일근무	근무함	35	2.9	28.6	48.6	17.1	2.9	100.0	31.4	48.6	20.0	100.0
	근무안함	145	1.4	29.7	63.4	5.5	0.0	100.0	31.0	63.4	5.5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함	105	1.0	26.7	61.0	10.5	1.0	100.0	27.6	61.0	11.4	100.0
	근무안함	188	1.6	27.7	63.8	6.4	.5	100.0	29.3	63.8	6.9	100.0
일의 속도 _3분	근무함	62	0.0	30.6	58.1	11.3	0.0	100.0	30.6	58.1	11.3	100.0
	빠름	73	1.4	19.2	69.9	8.2	1.4	100.0	20.5	69.9	9.6	100.0
	중간	88	1.1	23.9	69.3	5.7	0.0	100.0	25.0	69.3	5.7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느림	89	1.1	40.4	49.4	9.0	0.0	100.0	41.6	49.4	9.0	100.0
	높음	88	2.3	38.6	53.4	5.7	0.0	100.0	40.9	53.4	5.7	100.0
	중간	96	1.0	18.8	74.0	6.3	0.0	100.0	19.8	74.0	6.3	100.0
	낮음	66	0.0	28.8	57.6	12.1	1.5	100.0	28.8	57.6	13.6	100.0

<문 36-8.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패스트푸드 1>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4	4.8	54.8	39.6	.4	100.0	5.2	54.8	40.0	100.0
성별	남	127	.8	4.7	52.0	41.7	.8	100.0	5.5	52.0	42.5	100.0
	여	123	0.0	4.9	57.7	37.4	0.0	100.0	4.9	57.7	37.4	100.0
연령	20~24세	55	0.0	3.6	49.1	47.3	0.0	100.0	3.6	49.1	47.3	100.0
	25~29세	99	0.0	6.1	52.5	40.4	1.0	100.0	6.1	52.5	41.4	100.0
	30대	96	1.0	4.2	60.4	34.4	0.0	100.0	5.2	60.4	34.4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0.0	8.0	60.0	32.0	0.0	100.0	8.0	60.0	32.0	100.0
	부부가구	41	2.4	4.9	51.2	41.5	0.0	100.0	7.3	51.2	41.5	100.0
	부모와 동거	135	0.0	3.7	55.6	40.0	.7	100.0	3.7	55.6	40.7	100.0
	기타	24	0.0	4.2	45.8	50.0	0.0	100.0	4.2	45.8	50.0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0.0	4.3	56.0	39.1	.5	100.0	4.3	56.0	39.6	100.0
	기혼	41	2.4	4.9	51.2	41.5	0.0	100.0	7.3	51.2	41.5	100.0
교육수준	고졸	47	2.1	6.4	59.6	31.9	0.0	100.0	8.5	59.6	31.9	100.0
	대학 재학·휴학	60	0.0	6.7	50.0	41.7	1.7	100.0	6.7	50.0	43.3	100.0
	대졸 이상	143	0.0	3.5	55.2	41.3	0.0	100.0	3.5	55.2	41.3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0.0	4.3	67.4	28.3	0.0	100.0	4.3	67.4	28.3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3	9.0	43.6	46.2	0.0	100.0	10.3	43.6	46.2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1.7	50.0	48.3	0.0	100.0	1.7	50.0	48.3	100.0
	500만원 이상	68	0.0	2.9	63.2	32.4	1.5	100.0	2.9	63.2	33.8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0.0	0.0	52.8	47.2	0.0	100.0	0.0	52.8	47.2	100.0
	16~35시간	139	0.0	2.9	59.0	38.1	0.0	100.0	2.9	59.0	38.1	100.0
	36시간 이상	75	1.3	10.7	48.0	38.7	1.3	100.0	12.0	48.0	40.0	100.0
경력	2년 미만	117	0.0	5.1	56.4	37.6	.9	100.0	5.1	56.4	38.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6	6.3	49.2	42.9	0.0	100.0	7.9	49.2	42.9	100.0
	3년 이상	35	0.0	5.7	42.9	51.4	0.0	100.0	5.7	42.9	51.4	100.0

〈문 36-8.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패스트푸드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계	
		크게 줄었음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크게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4	4.8	54.8	39.6	.4	100.0	5.2	54.8	40.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0.0	6.5	46.8	46.8	0.0	100.0	6.5	46.8	46.8	100.0
	3~4명	88	1.1	2.3	69.3	26.1	1.1	100.0	3.4	69.3	27.3	100.0
	5~9명	67	0.0	3.0	53.7	43.3	0.0	100.0	3.0	53.7	43.3	100.0
	10명이상	33	0.0	12.1	33.3	54.5	0.0	100.0	12.1	33.3	54.5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6	4.5	57.1	37.3	.6	100.0	5.1	57.1	37.9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4.3	34.8	60.9	0.0	100.0	4.3	34.8	60.9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6.3	56.3	37.5	0.0	100.0	6.3	56.3	37.5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0.0	5.3	49.0	45.0	.7	100.0	5.3	49.0	45.7	100.0
	근무함	99	1.0	4.0	63.6	31.3	0.0	100.0	5.1	63.6	31.3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0.0	4.2	55.3	40.0	.5	100.0	4.2	55.3	40.5	100.0
	근무함	35	2.9	8.6	51.4	37.1	0.0	100.0	11.4	51.4	37.1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0.0	2.8	55.2	42.1	0.0	100.0	2.8	55.2	42.1	100.0
	근무함	105	1.0	7.6	54.3	36.2	1.0	100.0	8.6	54.3	37.1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5	3.2	54.8	41.5	0.0	100.0	3.7	54.8	41.5	100.0
	근무함	62	0.0	9.7	54.8	33.9	1.6	100.0	9.7	54.8	35.5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1.4	5.5	65.8	27.4	0.0	100.0	6.8	65.8	27.4	100.0
	중간	88	0.0	1.1	64.8	34.1	0.0	100.0	1.1	64.8	34.1	100.0
	느림	89	0.0	7.9	36.0	55.1	1.1	100.0	7.9	36.0	56.2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0.0	3.4	43.2	53.4	0.0	100.0	3.4	43.2	53.4	100.0
	중간	96	0.0	1.0	64.6	34.4	0.0	100.0	1.0	64.6	34.4	100.0
	낮음	66	1.5	12.1	56.1	28.8	1.5	100.0	13.6	56.1	30.3	100.0

<문 36-9.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야채 및 샐러드 1>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야채 및 샐러드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야채 및 샐러드			계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14.0	74.0	12.0	100.0	14.0	74.0	12.0	100.0
성별	남	127	16.5	69.3	14.2	100.0	16.5	69.3	14.2	100.0
	여	123	11.4	78.9	9.8	100.0	11.4	78.9	9.8	100.0
연령	20~24세	55	16.4	70.9	12.7	100.0	16.4	70.9	12.7	100.0
	25~29세	99	14.1	78.8	7.1	100.0	14.1	78.8	7.1	100.0
	30대	96	12.5	70.8	16.7	100.0	12.5	70.8	16.7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16.0	74.0	10.0	100.0	16.0	74.0	10.0	100.0
	부부가구	41	14.6	65.9	19.5	100.0	14.6	65.9	19.5	100.0
	부모와 동거	135	12.6	79.3	8.1	100.0	12.6	79.3	8.1	100.0
	기타	24	16.7	58.3	25.0	100.0	16.7	58.3	25.0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14.0	75.4	10.6	100.0	14.0	75.4	10.6	100.0
	기혼	41	14.6	65.9	19.5	100.0	14.6	65.9	19.5	100.0
교육수준	고졸	47	10.6	66.0	23.4	100.0	10.6	66.0	23.4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8.3	70.0	11.7	100.0	18.3	70.0	11.7	100.0
	대졸이상	143	13.3	78.3	8.4	100.0	13.3	78.3	8.4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15.2	73.9	10.9	100.0	15.2	73.9	10.9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0.3	75.6	14.1	100.0	10.3	75.6	14.1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17.2	67.2	15.5	100.0	17.2	67.2	15.5	100.0
	500만원 이상	68	14.7	77.9	7.4	100.0	14.7	77.9	7.4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16.7	72.2	11.1	100.0	16.7	72.2	11.1	100.0
	16~35시간	139	12.2	77.7	10.1	100.0	12.2	77.7	10.1	100.0
	36시간 이상	75	16.0	68.0	16.0	100.0	16.0	68.0	16.0	100.0
경력	2년 미만	117	12.0	78.6	9.4	100.0	12.0	78.6	9.4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1.1	71.4	17.5	100.0	11.1	71.4	17.5	100.0
	3년 이상	35	17.1	68.6	14.3	100.0	17.1	68.6	14.3	100.0

<문 36-9.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할 때_야채 및 샐러드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야채 및 샐러드			계	아르바이트 하기 전과 비교할 때 _야채 및 샐러드			계
			약간 줄었음	비슷함	약간 늘었음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250	14.0	74.0	12.0	100.0	14.0	74.0	12.0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11.3	80.6	8.1	100.0	11.3	80.6	8.1	100.0
	3~4명	88	13.6	78.4	8.0	100.0	13.6	78.4	8.0	100.0
	5~9명	67	13.4	70.1	16.4	100.0	13.4	70.1	16.4	100.0
	10명 이상	33	21.2	57.6	21.2	100.0	21.2	57.6	21.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0.2	77.4	12.4	100.0	10.2	77.4	12.4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43.5	43.5	13.0	100.0	43.5	43.5	13.0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14.6	75.0	10.4	100.0	14.6	75.0	10.4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11.3	73.5	15.2	100.0	11.3	73.5	15.2	100.0
	근무함	99	18.2	74.7	7.1	100.0	18.2	74.7	7.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11.2	77.2	11.6	100.0	11.2	77.2	11.6	100.0
	근무함	35	31.4	54.3	14.3	100.0	31.4	54.3	14.3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3.1	76.6	10.3	100.0	13.1	76.6	10.3	100.0
	근무함	105	15.2	70.5	14.3	100.0	15.2	70.5	14.3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4.4	72.9	12.8	100.0	14.4	72.9	12.8	100.0
	근무함	62	12.9	77.4	9.7	100.0	12.9	77.4	9.7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11.0	79.5	9.6	100.0	11.0	79.5	9.6	100.0
	중간	88	5.7	86.4	8.0	100.0	5.7	86.4	8.0	100.0
	느림	89	24.7	57.3	18.0	100.0	24.7	57.3	18.0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13.6	68.2	18.2	100.0	13.6	68.2	18.2	100.0
	중간	96	13.5	79.2	7.3	100.0	13.5	79.2	7.3	100.0
	낮음	66	15.2	74.2	10.6	100.0	15.2	74.2	10.6	100.0

<문 38-1.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4	46.8	26.0	20.0	.8	100.0	53.2	26.0	20.8	100.0
성별	남	127	6.3	44.9	27.6	21.3	0.0	100.0	51.2	27.6	21.3	100.0
	여	123	6.5	48.8	24.4	18.7	1.6	100.0	55.3	24.4	20.3	100.0
연령	20~24세	55	5.5	43.6	32.7	18.2	0.0	100.0	49.1	32.7	18.2	100.0
	25~29세	99	3.0	44.4	28.3	22.2	2.0	100.0	47.5	28.3	24.2	100.0
	30대	96	10.4	51.0	19.8	18.8	0.0	100.0	61.5	19.8	18.8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4.0	44.0	24.0	28.0	0.0	100.0	48.0	24.0	28.0	100.0
	부부가구	41	2.4	61.0	24.4	12.2	0.0	100.0	63.4	24.4	12.2	100.0
	부모와 동거	135	9.6	44.4	26.7	17.8	1.5	100.0	54.1	26.7	19.3	100.0
	기타	24	0.0	41.7	29.2	29.2	0.0	100.0	41.7	29.2	29.2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7.2	44.4	25.6	21.7	1.0	100.0	51.7	25.6	22.7	100.0
	기혼	41	2.4	61.0	24.4	12.2	0.0	100.0	63.4	24.4	12.2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36.2	25.5	34.0	2.1	100.0	38.3	25.5	36.2	100.0
	대학 재학·휴학	60	6.7	43.3	26.7	23.3	0.0	100.0	50.0	26.7	23.3	100.0
	대졸 이상	143	7.7	51.7	25.9	14.0	.7	100.0	59.4	25.9	14.7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4.3	43.5	23.9	28.3	0.0	100.0	47.8	23.9	28.3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1.3	56.4	20.5	21.8	0.0	100.0	57.7	20.5	21.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10.3	46.6	29.3	13.8	0.0	100.0	56.9	29.3	13.8	100.0
	500만원 이상	68	10.3	38.2	30.9	17.6	2.9	100.0	48.5	30.9	20.6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5.6	58.3	19.4	16.7	0.0	100.0	63.9	19.4	16.7	100.0
	16~35시간	139	7.9	45.3	30.2	15.1	1.4	100.0	53.2	30.2	16.5	100.0
	36시간 이상	75	4.0	44.0	21.3	30.7	0.0	100.0	48.0	21.3	30.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7.7	50.4	21.4	20.5	0.0	100.0	58.1	21.4	20.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9.5	49.2	23.8	15.9	1.6	100.0	58.7	23.8	17.5	100.0
	3년이상	35	2.9	48.6	37.1	11.4	0.0	100.0	51.4	37.1	11.4	100.0

<문 38-1.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계	식습관 변화_당이 많은 음식을 더 먹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4	46.8	26.0	20.0	.8	100.0	53.2	26.0	20.8	100.0	
사업장유형_규모	1~2명	62	3.2	46.8	30.6	19.4	0.0	100.0	50.0	30.6	19.4	100.0
	3~4명	88	13.6	35.2	23.9	26.1	1.1	100.0	48.9	23.9	27.3	100.0
	5~9명	67	3.0	53.7	28.4	14.9	0.0	100.0	56.7	28.4	14.9	100.0
	10명이상	33	0.0	63.6	18.2	15.2	3.0	100.0	63.6	18.2	18.2	100.0
사업장유형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7.3	42.4	28.2	22.0	0.0	100.0	49.7	28.2	22.0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4.3	60.9	17.4	13.0	4.3	100.0	65.2	17.4	17.4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56.3	22.9	16.7	0.0	100.0	60.4	22.9	16.7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7	47.0	25.8	25.8	.7	100.0	47.7	25.8	26.5	100.0
	근무함	99	15.2	46.5	26.3	11.1	1.0	100.0	61.6	26.3	12.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7.0	47.0	25.1	20.0	.9	100.0	54.0	25.1	20.9	100.0
	근무함	35	2.9	45.7	31.4	20.0	0.0	100.0	48.6	31.4	2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9.0	48.3	26.2	15.2	1.4	100.0	57.2	26.2	16.6	100.0
	근무함	105	2.9	44.8	25.7	26.7	0.0	100.0	47.6	25.7	26.7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3.7	45.7	26.6	22.9	1.1	100.0	49.5	26.6	23.9	100.0
	근무함	62	14.5	50.0	24.2	11.3	0.0	100.0	64.5	24.2	11.3	100.0
일의 속도_3분	빠름	73	9.6	46.6	27.4	15.1	1.4	100.0	56.2	27.4	16.4	100.0
	중간	88	10.2	39.8	33.0	17.0	0.0	100.0	50.0	33.0	17.0	100.0
	느림	89	0.0	53.9	18.0	27.0	1.1	100.0	53.9	18.0	28.1	100.0
일의 정시성_3분	높음	88	0.0	58.0	19.3	20.5	2.3	100.0	58.0	19.3	22.7	100.0
	중간	96	12.5	43.8	30.2	13.5	0.0	100.0	56.3	30.2	13.5	100.0
	낮음	66	6.1	36.4	28.8	28.8	0.0	100.0	42.4	28.8	28.8	100.0

<문 38-2.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를 더 먹음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먹음					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먹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7.2	38.8	31.6	21.6	.8	100.0	46.0	31.6	22.4	100.0
성별	남	127	7.9	38.6	31.5	21.3	.8	100.0	46.5	31.5	22.0	100.0
	여	123	6.5	39.0	31.7	22.0	.8	100.0	45.5	31.7	22.8	100.0
연령	20~24세	55	5.5	41.8	34.5	16.4	1.8	100.0	47.3	34.5	18.2	100.0
	25~29세	99	6.1	39.4	31.3	23.2	0.0	100.0	45.5	31.3	23.2	100.0
	30대	96	9.4	36.5	30.2	22.9	1.0	100.0	45.8	30.2	24.0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6.0	48.0	28.0	18.0	0.0	100.0	54.0	28.0	18.0	100.0
	부부가구	41	2.4	31.7	24.4	39.0	2.4	100.0	34.1	24.4	41.5	100.0
	부모와 동거	135	9.6	37.8	35.6	16.3	.7	100.0	47.4	35.6	17.0	100.0
	기타	24	4.2	37.5	29.2	29.2	0.0	100.0	41.7	29.2	29.2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8.2	40.6	32.9	17.9	.5	100.0	48.8	32.9	18.4	100.0
	기혼	41	2.4	31.7	24.4	39.0	2.4	100.0	34.1	24.4	41.5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31.9	29.8	34.0	2.1	100.0	34.0	29.8	36.2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0.0	40.0	30.0	18.3	1.7	100.0	50.0	30.0	20.0	100.0
	대졸 이상	143	7.7	40.6	32.9	18.9	0.0	100.0	48.3	32.9	18.9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6.5	47.8	30.4	15.2	0.0	100.0	54.3	30.4	15.2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5.1	29.5	32.1	30.8	2.6	100.0	34.6	32.1	33.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6.9	50.0	25.9	17.2	0.0	100.0	56.9	25.9	17.2	100.0
	500만원 이상	68	10.3	33.8	36.8	19.1	0.0	100.0	44.1	36.8	19.1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11.1	27.8	50.0	11.1	0.0	100.0	38.9	50.0	11.1	100.0
	16~35시간	139	5.8	40.3	30.9	22.3	.7	100.0	46.0	30.9	23.0	100.0
	36시간 이상	75	8.0	41.3	24.0	25.3	1.3	100.0	49.3	24.0	26.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10.3	42.7	28.2	17.9	.9	100.0	53.0	28.2	18.8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7.9	39.7	30.2	22.2	0.0	100.0	47.6	30.2	22.2	100.0
	3년 이상	35	0.0	31.4	45.7	20.0	2.9	100.0	31.4	45.7	22.9	100.0

<문 38-2.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를 더 먹음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먹음					계	식습관 변화_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먹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7.2	38.8	31.6	21.6	.8	100.0	46.0	31.6	22.4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6.5	45.2	29.0	17.7	1.6	100.0	51.6	29.0	19.4	100.0
	3~4명	88	6.8	33.0	39.8	19.3	1.1	100.0	39.8	39.8	20.5	100.0
	5~9명	67	7.5	41.8	22.4	28.4	0.0	100.0	49.3	22.4	28.4	100.0
	10명이상	33	9.1	36.4	33.3	21.2	0.0	100.0	45.5	33.3	21.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8.5	36.7	31.1	23.7	0.0	100.0	45.2	31.1	23.7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4.3	56.5	21.7	17.4	0.0	100.0	60.9	21.7	17.4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37.5	39.6	14.6	4.2	100.0	41.7	39.6	18.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4.0	36.4	33.1	25.8	.7	100.0	40.4	33.1	26.5	100.0
	근무함	99	12.1	42.4	29.3	15.2	1.0	100.0	54.5	29.3	16.2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7.0	38.1	32.1	21.9	.9	100.0	45.1	32.1	22.8	100.0
	근무함	35	8.6	42.9	28.6	20.0	0.0	100.0	51.4	28.6	2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7.6	41.4	29.7	20.7	.7	100.0	49.0	29.7	21.4	100.0
	근무함	105	6.7	35.2	34.3	22.9	1.0	100.0	41.9	34.3	23.8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5.3	41.5	29.3	22.9	1.1	100.0	46.8	29.3	23.9	100.0
	근무함	62	12.9	30.6	38.7	17.7	0.0	100.0	43.5	38.7	17.7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9.6	47.9	23.3	19.2	0.0	100.0	57.5	23.3	19.2	100.0
	중간	88	10.2	31.8	40.9	17.0	0.0	100.0	42.0	40.9	17.0	100.0
	느림	89	2.2	38.2	29.2	28.1	2.2	100.0	40.4	29.2	30.3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3.4	43.2	31.8	20.5	1.1	100.0	46.6	31.8	21.6	100.0
	중간	96	8.3	36.5	35.4	19.8	0.0	100.0	44.8	35.4	19.8	100.0
	낮음	66	10.6	36.4	25.8	25.8	1.5	100.0	47.0	25.8	27.3	100.0

<문 38-3.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4	24.8	39.6	30.4	.8	100.0	29.2	39.6	31.2	100.0
성별	남	127	4.7	25.2	42.5	26.8	.8	100.0	29.9	42.5	27.6	100.0
	여	123	4.1	24.4	36.6	34.1	.8	100.0	28.5	36.6	35.0	100.0
연령	20~24세	55	5.5	21.8	45.5	27.3	0.0	100.0	27.3	45.5	27.3	100.0
	25~29세	99	2.0	24.2	41.4	31.3	1.0	100.0	26.3	41.4	32.3	100.0
	30대	96	6.3	27.1	34.4	31.3	1.0	100.0	33.3	34.4	32.3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2.0	24.0	42.0	32.0	0.0	100.0	26.0	42.0	32.0	100.0
	부부가구	41	4.9	29.3	26.8	36.6	2.4	100.0	34.1	26.8	39.0	100.0
	부모와 동거	135	5.2	24.4	42.2	27.4	.7	100.0	29.6	42.2	28.1	100.0
	기타	24	4.2	20.8	41.7	33.3	0.0	100.0	25.0	41.7	33.3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4.3	23.7	42.5	29.0	.5	100.0	28.0	42.5	29.5	100.0
	기혼	41	4.9	29.3	26.8	36.6	2.4	100.0	34.1	26.8	39.0	100.0
교육수준	고졸	47	4.3	27.7	36.2	29.8	2.1	100.0	31.9	36.2	31.9	100.0
	대학 재학·휴학	60	6.7	20.0	48.3	25.0	0.0	100.0	26.7	48.3	25.0	100.0
	대졸 이상	143	3.5	25.9	37.1	32.9	.7	100.0	29.4	37.1	33.6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23.9	43.5	30.4	0.0	100.0	26.1	43.5	30.4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5.1	28.2	29.5	35.9	1.3	100.0	33.3	29.5	37.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3.4	20.7	36.2	39.7	0.0	100.0	24.1	36.2	39.7	100.0
	500만원 이상	68	5.9	25.0	51.5	16.2	1.5	100.0	30.9	51.5	17.6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5.6	27.8	50.0	13.9	2.8	100.0	33.3	50.0	16.7	100.0
	16~35시간	139	5.0	29.5	36.7	28.1	.7	100.0	34.5	36.7	28.8	100.0
	36시간 이상	75	2.7	14.7	40.0	42.7	0.0	100.0	17.3	40.0	42.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6.0	22.2	36.8	33.3	1.7	100.0	28.2	36.8	35.0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4.8	23.8	46.0	25.4	0.0	100.0	28.6	46.0	25.4	100.0
	3년 이상	35	0.0	31.4	45.7	22.9	0.0	100.0	31.4	45.7	22.9	100.0

<문 38-3.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계	식습관 변화_식사량이 늘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4	24.8	39.6	30.4	.8	100.0	29.2	39.6	31.2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3.2	21.0	45.2	29.0	1.6	100.0	24.2	45.2	30.6	100.0
	3~4명	88	8.0	29.5	42.0	19.3	1.1	100.0	37.5	42.0	20.5	100.0
	5~9명	67	3.0	19.4	37.3	40.3	0.0	100.0	22.4	37.3	40.3	100.0
	10명이상	33	0.0	30.3	27.3	42.4	0.0	100.0	30.3	27.3	42.4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4.5	27.7	38.4	28.8	.6	100.0	32.2	38.4	29.4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34.8	30.4	34.8	0.0	100.0	34.8	30.4	34.8	100.0
교대근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6.3	10.4	47.9	33.3	2.1	100.0	16.7	47.9	35.4	100.0
	근무안함	151	1.3	19.9	38.4	39.7	.7	100.0	21.2	38.4	40.4	100.0
야간근무	근무함	99	9.1	32.3	41.4	16.2	1.0	100.0	41.4	41.4	17.2	100.0
	근무안함	215	3.7	23.7	40.0	31.6	.9	100.0	27.4	40.0	32.6	100.0
휴일근무	근무함	35	8.6	31.4	37.1	22.9	0.0	100.0	40.0	37.1	22.9	100.0
	근무안함	145	4.8	26.2	40.7	27.6	.7	100.0	31.0	40.7	28.3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함	105	3.8	22.9	38.1	34.3	1.0	100.0	26.7	38.1	35.2	100.0
	근무안함	188	3.7	22.3	38.3	34.6	1.1	100.0	26.1	38.3	35.6	100.0
일의 속도 _3분	근무함	62	6.5	32.3	43.5	17.7	0.0	100.0	38.7	43.5	17.7	100.0
	빠름	73	6.8	28.8	42.5	21.9	0.0	100.0	35.6	42.5	21.9	100.0
	중간	88	5.7	30.7	38.6	25.0	0.0	100.0	36.4	38.6	25.0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느림	89	1.1	15.7	38.2	42.7	2.2	100.0	16.9	38.2	44.9	100.0
	높음	88	1.1	21.6	36.4	39.8	1.1	100.0	22.7	36.4	40.9	100.0
	중간	96	7.3	31.3	37.5	24.0	0.0	100.0	38.5	37.5	24.0	100.0
	낮음	66	4.5	19.7	47.0	27.3	1.5	100.0	24.2	47.0	28.8	100.0

<문 38-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5.2	36.4	31.2	26.8	.4	100.0	41.6	31.2	27.2	100.0
성별	남	127	3.9	37.0	30.7	28.3	0.0	100.0	40.9	30.7	28.3	100.0
	여	123	6.5	35.8	31.7	25.2	.8	100.0	42.3	31.7	26.0	100.0
연령	20~24세	55	1.8	41.8	18.2	36.4	1.8	100.0	43.6	18.2	38.2	100.0
	25~29세	99	5.1	36.4	36.4	22.2	0.0	100.0	41.4	36.4	22.2	100.0
	30대	96	7.3	33.3	33.3	26.0	0.0	100.0	40.6	33.3	26.0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2.0	44.0	34.0	20.0	0.0	100.0	46.0	34.0	20.0	100.0
	부부가구	41	2.4	34.1	31.7	31.7	0.0	100.0	36.6	31.7	31.7	100.0
	부모와 동거	135	7.4	39.3	29.6	23.0	.7	100.0	46.7	29.6	23.7	100.0
	기타	24	4.2	8.3	33.3	54.2	0.0	100.0	12.5	33.3	54.2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5.8	36.7	30.9	26.1	.5	100.0	42.5	30.9	26.6	100.0
	기혼	41	2.4	34.1	31.7	31.7	0.0	100.0	36.6	31.7	31.7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38.3	25.5	34.0	0.0	100.0	40.4	25.5	34.0	100.0
	대학 재학·휴학	60	3.3	36.7	28.3	30.0	1.7	100.0	40.0	28.3	31.7	100.0
	대졸 이상	143	7.0	35.7	34.3	23.1	0.0	100.0	42.7	34.3	23.1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4.3	41.3	34.8	19.6	0.0	100.0	45.7	34.8	19.6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1.3	33.3	28.2	37.2	0.0	100.0	34.6	28.2	37.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6.9	36.2	24.1	31.0	1.7	100.0	43.1	24.1	32.8	100.0
	500만원 이상	68	8.8	36.8	38.2	16.2	0.0	100.0	45.6	38.2	16.2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16.7	36.1	19.4	27.8	0.0	100.0	52.8	19.4	27.8	100.0
	16~35시간	139	4.3	38.1	31.7	25.2	.7	100.0	42.4	31.7	25.9	100.0
	36시간 이상	75	1.3	33.3	36.0	29.3	0.0	100.0	34.7	36.0	29.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6.8	36.8	33.3	23.1	0.0	100.0	43.6	33.3	23.1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4.8	30.2	30.2	34.9	0.0	100.0	34.9	30.2	34.9	100.0
	3년 이상	35	2.9	40.0	25.7	28.6	2.9	100.0	42.9	25.7	31.4	100.0

<문 38-4.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계	식습관 변화_혼자 먹기 익숙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5.2	36.4	31.2	26.8	.4	100.0	41.6	31.2	27.2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6.5	46.8	21.0	25.8	0.0	100.0	53.2	21.0	25.8	100.0
	3~4명	88	8.0	40.9	31.8	19.3	0.0	100.0	48.9	31.8	19.3	100.0
	5~9명	67	1.5	23.9	40.3	32.8	1.5	100.0	25.4	40.3	34.3	100.0
	10명이상	33	3.0	30.3	30.3	36.4	0.0	100.0	33.3	30.3	36.4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6.2	36.7	31.6	25.4	0.0	100.0	42.9	31.6	25.4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17.4	34.8	47.8	0.0	100.0	17.4	34.8	47.8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45.8	29.2	18.8	2.1	100.0	50.0	29.2	20.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1.3	29.8	30.5	37.7	.7	100.0	31.1	30.5	38.4	100.0
	근무함	99	11.1	46.5	32.3	10.1	0.0	100.0	57.6	32.3	10.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5.1	33.5	33.0	27.9	.5	100.0	38.6	33.0	28.4	100.0
	근무함	35	5.7	54.3	20.0	20.0	0.0	100.0	60.0	20.0	2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6.2	38.6	30.3	24.8	0.0	100.0	44.8	30.3	24.8	100.0
	근무함	105	3.8	33.3	32.4	29.5	1.0	100.0	37.1	32.4	30.5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1	31.4	34.6	32.4	.5	100.0	32.4	34.6	33.0	100.0
	근무함	62	17.7	51.6	21.0	9.7	0.0	100.0	69.4	21.0	9.7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4.1	41.1	37.0	17.8	0.0	100.0	45.2	37.0	17.8	100.0
	중간	88	6.8	43.2	34.1	14.8	1.1	100.0	50.0	34.1	15.9	100.0
	느림	89	4.5	25.8	23.6	46.1	0.0	100.0	30.3	23.6	46.1	100.0
일의 정서성 _3분	높음	88	0.0	27.3	34.1	37.5	1.1	100.0	27.3	34.1	38.6	100.0
	중간	96	8.3	39.6	33.3	18.8	0.0	100.0	47.9	33.3	18.8	100.0
	낮음	66	7.6	43.9	24.2	24.2	0.0	100.0	51.5	24.2	24.2	100.0

<문 38-5.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를 더 빨리함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이전보다 식사 더 빨리함				계	식습관 변화_이전보다 식사 더 빨리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0	66.0	18.4	11.6	100.0	70.0	18.4	11.6	100.0
성별	남	127	5.5	66.9	16.5	11.0	100.0	72.4	16.5	11.0	100.0
	여	123	2.4	65.0	20.3	12.2	100.0	67.5	20.3	12.2	100.0
연령	20~24세	55	3.6	54.5	20.0	21.8	100.0	58.2	20.0	21.8	100.0
	25~29세	99	2.0	70.7	21.2	6.1	100.0	72.7	21.2	6.1	100.0
	30대	96	6.3	67.7	14.6	11.5	100.0	74.0	14.6	11.5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8.0	70.0	18.0	4.0	100.0	78.0	18.0	4.0	100.0
	부부가구	41	2.4	58.5	24.4	14.6	100.0	61.0	24.4	14.6	100.0
	부모와 동거	135	3.0	68.1	14.8	14.1	100.0	71.1	14.8	14.1	100.0
	기타	24	4.2	58.3	29.2	8.3	100.0	62.5	29.2	8.3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4.3	67.6	16.9	11.1	100.0	72.0	16.9	11.1	100.0
	기혼	41	2.4	58.5	24.4	14.6	100.0	61.0	24.4	14.6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4.3	66.0	19.1	10.6	100.0	70.2	19.1	10.6	100.0
	대학 재학·휴학	60	5.0	56.7	26.7	11.7	100.0	61.7	26.7	11.7	100.0
	대졸 이상	143	3.5	69.9	14.7	11.9	100.0	73.4	14.7	11.9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8.7	69.6	17.4	4.3	100.0	78.3	17.4	4.3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2.6	66.7	19.2	11.5	100.0	69.2	19.2	11.5	100.0
	400만원~ 500만 원 미만	58	0.0	70.7	13.8	15.5	100.0	70.7	13.8	15.5	100.0
	500만원 이상	68	5.9	58.8	22.1	13.2	100.0	64.7	22.1	13.2	100.0
일 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8.3	63.9	16.7	11.1	100.0	72.2	16.7	11.1	100.0
	16~35시간	139	3.6	65.5	18.7	12.2	100.0	69.1	18.7	12.2	100.0
	36시간 이상	75	2.7	68.0	18.7	10.7	100.0	70.7	18.7	10.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3.4	69.2	17.9	9.4	100.0	72.6	17.9	9.4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7.9	63.5	20.6	7.9	100.0	71.4	20.6	7.9	100.0
	3년 이상	35	0.0	65.7	22.9	11.4	100.0	65.7	22.9	11.4	100.0

<문 38-5.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를 더 빨리함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이전보다 식사 더 빨리함				계	식습관 변화_이전보다 식사 더 빨리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0	66.0	18.4	11.6	100.0	70.0	18.4	11.6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1.6	64.5	22.6	11.3	100.0	66.1	22.6	11.3	100.0
	3~4명	88	6.8	63.6	19.3	10.2	100.0	70.5	19.3	10.2	100.0
	5~9명	67	4.5	68.7	16.4	10.4	100.0	73.1	16.4	10.4	100.0
	10명이상	33	0.0	69.7	12.1	18.2	100.0	69.7	12.1	18.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4.5	68.4	16.4	10.7	100.0	72.9	16.4	10.7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69.6	13.0	17.4	100.0	69.6	13.0	17.4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58.3	27.1	10.4	100.0	62.5	27.1	10.4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2.6	63.6	18.5	15.2	100.0	66.2	18.5	15.2	100.0
	근무함	99	6.1	69.7	18.2	6.1	100.0	75.8	18.2	6.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3.7	66.5	18.6	11.2	100.0	70.2	18.6	11.2	100.0
	근무함	35	5.7	62.9	17.1	14.3	100.0	68.6	17.1	14.3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3.4	68.3	17.2	11.0	100.0	71.7	17.2	11.0	100.0
	근무함	105	4.8	62.9	20.0	12.4	100.0	67.6	20.0	12.4	100.0
계약시간 이 외 근무	근무안함	188	3.7	66.0	19.1	11.2	100.0	69.7	19.1	11.2	100.0
	근무함	62	4.8	66.1	16.1	12.9	100.0	71.0	16.1	12.9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9.6	67.1	15.1	8.2	100.0	76.7	15.1	8.2	100.0
	중간	88	2.3	69.3	21.6	6.8	100.0	71.6	21.6	6.8	100.0
	느림	89	1.1	61.8	18.0	19.1	100.0	62.9	18.0	19.1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2.3	76.1	12.5	9.1	100.0	78.4	12.5	9.1	100.0
	중간	96	5.2	65.6	18.8	10.4	100.0	70.8	18.8	10.4	100.0
	낮음	66	4.5	53.0	25.8	16.7	100.0	57.6	25.8	16.7	100.0

<문 38-6.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더 불규칙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불규칙					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불규칙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0	32.0	36.4	27.2	.4	100.0	36.0	36.4	27.6	100.0
성별	남	127	4.7	27.6	40.2	27.6	0.0	100.0	32.3	40.2	27.6	100.0
	여	123	3.3	36.6	32.5	26.8	.8	100.0	39.8	32.5	27.6	100.0
연령	20~24세	55	1.8	36.4	29.1	32.7	0.0	100.0	38.2	29.1	32.7	100.0
	25~29세	99	1.0	27.3	39.4	32.3	0.0	100.0	28.3	39.4	32.3	100.0
	30대	96	8.3	34.4	37.5	18.8	1.0	100.0	42.7	37.5	19.8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2.0	28.0	34.0	36.0	0.0	100.0	30.0	34.0	36.0	100.0
	부부가구	41	0.0	34.1	41.5	22.0	2.4	100.0	34.1	41.5	24.4	100.0
	부모와 동거	135	5.9	34.8	34.8	24.4	0.0	100.0	40.7	34.8	24.4	100.0
	기타	24	4.2	20.8	41.7	33.3	0.0	100.0	25.0	41.7	33.3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4.8	31.4	35.3	28.5	0.0	100.0	36.2	35.3	28.5	100.0
	기혼	41	0.0	34.1	41.5	22.0	2.4	100.0	34.1	41.5	24.4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0.0	36.2	29.8	34.0	0.0	100.0	36.2	29.8	34.0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7	38.3	38.3	21.7	0.0	100.0	40.0	38.3	21.7	100.0
	대졸 이상	143	6.3	28.0	37.8	27.3	.7	100.0	34.3	37.8	28.0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2.2	21.7	39.1	37.0	0.0	100.0	23.9	39.1	37.0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3	33.3	38.5	26.9	0.0	100.0	34.6	38.5	26.9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6.9	41.4	32.8	19.0	0.0	100.0	48.3	32.8	19.0	100.0
	500만원 이상	68	5.9	29.4	35.3	27.9	1.5	100.0	35.3	35.3	29.4	100.0
일 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5.6	41.7	44.4	8.3	0.0	100.0	47.2	44.4	8.3	100.0
	16~35시간	139	5.8	26.6	36.0	30.9	.7	100.0	32.4	36.0	31.7	100.0
	36시간 이상	75	0.0	37.3	33.3	29.3	0.0	100.0	37.3	33.3	29.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4.3	29.1	34.2	32.5	0.0	100.0	33.3	34.2	32.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6.3	33.3	39.7	20.6	0.0	100.0	39.7	39.7	20.6	100.0
	3년 이상	35	0.0	42.9	40.0	14.3	2.9	100.0	42.9	40.0	17.1	100.0

<문 38-6.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더 불규칙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불규칙					계	식습관 변화_식사시간 불규칙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0	32.0	36.4	27.2	.4	100.0	36.0	36.4	27.6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4.8	32.3	41.9	21.0	0.0	100.0	37.1	41.9	21.0	100.0
	3~4명	88	5.7	25.0	33.0	35.2	1.1	100.0	30.7	33.0	36.4	100.0
	5~9명	67	1.5	40.3	37.3	20.9	0.0	100.0	41.8	37.3	20.9	100.0
	10명이상	33	3.0	33.3	33.3	30.3	0.0	100.0	36.4	33.3	30.3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5.6	29.9	37.3	26.6	.6	100.0	35.6	37.3	27.1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30.4	34.8	34.8	0.0	100.0	30.4	34.8	34.8	100.0
교대근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0.0	41.7	35.4	22.9	0.0	100.0	41.7	35.4	22.9	100.0
	근무안함	151	0.0	27.8	35.8	36.4	0.0	100.0	27.8	35.8	36.4	100.0
야간근무	근무함	99	10.1	38.4	37.4	13.1	1.0	100.0	48.5	37.4	14.1	100.0
	근무안함	215	3.3	31.2	38.1	27.0	.5	100.0	34.4	38.1	27.4	100.0
휴일근무	근무함	35	8.6	37.1	25.7	28.6	0.0	100.0	45.7	25.7	28.6	100.0
	근무안함	145	4.8	29.0	40.7	24.8	.7	100.0	33.8	40.7	25.5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함	105	2.9	36.2	30.5	30.5	0.0	100.0	39.0	30.5	30.5	100.0
	근무안함	188	1.6	31.9	36.2	29.8	.5	100.0	33.5	36.2	30.3	100.0
일의 속도 _3분	근무함	62	11.3	32.3	37.1	19.4	0.0	100.0	43.5	37.1	19.4	100.0
	빠름	73	1.4	35.6	43.8	19.2	0.0	100.0	37.0	43.8	19.2	100.0
	중간	88	10.2	26.1	33.0	30.7	0.0	100.0	36.4	33.0	30.7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느림	89	0.0	34.8	33.7	30.3	1.1	100.0	34.8	33.7	31.5	100.0
	높음	88	1.1	36.4	40.9	21.6	0.0	100.0	37.5	40.9	21.6	100.0
	중간	96	6.3	33.3	38.5	20.8	1.0	100.0	39.6	38.5	21.9	100.0
	낮음	66	4.5	24.2	27.3	43.9	0.0	100.0	28.8	27.3	43.9	100.0

<문 38-7.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8.4	43.6	34.8	13.2	100.0	52.0	34.8	13.2	100.0
성별	남	127	6.3	44.9	40.2	8.7	100.0	51.2	40.2	8.7	100.0
	여	123	10.6	42.3	29.3	17.9	100.0	52.8	29.3	17.9	100.0
연령	20~24세	55	9.1	43.6	30.9	16.4	100.0	52.7	30.9	16.4	100.0
	25~29세	99	6.1	39.4	43.4	11.1	100.0	45.5	43.4	11.1	100.0
	30대	96	10.4	47.9	28.1	13.5	100.0	58.3	28.1	13.5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6.0	50.0	20.0	24.0	100.0	56.0	20.0	24.0	100.0
	부부가구	41	2.4	58.5	29.3	9.8	100.0	61.0	29.3	9.8	100.0
	부모와 동거	135	11.9	34.1	42.2	11.9	100.0	45.9	42.2	11.9	100.0
	기타	24	4.2	58.3	33.3	4.2	100.0	62.5	33.3	4.2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9.7	40.6	35.7	14.0	100.0	50.2	35.7	14.0	100.0
	기혼	41	2.4	58.5	29.3	9.8	100.0	61.0	29.3	9.8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6.4	55.3	27.7	10.6	100.0	61.7	27.7	10.6	100.0
	대학 재학·휴학	60	10.0	46.7	28.3	15.0	100.0	56.7	28.3	15.0	100.0
	대졸 이상	143	8.4	38.5	39.9	13.3	100.0	46.9	39.9	13.3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6.5	45.7	21.7	26.1	100.0	52.2	21.7	26.1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2.6	59.0	30.8	7.7	100.0	61.5	30.8	7.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8.6	36.2	43.1	12.1	100.0	44.8	43.1	12.1	100.0
	500만원 이상	68	16.2	30.9	41.2	11.8	100.0	47.1	41.2	11.8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11.1	52.8	30.6	5.6	100.0	63.9	30.6	5.6	100.0
	16~35시간	139	9.4	43.2	36.7	10.8	100.0	52.5	36.7	10.8	100.0
	36시간 이상	75	5.3	40.0	33.3	21.3	100.0	45.3	33.3	21.3	100.0
경력	2년 미만	117	10.3	34.2	41.0	14.5	100.0	44.4	41.0	14.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2.7	47.6	27.0	12.7	100.0	60.3	27.0	12.7	100.0
	3년 이상	35	2.9	48.6	37.1	11.4	100.0	51.4	37.1	11.4	100.0

<문 38-7.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계	식습관 변화_간식을 더 많이 함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8.4	43.6	34.8	13.2	100.0	52.0	34.8	13.2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4.8	43.5	40.3	11.3	100.0	48.4	40.3	11.3	100.0
	3~4명	88	11.4	26.1	46.6	15.9	100.0	37.5	46.6	15.9	100.0
	5~9명	67	9.0	56.7	22.4	11.9	100.0	65.7	22.4	11.9	100.0
	10명이상	33	6.1	63.6	18.2	12.1	100.0	69.7	18.2	12.1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9.6	41.2	36.2	13.0	100.0	50.8	36.2	13.0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13.0	52.2	17.4	17.4	100.0	65.2	17.4	17.4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2.1	45.8	39.6	12.5	100.0	47.9	39.6	12.5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3.3	49.0	30.5	17.2	100.0	52.3	30.5	17.2	100.0
	근무함	99	16.2	35.4	41.4	7.1	100.0	51.5	41.4	7.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8.8	42.8	36.3	12.1	100.0	51.6	36.3	12.1	100.0
	근무함	35	5.7	48.6	25.7	20.0	100.0	54.3	25.7	2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0.3	45.5	35.2	9.0	100.0	55.9	35.2	9.0	100.0
	근무함	105	5.7	41.0	34.3	19.0	100.0	46.7	34.3	19.0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4.3	48.4	34.0	13.3	100.0	52.7	34.0	13.3	100.0
	근무함	62	21.0	29.0	37.1	12.9	100.0	50.0	37.1	12.9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8.2	45.2	31.5	15.1	100.0	53.4	31.5	15.1	100.0
	중간	88	14.8	36.4	36.4	12.5	100.0	51.1	36.4	12.5	100.0
	느림	89	2.2	49.4	36.0	12.4	100.0	51.7	36.0	12.4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2.3	61.4	26.1	10.2	100.0	63.6	26.1	10.2	100.0
	중간	96	12.5	40.6	36.5	10.4	100.0	53.1	36.5	10.4	100.0
	낮음	66	10.6	24.2	43.9	21.2	100.0	34.8	43.9	21.2	100.0

<문 38-8.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손수 덜 차려먹음 1>

	사례수	식습관 변화_음식을 손수 차리는 빈도 감소				계	식습관 변화_음식을 손수 차리는 빈도 감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7.2	35.2	38.4	19.2	100.0	42.4	38.4	19.2	100.0	
성별	남	127	7.9	33.1	40.9	18.1	100.0	40.9	40.9	18.1	100.0
	여	123	6.5	37.4	35.8	20.3	100.0	43.9	35.8	20.3	100.0
연령	20~24세	55	1.8	30.9	41.8	25.5	100.0	32.7	41.8	25.5	100.0
	25~29세	99	6.1	38.4	43.4	12.1	100.0	44.4	43.4	12.1	100.0
	30대	96	11.5	34.4	31.3	22.9	100.0	45.8	31.3	22.9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12.0	40.0	38.0	10.0	100.0	52.0	38.0	10.0	100.0
	부부가구	41	4.9	29.3	34.1	31.7	100.0	34.1	34.1	31.7	100.0
	부모와 동거	135	7.4	34.8	39.3	18.5	100.0	42.2	39.3	18.5	100.0
	기타	24	0.0	37.5	41.7	20.8	100.0	37.5	41.7	20.8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7.7	36.2	39.1	16.9	100.0	44.0	39.1	16.9	100.0
	기혼	41	4.9	29.3	34.1	31.7	100.0	34.1	34.1	31.7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8.5	27.7	40.4	23.4	100.0	36.2	40.4	23.4	100.0
	대학 재학·휴학	60	6.7	35.0	35.0	23.3	100.0	41.7	35.0	23.3	100.0
	대졸 이상	143	7.0	37.8	39.2	16.1	100.0	44.8	39.2	16.1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13.0	39.1	37.0	10.9	100.0	52.2	37.0	10.9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2.6	39.7	34.6	23.1	100.0	42.3	34.6	23.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58	10.3	31.0	36.2	22.4	100.0	41.4	36.2	22.4	100.0
	500만원 이상	68	5.9	30.9	45.6	17.6	100.0	36.8	45.6	17.6	100.0
일하는 시간	15시간 이하	36	5.6	44.4	33.3	16.7	100.0	50.0	33.3	16.7	100.0
	16~35시간	139	7.2	30.2	42.4	20.1	100.0	37.4	42.4	20.1	100.0
	36시간 이상	75	8.0	40.0	33.3	18.7	100.0	48.0	33.3	18.7	100.0
경력	2년 미만	117	8.5	39.3	37.6	14.5	100.0	47.9	37.6	14.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1.1	34.9	38.1	15.9	100.0	46.0	38.1	15.9	100.0
	3년 이상	35	0.0	31.4	45.7	22.9	100.0	31.4	45.7	22.9	100.0

<문 38-8. 아르바이트 이후 식습관 변화_손수 덜 차려먹음 II>

	사례수	식습관 변화_음식을 손수 차리는 빈도 감소				계	식습관 변화 _음식을 손수 차리는 빈도 감소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18	88	96	48	250	42.4	38.4	19.2	100.0	
사업장유형 _규모	1~2명	62	3	16	24	19	62	30.6	38.7	30.6	100.0
	3~4명	88	11	29	35	13	88	45.5	39.8	14.8	100.0
	5~9명	67	2	27	27	11	67	43.3	40.3	16.4	100.0
	10명이상	33	2	16	10	5	33	54.5	30.3	15.2	100.0
사업장유형 _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6	63	63	35	177	44.6	35.6	19.8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	11	6	6	23	47.8	26.1	26.1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2	14	27	5	48	33.3	56.3	10.4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5	62	52	32	151	44.4	34.4	21.2	100.0
	근무함	99	13	26	44	16	99	39.4	44.4	16.2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15	76	83	41	215	42.3	38.6	19.1	100.0
	근무함	35	3	12	13	7	35	42.9	37.1	20.0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2	57	52	24	145	47.6	35.9	16.6	100.0
	근무함	105	6	31	44	24	105	35.2	41.9	22.9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9	60	79	40	188	36.7	42.0	21.3	100.0
	근무함	62	9	28	17	8	62	59.7	27.4	12.9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9	21	25	18	73	41.1	34.2	24.7	100.0
	중간	88	8	33	38	9	88	46.6	43.2	10.2	100.0
	느림	89	1	34	33	21	89	39.3	37.1	23.6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1	37	34	16	88	43.2	38.6	18.2	100.0
	중간	96	10	32	37	17	96	43.8	38.5	17.7	100.0
	낮음	66	7	19	25	15	66	39.4	37.9	22.7	100.0

<문 41-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음주횟수나 양 | >

		사례수 (명)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 음주횟수나 양(%)			계
			줄었음	변화없음	늘었음	
전체		250	14.4	63.2	22.4	100.0
성별	남	127	20.5	55.1	24.4	100.0
	여	123	8.1	71.5	20.3	100.0
연령	20~24세	55	27.3	58.2	14.5	100.0
	25~29세	99	9.1	65.7	25.3	100.0
	30대	96	12.5	63.5	24.0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20.0	56.0	24.0	100.0
	부부가구	41	12.2	65.9	22.0	100.0
	부모와 동거	135	11.9	67.4	20.7	100.0
	기타	24	20.8	50.0	29.2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15.0	62.3	22.7	100.0
	기혼	41	12.2	65.9	22.0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17.0	53.2	29.8	100.0
	대학 재학 휴학	60	20.0	66.7	13.3	100.0
	대졸이상	143	11.2	65.0	23.8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19.6	54.3	26.1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6.7	61.5	21.8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10.3	56.9	32.8	100.0
	500만원 이상	68	11.8	76.5	11.8	100.0
	일하는시 간	15시간 이하	36	2.8	75.0	22.2
16~35시간	16~35시간	139	15.8	61.9	22.3	100.0
	36시간 이상	75	17.3	60.0	22.7	100.0
경력	2년미만	117	15.4	69.2	15.4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14.3	54.0	31.7	100.0
	3년 이상	35	11.4	60.0	28.6	100.0

<문 41-1.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음주횟수나 양 II >

		사례수 (명)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 -음주횟수나 양(%)			계
			줄었음	변화없음	늘었음	
전체		250	14.4	63.2	22.4	100.0
사업장유형 -규모	1~2명	62	8.1	72.6	19.4	100.0
	3~4명	88	18.2	63.6	18.2	100.0
	5~9명	67	11.9	58.2	29.9	100.0
	10명이상	33	21.2	54.5	24.2	100.0
사업장유형 -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15.3	63.3	21.5	100.0
	프랜차이즈 직 영점	23	17.4	52.2	30.4	100.0
	프랜차이즈 가 맹점	48	10.4	70.8	18.8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12.6	60.3	27.2	100.0
	근무함	99	17.2	67.7	15.2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11.6	65.1	23.3	100.0
	근무함	35	31.4	51.4	17.1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0.3	64.8	24.8	100.0
	근무함	105	20.0	61.0	19.0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4.4	63.8	21.8	100.0
	근무함	62	14.5	61.3	24.2	100.0
일의 속도 -3분	빠름	73	15.1	67.1	17.8	100.0
	중간	88	12.5	63.6	23.9	100.0
	느림	89	15.7	59.6	24.7	100.0
일의 정시성 -3분	높음	88	6.8	64.8	28.4	100.0
	중간	96	14.6	66.7	18.8	100.0
	낮음	66	24.2	56.1	19.7	100.0

<문 41-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흡연횟수나 양 1 >

		사례수 (명)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 - 흡연횟수나 양(%)			계
			줄었음	변화없음	늘었음	
전체		250	2.4	89.2	8.4	100.0
성별	남	127	4.7	81.9	13.4	100.0
	여	123	0.0	96.7	3.3	100.0
연령	20~24세	55	0.0	89.1	10.9	100.0
	25~29세	99	6.1	86.9	7.1	100.0
	30대	96	0.0	91.7	8.3	100.0
세대 유형	단독가구	50	8.0	80.0	12.0	100.0
	부부가구	41	0.0	97.6	2.4	100.0
	부모와 동거	135	.7	91.9	7.4	100.0
	기타	24	4.2	79.2	16.7	100.0
혼인 상태	미혼	207	2.9	87.9	9.2	100.0
	기혼	41	0.0	97.6	2.4	100.0
교육 수준	고졸	47	2.1	89.4	8.5	100.0
	대학 재학·휴학	60	3.3	83.3	13.3	100.0
	대졸이상	143	2.1	91.6	6.3	10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8.7	78.3	13.0	100.0
	200만원~ 400만원 미만	78	1.3	88.5	10.3	100.0
	400만원~ 500만원 미만	58	0.0	96.6	3.4	100.0
	500만원 이상	68	1.5	91.2	7.4	100.0
일하는시 간	15시간 이하	36	0.0	97.2	2.8	100.0
	16~35시간	139	.7	89.2	10.1	100.0
	36시간 이상	75	6.7	85.3	8.0	100.0
경력	2년미만	117	3.4	91.5	5.1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3.2	87.3	9.5	100.0
	3년이상	35	0.0	88.6	11.4	100.0

<문 41-2.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한 흡연횟수나 양 II >

		사례수	아르바이트 전과 비교 -흡연횟수나 양			계
			줄었음	변화없음	늘었음	
전체		250	2.4	89.2	8.4	100.0
사업장유형 -규모	1~2명	62	0.0	96.8	3.2	100.0
	3~4명	88	3.4	85.2	11.4	100.0
	5~9명	67	3.0	88.1	9.0	100.0
	10명이상	33	3.0	87.9	9.1	100.0
사업장유형 -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2.3	88.1	9.6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0.0	95.7	4.3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4.2	89.6	6.3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2.6	88.7	8.6	100.0
	근무함	99	2.0	89.9	8.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2.8	88.4	8.8	100.0
	근무함	35	0.0	94.3	5.7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2.1	93.1	4.8	100.0
	근무함	105	2.9	83.8	13.3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2.7	88.8	8.5	100.0
	근무함	62	1.6	90.3	8.1	100.0
일의 속도 -3분	빠름	73	2.7	86.3	11.0	100.0
	중간	88	1.1	87.5	11.4	100.0
	느림	89	3.4	93.3	3.4	100.0
일의 정시성 -3분	높음	88	3.4	87.5	9.1	100.0
	중간	96	2.1	89.6	8.3	100.0
	낮음	66	1.5	90.9	7.6	100.0

<문 55.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1>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계
			약간 나빠짐	변화없음	좋아짐	
전체		250	12.0	82.0	6.0	100.0
성별	남	127	9.4	81.9	8.7	100.0
	여	123	14.6	82.1	3.3	100.0
연령	20~24세	55	16.4	80.0	3.6	100.0
	25~29세	99	9.1	85.9	5.1	100.0
	30대	96	12.5	79.2	8.3	100.0
세대유형	단독가구	50	12.0	86.0	2.0	100.0
	부부가구	41	19.5	73.2	7.3	100.0
	부모와 동거	135	8.1	83.7	8.1	100.0
	기타	24	20.8	79.2	0.0	100.0
혼인상태	미혼	207	10.1	84.1	5.8	100.0
	기혼	41	19.5	73.2	7.3	100.0
교육수준	고졸	47	17.0	80.9	2.1	100.0
	대학 재학 휴학	60	10.0	86.7	3.3	100.0
	대졸이상	143	11.2	80.4	8.4	100.0
가구월소득	200만원 미만	46	8.7	89.1	2.2	100.0
	200만원~400만원 미만	78	21.8	73.1	5.1	100.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8	5.2	87.9	6.9	100.0
	500만원 이상	68	8.8	82.4	8.8	100.0
일하는시간	15시간 이하	36	13.9	72.2	13.9	100.0
	16~35시간	139	10.1	84.9	5.0	100.0
	36시간 이상	75	14.7	81.3	4.0	100.0
경력	2년미만	117	6.8	84.6	8.5	100.0
	2년이상~3년미만	63	7.9	85.7	6.3	100.0
	3년이상	35	28.6	71.4	0.0	100.0

<문 55.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II>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계
			약간 나빠짐	변화없음	좋아짐	
전체		250	12.0	82.0	6.0	100.0
사업장유형 -규모	1~2명	62	12.9	69.4	17.7	100.0
	3~4명	88	11.4	88.6	0.0	100.0
	5~9명	67	11.9	85.1	3.0	100.0
	10명이상	33	12.1	81.8	6.1	100.0
사업장유형 -사업자	개인사업장	177	9.6	82.5	7.9	100.0
	프랜차이즈 직영점	23	21.7	78.3	0.0	100.0
	프랜차이즈 가맹점	48	16.7	81.3	2.1	100.0
교대근무	근무안함	151	9.9	85.4	4.6	100.0
	근무함	99	15.2	76.8	8.1	100.0
야간근무	근무안함	215	10.2	83.3	6.5	100.0
	근무함	35	22.9	74.3	2.9	100.0
휴일근무	근무안함	145	13.8	81.4	4.8	100.0
	근무함	105	9.5	82.9	7.6	100.0
계약시간 이외 근무	근무안함	188	11.7	83.0	5.3	100.0
	근무함	62	12.9	79.0	8.1	100.0
일의 속도 _3분	빠름	73	20.5	76.7	2.7	100.0
	중간	88	10.2	84.1	5.7	100.0
	느림	89	6.7	84.3	9.0	100.0
일의 정시성 _3분	높음	88	18.2	80.7	1.1	100.0
	중간	96	12.5	80.2	7.3	100.0
	낮음	66	3.0	86.4	10.6	100.0

◎ 저자 약력

• 김 선 업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사회조사센터장, 연구교수

• 이 철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김 현 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

청년아르바이트의 일과 식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2017년 12월 31일
- 발행인 문종찬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02)6925-4349, www.labors.or.kr

ISBN 979-11-87917-13-7

(비매품)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FR2016S1A3A2924243)